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盧 隆 熙

一. 序 論

自治意識을 自治政에 對하여 지니는 住民의 政治意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一般政治意識을 土臺로 하여 存立함은 確實하나 政治意識의 경우는 政治에 對한 見解와 思考方式에 限定됨으로 一般政治 意識만으로서는 이를 明確히 判斷할 수 없음도 또한 確實하다. 그것은 自治政의 特性에서 自治는 住民의 政治意識이 그 基礎가 됨이 分明함으로 政治意識의 影響을 받고 또는 一般政治意識과 獨特한 다른 形態로 存立할수도 있고 또한 全國적으로 表現되고 判斷되는 政治意識과는 全然 相反되는 境遇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地方自治의 存在理由가 強調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政治意識의 高度的 位置가 政治에 對한 關心度를 土臺로 하고 있는 것처럼 自治意識의 高度 또한 自治政에 對한 關心度가 그 土臺로 되는 까닭에 住民이 自治政 一般에 關하여 特定의 問題에 對하여 갖는 見解를 一般國政에 對한 一般政治意識의 問題와 比較하면서 우리가 檢討할려고 하는 住民의 自治意識을 살펴보고 그 特性問題를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自治意識이 實質의으로는 政治意識과 分離되지 않음으로 地方自治나 民主主義 存立의 基礎가 되는 것은 分明하나 그 實態를 明確히 把握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意識自體가 係數적으로 測定될 對象이 못될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感情에 左右되기 쉬운 動的인 存在이기 때문이다. 또한 意識을 行動으로 擴張表現시키는 것이 問題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意識과 行動이 背反되는 경우가 많다. 以上과 같은 몇가지 問題點은 實質의으로 本地方自治意識調查의 信賴度를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實際問題로서 本調本는 그 自體의 조사단을 위하여 計劃된 것이 아니고 「家族意識調查」에 副次的으로 調查를 實現하게 됨에 따라 本調查단이 獨自의으로 가져야 할 여러가지 事項을 缺如하고 있으며 特히 調查對象者의 選定에 있어서 本調查의 性格上 職業別, 學歷別 및 年齡別에 더욱 置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家族意識調查上 不可避한 戶主, 戶主의 妻, 戶主의 長男等 家族別 分類가 實際的으로 많이 介入하게 되었으며 質疑項目에 있어서도 副次的인 調查가 받는 當然한 制約 때문에 全體에 關한 仔細한 項目을 網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與件이 다른

農村地域과 都市地域에 같은 質疑表를 使用하였다는 點에서 滿足할만한 調查가 못됨을 自認할 수 밖에 없다. 다만 住民들의 自治意識에 對한 傾向을 檢討하는 試驗的인 企圖에 不過함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나 地方自治의 問題는 自治意識과 더불어 民主主義란 重大한 價値概念속에 必然的으로 介入하게 됨으로 우리나라가 걸어야 할 民主主義의 길을 밟아 가면서 이에다가 우리가 當面한 能率의 問題를 調和시키는 方案을 摸索하여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로서 本調査의 歷史的 使命은 다한 것이라고 하겠다. 豫備調査를 거친 本調査의 實施過程은 다음과 같다.

1. 調查地域(10個地域)

서울...鍾路區 白鹿洞	京畿...仁川市 內洞	忠南...天安郡 歡城面
江原...平昌郡 平昌面	慶北...靑松郡 靑松面	慶北...金陵郡 農所面
慶南...釜山市 中央洞	全北...茂朱郡 雲川面	全南...光州市 大義洞
全南...麗川郡 召羅面		

以上の 10個地域의 選定方針은

(1) 서울 以外的 8個地域을 選定하되 嶺南, 湖南, 中央部(嶺南과 湖南을 除外한 地域)에서 都市, 僻地 및 都市와 僻地의 中間인 地域을 各 1個씩 選定하였고, (2) 調查地域의 크기는 市에 있어서는 洞, 郡에 있어서는 面單位로 하였다.

2. 調查對象人員

總調查對象人員은 1,098名으로 各地域別로 平均 110名을 選定하여 面接하되 地域別에 있어서 最大值와 最少值의 差를 可能한 限 적게하여 最少值의 100名으로부터 最大值 117名으로 하였으며 職業別, 學歷別, 年齡別等도 되도록 고루 섞이도록 留意하였다. 實際로 面接한 人員數를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송 100名, 금능 105名, 천안 109名, 평창 113名, 인천 115名, 부산 117名, 광주 107名, 여천 113名, 무주 113名, 서울 106名.

3. 調查方法

本調査 目的과 符合하는 內容의 質疑書를 作成하여 直接 面接調査의 方法을 擇하였으며, 質疑書에는 26個의 質疑項目을 두었고 그 全項目에 對한 答을 集計 整理하였는데, 質疑表의 作成에 있어서는 都市人과 僻地人들이 모두 理解하기 便利하게 하기 위하여 特히 用語에 留意하였다.

4. 結果分析

個個의 質疑表에 나타난 應答을 集計 整理하여 各應答의 몫(Portion)을 計算하여 百分比率로 나타냈으며 이를 보다 쉽고 迅速하게 알기 위하여 「圖表」로 表示하였다. 또한 本調査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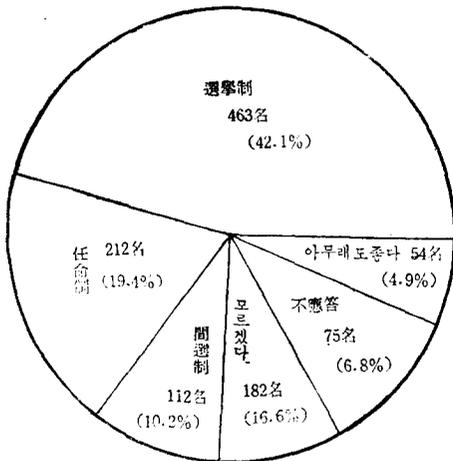
나타난 應答를 基準으로 若干의 解説을 添付하였는바 이는 어디까지나 副次的인 것임을 添言해 둔다.

以上과 같은 過程을 거쳐 行하여진 本調査는 自治意證을 究明하는데 對한 第一段階로서의 試圖임에 不過한 것이고 本調査의 意義가 있다면 이點 畧言을 再言하여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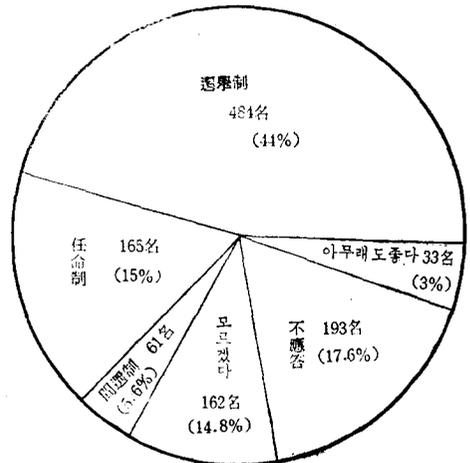
二. 長의 選出方法

地方自治行政의 執行의 責任을 지는 長의 選任方法과 그 形態에 있어서는 大體로 3大類型으로 分類된다. 첫째는 議會와 執行機關이 別途로 選任되는 類型인데 이것에는 (1) 各各 民選에 依하는 것과 (例, 美國의 市長市會制, 日本 그리고 4·19後 5·16 까지의 우리나라의 制度). (2) 國家가 任命하는 것 (例, 中央集權的인 大陸諸國의 道知事, 全體主義國家의 市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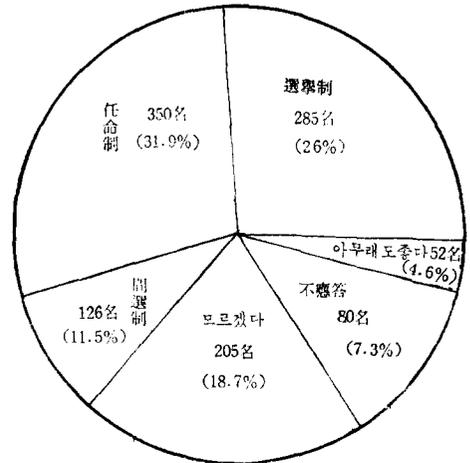
面長의 選任方法



市長의 選任方法



郡守의 選任方法



面長, 現行 우리나라 制度)이 있고, 둘째는 議會가 執行府를 選任하는 類型인데 이것에도, (1) 議會內에서 選定하는 것과 (例, 佛蘭西의 公府一드), (2) 議會外에서 選定하는 것이 (例, 美國의 市會支配人制와 우리나라에서 地方自治法의 第2次改正이 있을때 까지의 市邑 面長)이다. 끝으로 議會가 執行府를 兼하는 類型인데 이에 英國의 制度和 美國의 委員會制를 例로 들수있다. 以上の 3大類型을 細分化해 본 다섯가지 方法中에서 우리나라가 只今 까지 經驗해본 세가지 方法 卽 民選制, 任命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制, 間選制等の 세가지 方法中에서 市長, 面長, 郡守等の 選任方法으로 어느쪽이 좋은가 하는 意見을 調查한바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執行機關의 選任方法 (應答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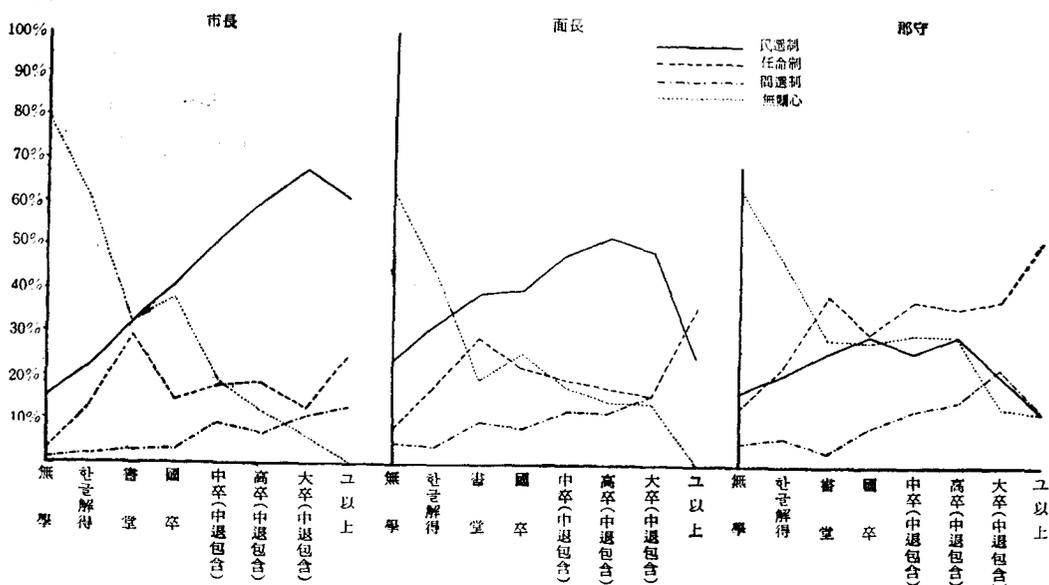
執行機關	民選	任命	間選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不應答	總計
市長	484 (44)	165 (15)	61 (5.5)	33 (3)	162 (14.7)	193 (17.5)	1,098 (100)
郡守	285 (26)	350 (31.9)	126 (2.5)	52 (4.7)	205 (28.7)	80 (7.3)	1,098 (100)
面長	463 (42.2)	212 (19.3)	112 (10.2)	54 (4.9)	182 (16.6)	75 (6.8)	1,098 (100)
總計	1,232 (37.4)	727 (22)	299 (9)	139 (4.2)	549 (16.7)	348 (10.6)	3,294 (100)

圖表 A에 나타낸것을 보면 市長, 面長 및 郡守의 選出方法에 對한 應答中 「모르겠다」「아무래도 좋다」「不應答」等으로 뚜렷한 意思表示를 하지않은 者의 數는 總應答數 3,294中, 1,036으로서 31.5%를 占하고 68.5%에 該當하는 2,258만이 意思表示를 뚜렷히하고 있다. 內譯別로 보면 應答者 1,098名中 市長의 境遇가 가장 甚하여 35.3%인 388名이고 郡守의 境遇가 다음으로 30.7%인 337名이며 面長의 境遇에는 28.3%인 311名이 意思表示를 拒否하고 있다. 「모르겠다」「아무래도 좋다」「不應答」을 各各 再檢討하여 볼 必要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모르겠다」와 「不應答」을 消極的인 無關心으로 보고 이를 一括하여 無關心이라고 한다면 그 數가 적지 않음에 于先 놀랄만하다.

한편 이같은 比率을 다시 自治行政의 單位別로 보면 民選制에 對한 支持率은 市長이 第一

圖表 A

選出方法에 對한 學歷別應答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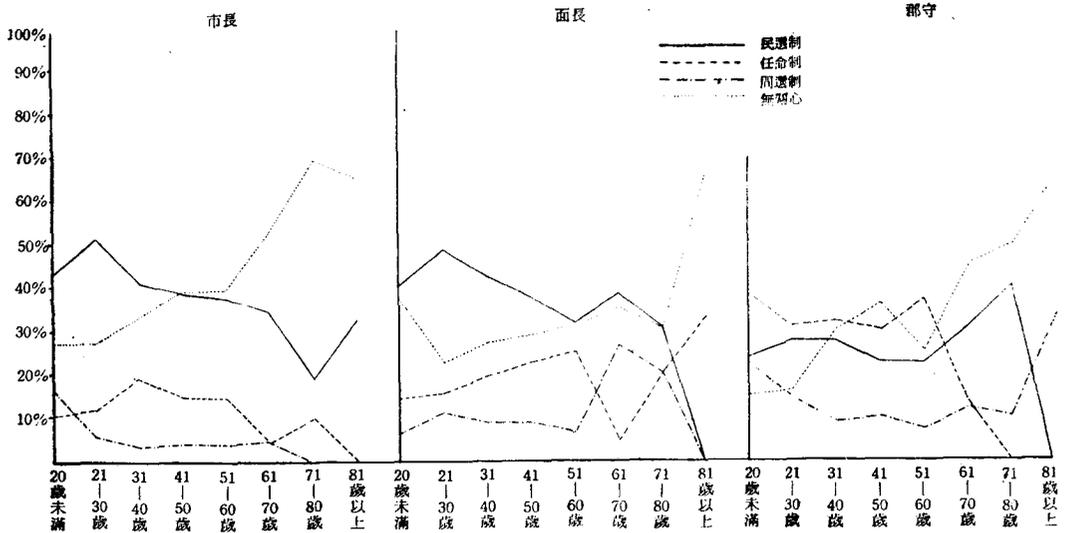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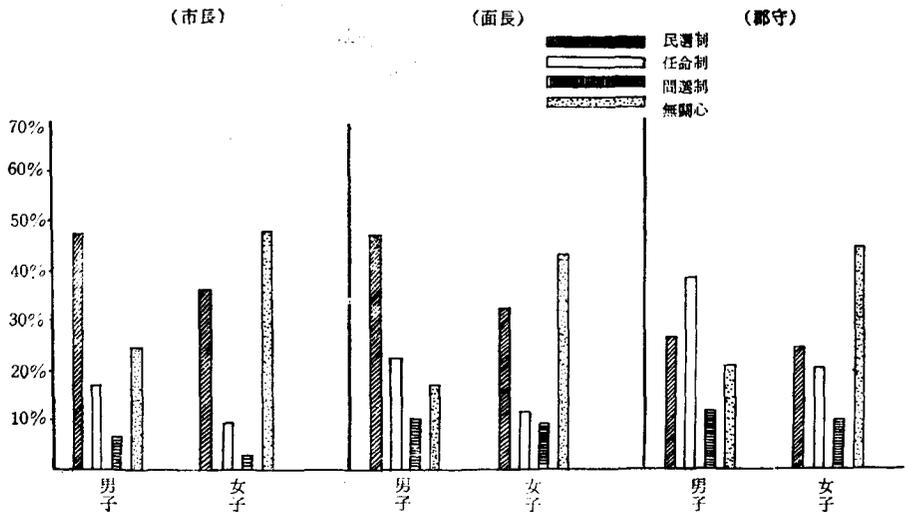
强하고 郡守가 第一弱하며 任命制에 있어서는 郡守가 强하고 市長이 第一 낮은것으로 보아서 只今까지 民選郡守를 갖어보지 못한 過去의 經驗이 많이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諸結果는 只今까지 實現해 온 自治制度의 教育的 效果面을 말하여 주는듯하다.

(圖表 1)

選出方法에 對한 年齡別 應答內容



選出方法에 對한 性別 應答內容



市長의 選出方法 (學歷別)

무	학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명입	지방의 회에서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불응	計
		18	4	2	7	46	47	120
		(14.5)	(3.2)	(1.6)	(5.6)	(37.0)	(37.1)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한글해독정도	32 (22.6)	18 (12.7)	3 (2.1)	6 (4.2)	51 (36.1)	31 (21.9)	141
서 당	10 (33.3)	9 (30.0)	1 (3.3)	1 (3.3)	4 (13.3)	5 (16.6)	30
국민교중퇴 및 졸업	139 (41.9)	52 (15.7)	12 (3.6)	12 (3.6)	48 (14.5)	68 (20.5)	331
중학 중퇴 및 졸업	74 (52.1)	26 (18.3)	14 (9.8)	3 (2.1)	6 (4.2)	19 (13.3)	142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101 (60.8)	32 (19.2)	13 (7.8)	3 (1.8)	4 (2.4)	13 (7.8)	166
대학 중퇴 및 졸업	94 (68.1)	19 (13.7)	15 (10.8)	—	2 (1.4)	8 (5.7)	138
그 이 상	5 (62.0)	2 (25.5)	1 (12.5)	—	—	—	8
기 타	11 (61.1)	3 (16.6)	—	1 (5.5)	1 (5.5)	2 (11.0)	18
計	484 (44)	165 (15)	61 (5.5)	33 (3.0)	162 (14.7)	193 (17.5)	1,098

市長의 選出方法 (年齡別)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입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불응	計
20세미만	24 (44.4)	6 (11)	9 (16.6)	—	5 (9.3)	10 (18.5)	54
21 ~ 30	166 (52.6)	39 (12.3)	21 (6.7)	8 (2.5)	37 (11.7)	44 (13.9)	315
31 ~ 40	136 (42.2)	63 (19.5)	13 (4.0)	13 (4.0)	48 (14.9)	49 (15.2)	322
41 ~ 50	91 (39.9)	35 (15.3)	11 (4.8)	9 (3.9)	36 (15.7)	46 (20.1)	228
51 ~ 60	45 (38.7)	18 (15.5)	5 (4.3)	1 (0.9)	23 (19.8)	24 (20.6)	116
61 ~ 70	14 (35.8)	2 (5.1)	2 (5.1)	1 (2.6)	8 (20.5)	12 (30.7)	39
71 ~ 80	2 (20)	1 (10)	—	1 (10)	3 (30)	3 (30)	10
81 ~	1 (33.3)	—	—	—	—	2 (66.6)	3
不明	5 (50)	1 (10)	—	—	1 (10)	3 (30)	10
기 타	—	—	—	—	1 (100)	—	1
計	484 (44)	165 (15)	61 (5.5)	33 (3.0)	162 (14.7)	193 (17.5)	1,098

市長의 選出方法 (性別)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입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불응	計
남	312 (48.3)	119 (18.4)	45 (7.0)	11 (1.7)	56 (8.6)	102 (15.8)	645
녀	168 (37.8)	44 (10.0)	16 (3.6)	22 (4.9)	105 (23.6)	89 (20)	444
기 타	4 (44.4)	2 (22.2)	—	—	1 (11.1)	2 (22.2)	9
計	484 (44)	165 (15)	61 (5.5)	33 (3.0)	162 (14.7)	193 (17.5)	1,098

資 料

郡守의 選出方法 (學歷別)

	우리가 투 표	정부에서 임 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불 응	計
무 학	21 (16.9)	16 (12.9)	7 (5.6)	13 (10.5)	60 (48.4)	7 (5.6)	124
한 글 해 득 정 도	31 (21.9)	33 (23.4)	9 (6.4)	11 (7.9)	52 (36.9)	5 (3.5)	141
서 당	8 (26.6)	12 (40.9)	1 (3.4)	1 (3.4)	7 (23.3)	1 (3.3)	30
국민학교중퇴 및 졸업	101 30.5	104 (31.4)	28 (8.5)	14 (4.2)	58 (17.5)	26 (7.8)	331
중학교중퇴 및 졸업	38 (26.8)	55 (38.7)	19 (13.4)	4 (2.8)	11 (7.7)	15 (10.6)	142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51 (30.7)	63 (37.9)	26 (15.7)	6 (3.6)	10 (6.0)	10 (6.0)	166
대학교중퇴 및 졸업	30 (21.7)	55 (39.8)	33 (23.9)	2 (1.5)	6 (4.3)	12 (8.7)	138
그 이 상	1 (12.5)	5 (62.5)	1 (12.5)	—	1 (12.5)	—	8
기 타	4 (22.2)	7 (38.9)	2 (11.1)	1 (5.6)	—	4 (22.2)	18
計	285 (26.0)	350 (31.9)	126 (11.5)	52 (4.7)	205 (18.7)	80 (7.3)	1,098

郡守의 選出方法 (年齡別)

	우리가 투 표	정부에서 임 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불 응	計
20 세 미 만	13 (24.0)	21 (38.9)	12 (22.2)	—	3 (5.6)	5 (9.3)	54
21 ~ 30	88 (27.9)	100 (31.7)	47 (14.9)	12 (3.8)	49 (15.5)	19 (6.0)	315
31 ~ 40	90 (27.9)	104 (32.2)	30 (9.3)	17 (5.3)	63 (19.5)	18 (5.6)	322
41 ~ 50	51 (22.3)	69 (30.2)	23 (10.1)	13 (5.7)	49 (21.5)	23 (10.1)	228
51 ~ 60	26 (22.4)	43 (37.1)	9 (7.8)	4 (3.4)	24 (20.6)	10 (8.0)	116
61 ~ 70	12 (30.7)	5 (12.8)	4 (10.2)	4 (10.2)	11 (28.2)	3 (7.7)	39
71 ~ 80	4 (40)	1 (10)	—	2 (20)	3 (30)	—	10
81 ~	—	1 (33.3)	—	—	2 (66.4)	—	3
不 明	1 (10)	1 (10)	6 (60)	1 (10)	—	2 (20)	10
其 他	—	—	—	—	1 (100)	—	1
計	285 (26.0)	350 (31.9)	126 (11.5)	52 (4.7)	205 (18.7)	80 (7.3)	1,098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郡守의 選出方法 (性別)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입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다 좋	모르겠다	불 응	計
남	174 (27.0)	254 (39.4)	80 (12.4)	22 (3.4)	67 (10.3)	48 (7.4)	645
여	111 (25.0)	90 (20.3)	45 (10.1)	30 (6.8)	138 (31.1)	30 (6.8)	444
기 타	—	6 (66.6)	1 (11.1)	—	—	2 (22.2)	9
計	285 (26.0)	350 (31.9)	126 (11.5)	52 (4.7)	205 (18.7)	80 (7.3)	1,098

面長의 選出方法 (學歷別)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입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다 좋	모르겠다	불 응	計
무 학	30 (24.1)	10 (8.1)	6 (4.9)	14 (11.2)	58 (46.5)	6 (4.9)	124
한글해득정도	46 (32.6)	26 (18.5)	6 (4.2)	9 (6.4)	48 (34.0)	6 (4.3)	141
서 당	12 (40)	9 (30)	3 (10)	2 (6.7)	3 (10)	1 (3.3)	30
국민교중퇴 및 졸업	139 (41.8)	77 (23.2)	29 (8.8)	11 (3.4)	51 (15.4)	24 (7.3)	331
중학교중퇴 및 졸업	71 (49.8)	27 (20.0)	18 (12.7)	6 (4.3)	7 (5.0)	13 (9.2)	142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89 (53.4)	30 (18.)	21 (12.6)	6 (3.6)	10 (6.0)	10 (6.0)	166
대학교중퇴 및 졸업	69 (50.0)	24 (17.4)	24 (17.0)	5 (3.6)	5 (3.6)	11 (8.0)	138
그 이 상	2 (25.0)	3 (37.5)	3 (37.5)	—	—	—	8
기 타	5 (27.8)	6 (33.3)	2 (11.1)	1 (5.5)	—	4 (22.2)	18
計	463 (42.1)	212 (19.3)	112 (10.2)	54 (4.9)	183 (16.6)	75 (6.8)	1,098

面長의 選出方法 (年齡別)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입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다 좋	모르겠다	불 응	計
20세미만	22 (40.7)	8 (14.8)	4 (7.4)	14 (25.9)	2 (3.7)	4 (7.4)	54
21 ~ 30	155 (49.1)	50 (15.9)	35 (11.1)	14 (4.4)	44 (13.9)	17 (5.4)	315
31 ~ 40	139 (43.1)	63 (19.5)	31 (9.6)	14 (4.3)	57 (17.7)	18 (5.6)	322
41 ~ 50	87 (38.1)	51 (22.3)	22 (9.6)	5 (2.2)	42 (18.4)	21 (9.2)	228
51 ~ 60	38 (32.7)	32 (27.6)	9 (7.7)	5 (4.3)	22 (18.9)	10 (8.6)	116

資 料

61 ~ 70	15 (38.4)	2 (5.1)	8 (26.5)	2 (5.1)	9 (23.0)	3 (7.7)	39
71 ~ 80	3 (30)	2 (20)	2 (20)	—	3 (30)	—	10
81 ~	—	1 (3.3)	—	—	2 (6.6)	—	3
不 明	4 (40)	3 (30)	1 (10)	—	—	2 (20)	10
기 타	—	—	—	—	1 (100)	—	1
計	463 (42.1)	212 (19.3)	112 (10.2)	54 (4.9)	182 (16.6)	75 (6.8)	1,098

面長의 選出方法 (性別)

	우리가 투 표	정부에서 임 서 명	지방의회 에서 선출	아무래도 좋 다	모르겠다	불 응	計
남	312 (48.4)	152 (23.6)	68 (10.5)	23 (3.5)	45 (7.0)	45 (7.0)	645
여	149 (33.5)	56 (12.6)	43 (9.7)	31 (7.0)	137 (30.8)	28 (6.3)	444
기 타	2 (22.2)	4 (44.4)	1 (11.1)	—	—	2 (22.2)	9
計	463 (42.1)	212 (19.3)	112 (10.2)	54 (4.9)	182 (16.6)	75 (6.8)	1,098

圖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를 各應答內容別로 살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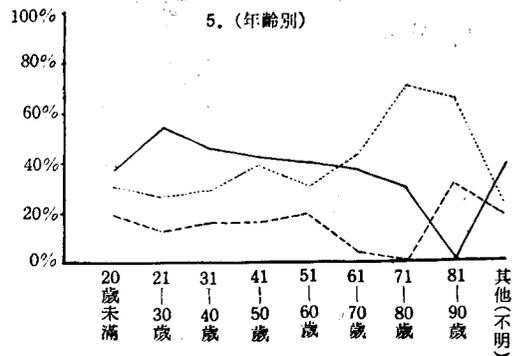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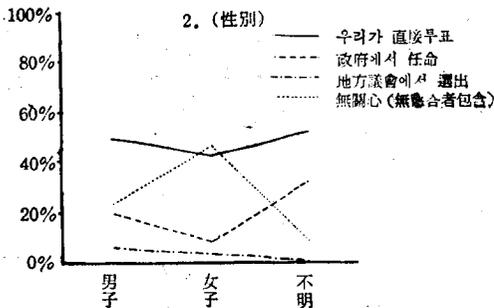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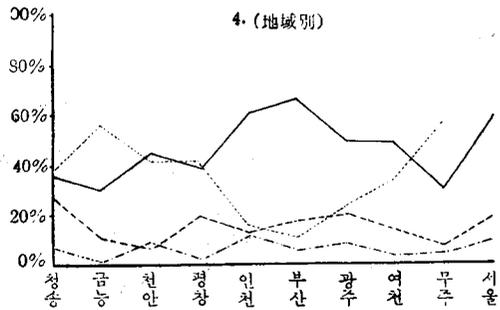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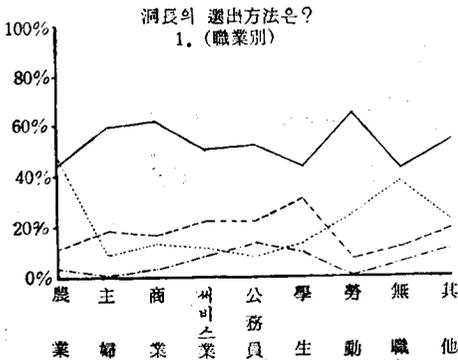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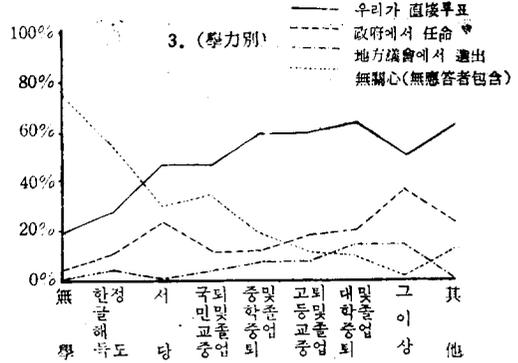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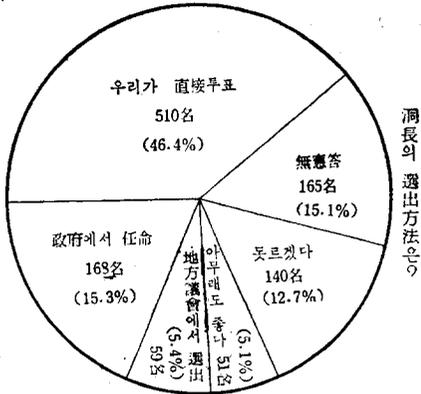
優先 이것을 學歷別로 보면 「아무래도 좋다」라는 積極的인 無關心과 「모르겠다」라는 消極的인 無關心을 合해서 뚜렷한 意思表示를 하고있지 않은 無關心은 學歷에 反比例하고 民選制와 間選制에 對한 意見은 學歷에 正比例함을 알수 있다. 任命制에 對한 意見은 뚜렷한 傾向을 찾기는 困難하나 郡守에 境遇에는 學歷과 比例해서 支持하고 있음은 亦是 經驗한 制度에 對한 無批判的인 支持도를 엿볼 수 있으며 制度實現의 教育的인 效果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것은 教育水準이 낮은 卽 國民學校를 卒業하였을 程度의 사람들은 市長, 面長 및 郡守의 選任方法에 있어서 各制度上의 長短點을 全然 모르고 있는 듯하여 無關心한 態度가 높은 位置에 있음은 이를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를 다시 年齡別로 有權者로서의 資格을 지닌 21歲 以上の 應答者 內容을 檢討하여 보면 無關心한 態度는 年齡에 比例하고 있음이 뚜렷함을 圖表 1에 依하여 곧 알 수 있다. 또한 民選制에 있어서 郡守를 除外하고는 市長, 面長은 年齡에 反比例하는 傾向이 있으며 任命制나 間選制보다는 勿論 高率의 位置를 占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나 民選制가 年齡에 反比例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은 經驗을 얻은 高齡者일수록 選舉에 對한 期待가 減少되며 따라서 選舉의 不必要性에 對한 度가 增加하여감을 圖表 1에 依하여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性別로 이를 考察하여 보면 女性에 있어서 無關心한 態度는 男性에 比해서 約 2倍 程度나 높으며 郡守의 境遇 男性은 任命制를 民選制보다 더 支持하고 있는데 反하여 女性은 民選制를 任命制보다 더 支持하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 이것은 한편 男性들이 市長이나 面長에 比해서 唯獨이 郡守에 對해서는 任命制를 主張하는 것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男女를 不分하고 間選制에 對한 支持率의 낮임은 亦是 이 制度의 體驗期間이 짧았음을 말하여 주는 것라고 하겠다.

(圖表 2) 洞長의 選出方法은 어떻게 하는가?



資 料

洞長의 選出方法 (年齡別)

	우리가 투 표	정부에서 입 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 다	모르겠다	불응답	計
20 歲 미 만	20 (37.0)	10 (18)	8 (15)	3 (6)	5 (9)	8 (15)	54
21 ~ 30	171 (54.2)	38 (12.0)	18 (5.7)	14 (4.4)	34 (10.8)	40 (12.7)	315
31 ~ 40	147 (45.6)	53 (16.4)	21 (6.5)	20 (6.2)	41 (12.7)	40 (12.4)	322
41 ~ 50	100 (43.8)	38 (16.6)	4 (1.8)	14 (6.1)	31 (13.6)	41 (18.4)	228
51 ~ 60	48 (41.4)	24 (20.7)	6 (5.2)	3 (2.6)	16 (13.8)	19 (16.3)	116
61 ~ 70	15 (38.4)	2 (5.0)	2 (5.0)	1 (2.6)	9 (23.0)	10 (26.0)	39
71 ~ 80	3 (30)	—	—	1 (10)	3 (30)	3 (30)	10
81 ~	—	1 (33.3)	—	—	—	2 (66.6)	3
不 明	6 (60)	2 (20)	—	—	—	2 (20)	10
其 他	—	—	—	—	1 100	—	1
計	510 (46.4)	168 (15.3)	59 (5.4)	56 (5.1)	140 (12.7)	165 (15.0)	1,098

洞長의 選出方法 (職業別)

	우리가 투 표	정부에서 입 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 다	모르겠다	불응답	計
농 업	165 (40.4)	51 (12.5)	13 (3.2)	12 (2.9)	61 (15)	105 (25.7)	407
주 부	6 (60)	2 (20)	—	—	1 (10)	1 (10)	10
상 업	78 (61)	23 (18)	4 (3.0)	6 (4.7)	7 (5.5)	10 (7.8)	128
씨 비 스 업	36 (50.5)	17 (23.9)	6 (8.5)	2 (2.9)	7 (9.8)	3 (4.3)	71
공 무 원	32 (54.1)	14 (23.7)	7 (11.8)	3 (5.1)	1 (1.7)	2 (3.4)	59
학 생	23 (45.1)	16 (31.4)	5 (9.8)	4 (7.8)	1 (2.0)	2 (3.9)	51
노 동	8 (66.6)	1 (8.3)	—	1 (8.3)	1 (8.3)	1	12
無	127 (42.8)	34 (11.5)	18 (6.1)	28 (8.4)	54 (18.2)	38 (12.8)	296
기 타	35 (54.6)	10 (15.6)	6 (9.4)	3 (4.7)	7 (10.9)	3 (4.7)	64
計	510 (46.4)	168 (15.5)	59 (5.4)	56 (5.1)	140 (12.7)	165 (15.0)	1,098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洞長의 選出方法 (性別)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불응답	計
남	324 (50.2)	129 (20)	38 (5.9)	29 (4.5)	38 (5.9)	87 (13.5)	645
녀	181 (40.7)	36 (8.1)	21 (4.7)	27 (6.1)	102 (23)	77 (17.3)	444
不明	5 (55.6)	3 (33.3)	—	—	—	1 (11.1)	9
計	510 (46.4)	168 (15.3)	59 (5.4)	56 (5.1)	140 (12.7)	165 (15.0)	1,098

洞長의 選出方法 (學歷別)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불응답	計
무학	24 (19.4)	5 (4.0)	1 (0.8)	8 (6.5)	43 (34.6)	43 (34.6)	124
한글해득정도	39 (27.7)	19 (13.5)	5 (3.5)	7 (4.9)	43 (30.4)	28 (20)	141
서당	14 (46.6)	7 (23.3)	—	2 (6.7)	3 (10)	4 (13.3)	30
국민교중퇴 및 졸업	152 (45.9)	51 (15.4)	13 (3.9)	15 (4.5)	40 (12.1)	60 (18.1)	331
중학교중퇴 및 졸업	84 (59.1)	22 (15.5)	10 (7.0)	10 (7.0)	3 (2.1)	13 (9.2)	142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98 (59)	30 (18.0)	12 (7.2)	7 (4.2)	7 (4.2)	12 (7.2)	166
대학교중퇴 및 졸업	84 (60.8)	27 (19.5)	17 (12.3)	6 (4.3)	1 (0.7)	3 (2.2)	138
그 이상	4 (50)	3 (37.5)	1 (12.5)	—	—	—	8
기타	11 (61.0)	4 (22.2)	—	1 (5.6)	—	2 (11.1)	18
計	510 (46.4)	168 (15.3)	59 (5.4)	56 (5.1)	140 (12.7)	165 (15.0)	1,098

洞長의 選出方法 (地域別)

	우리가 투표	정부에서 명	지방의회 에서선출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불응답	計
청송	35 (35)	25 (25)	5 (5)	4 (4)	30 (30)	1 (1)	100
금능	31 (29.6)	11 (10.5)	1 (0.9)	4 (3.7)	6 (5.5)	52 (49.5)	105
천안	48 (44.0)	7 (6.4)	8 (7.3)	5 (4.6)	10 (9.1)	31 (28.4)	109
평창	43 (38.0)	22 (19.4)	2 (1.8)	6 (5.3)	23 (20.3)	17 (15.0)	113
인천	70 (60.8)	15 (13.0)	11 (9.6)	11 (9.6)	8 (7.0)	—	115

資 料

부 산	79 (67.5)	21 (17.9)	6 (5.1)	3 (2.6)	8 (6.8)	—	117
광 주	52 (48.6)	22 (20.5)	9 (8.4)	9 (8.4)	12 (1.2)	3 (2.8)	107
여 천	54 (47.7)	16 (14.1)	3 (2.6)	5 (4.4)	35 (30.9)	—	113
무 주	34 (30.1)	8 (7.1)	5 (4.4)	3 (2.7)	5 (4.4)	58 (51.3)	113
서 울	64 (60.4)	21 (19.8)	9 (8.5)	6 (5.7)	3 (2.8)	3 (2.8)	106
計	510 (46.4)	168 (15.3)	59 (5.4)	56 (5.1)	140 (12.7)	165 (15.0)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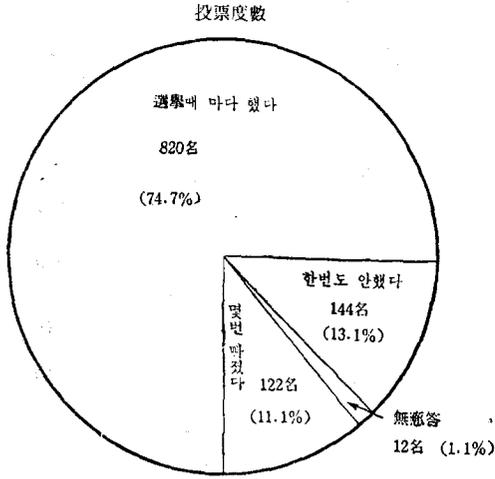
圖表 2에 表示된 것은 洞長의 選出方法을 個別的으로 調査한 것인데 그 結果를 설명하여 본다면 優先 民選制를 支持하는 사람이 1,098名中 510名인 46.6%에 該當하며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및 「무응답」을 全部 合하여 無關心한 態度로 나타난것이 356名인 32.9%로 둘째를 占하고 다음에 任命制가 198名인 15.3%와 間選制인 地方議會에서 選出하는 것을 支持하는 사람은 不過 59名으로 5.4%뿐이다. 이와같은 結果는 全體적으로 市長選出方法과 別로 다른바 없으나 이는 어느 執行機關이고 自己가 選出한 者가 行政機關의 長이 되는 것이 當然하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事實은 한편 自治意識의 一面을 表現하는 意義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自體가 곧 自治意識을 表現하는 全部가 아님을 特히 注意해둘 必要가 있다. 選舉度數가 높은것이 반드시 民主政治에 對한 認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自己가 選出한 者가 行政機關의 長이 되어야한다고 生覺하는 사람의 比率이 높다고 하여 그것이 곧 自治意識에 높은 水準을 表示하는 것이라고 樂觀하여서는 안되며 여기에는 이같은 結果를 만든 諸原因을 究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應答의 對象別로 살펴보면 優先 職業別에 있어서 勞動者가 66.6%로 가장 民選制를 支持하고 있으며 主婦와 商業人이 各各 60%, 61%로 高率로 亦是 民選制를 願하고 있으며 反對로 學生이 特히 高率로 任命制를 支持하는 것은 注目을 끌고 있다.

學歷別로 보면 民選制에 있어서 無學者가 19.4%이고 大學校卒業者가 60.8%로 엄청난 差異를 보이고 있으며 學歷에 正比例함을 圖表 2에서 곧 알 수 있다. 任命制의 경우에는 學歷에 따라 別로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눈에 띈다. 地域別로는 仁川, 釜山, 光州 및 서울 등의 都市가 他處보다 훨씬 民選制를 主張하고 있으며 釜山은 全體의 67.5%로 第一높고 다음에 仁川, 서울, 光州의 順序로 되어 있다. 年齡別로 보면 21歲以上の 選舉有權者만을 考察하여 본결과 民選制는 年齡에 反比例하고 있음은 이 亦是 다른 機關의 選出方法과 同一하다.

끝으로 性別에 있어서는 民選制와 任命制 共히 男子가 女子보다 약간의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음을 表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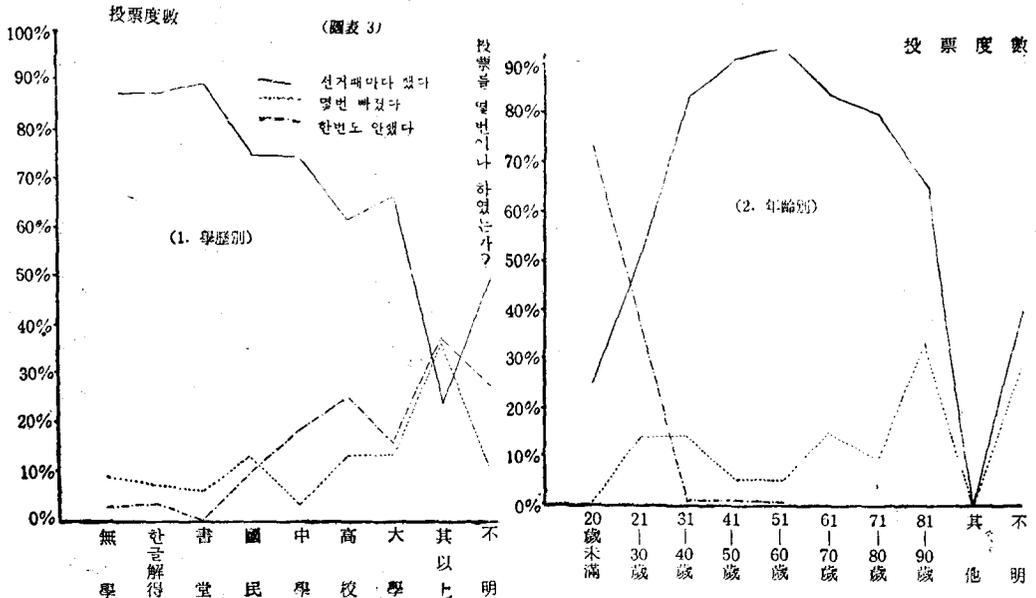
三. 投票



自治意識이 地方自治와 民主主義의 存立의 基礎가 된다는 것은 確實하나 그 實態를 正確하게 把握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意識이란 原來 哲學, 心理學等 精神科學에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음으로 統計學的으로 具體的인 數字에 依하여 測定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問題이다.

따라서 傍證的으로 自治政에 對한 關心度나 知識度等を 參考로 檢討 分析할 수 밖에 다른 方法이 없다. 더구나 社會調查에 있어서 그 正確한 度數를 찾기란 더욱 힘든 일이며 調查自體가 動的要素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正確한 值를 求함에는 格別한 注意와 技術이 必要하다.

먼저 投票에 對한 選舉民의 態도를 살펴보면 于先「선거때마다 投票를 했다」는 사람이 820名으로 總應答者의 75%나 되며 「몇번 빠졌다」는 사람이 122名으로 11.1%에 不過한 것으로 보아 投票熱은 普通 以上임을 알수있다. 「한번도 안했다」는 사람은 144名으로 13.1%을 차지하나 이는 應答者中 54名이 選舉權을 갖고 있지 않은 點으로보아 그리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資 料

投票를 여러번 했는가? (年齡別)

	선거때마다 했다	몇번짜졌 다	한번도안 했다	N. R	計
20 歲 미 만	14 (25.9)	—	40 (74.1)	—	54
21 ~ 30	170 (53.9)	46 (14.6)	96 (30.5)	3 (1.0)	315
31 ~ 40	270 (83.8)	47 (14.6)	2 (0.6)	3 (0.9)	322
41 ~ 50	209 (91.6)	15 (6.6)	2 (0.9)	2 (0.9)	228
51 ~ 60	110 (94.8)	6 (5.2)	—	—	116
61 ~ 70	33 (84.6)	6 (15.4)	—	—	39
71 ~ 80	8 (80)	1 (10)	—	1 (10)	10
81 ~	2 (66.7)	1 (33.3)	—	—	3
不 明	4 (40)	—	3 (30)	3 (30)	10
其 他	—	—	1	—	1
計	820 (74.7)	122 (11.1)	144 (13.1)	12 (1.1)	1,098

投票를 여러번 했는가? (學歷別)

	선거때마다 했다	몇번짜졌 다	한번도안 했다	N. R	計
무 학	108 (87.1)	12 (9.7)	4 (3.2)	—	124
한 글 해 득	123 (87.2)	11 (7.8)	6 (4.3)	1 (0.7)	141
서 당	27 (89.9)	2 (6.7)	—	1 (3.4)	30
국 민 교	250 (75.5)	44 (13.3)	34 (10.2)	3 (0.9)	331
중 학	107 (75.4)	6 (4.2)	27 (19.0)	2 (1.3)	142
교 교	102 (61.4)	22 (13.3)	42 (25.3)	—	166
대 학	92 (66.7)	20 (14.5)	23 (16.7)	3 (2.1)	138
그 이 상	2 (25.0)	3 (37.5)	3 (37.5)	—	8
不 明	9 (50.0)	2 (11.1)	5 (27.8)	2 (11.1)	18
計	820 (74.7)	122 (11.1)	144 (13.1)	12 (1.1)	1,098

이를 學歷別로 보면 每番投票을 한사람은 無學者나 겨우 한글을 解得할 程度의 者가 各各 87.1%와 87.2%로 學歷이 낮을수록 많고 한번 빠졌거나 몇번 빠진者는 學歷이 높을수록 많은데 大學校卒業 以上の 者가 현저하게 높은 比率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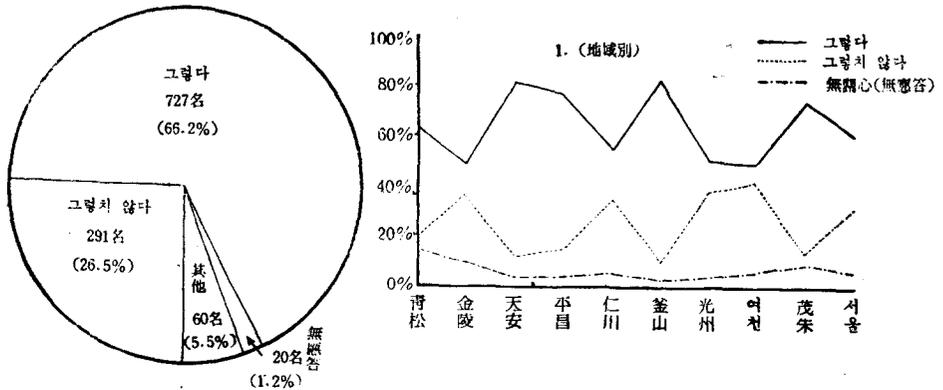
即 投票度數는 學歷에 反比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投票率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自治意識을 反證할 수 없음을 意味하는듯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結果는 自治意識의 強度로 解釋하기 보다는 選舉自體에 對한 必要性的의 差異에서 오는 結果라고 봄이 妥當하지 않을까 思料된다. 即 學歷이 낮을수록 具體的 事實에 對하여 認識이 不足하므로 選舉를 하게되면 어떤 自己가 期待하고 있는 것이 곧 實現되는 것같이 莫然히 依支하고 期待하는 힘이 強한데서 오는상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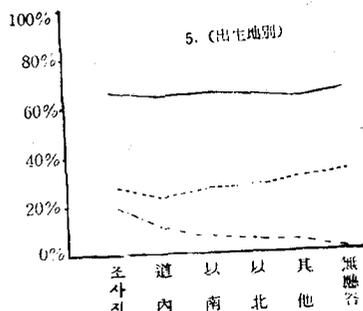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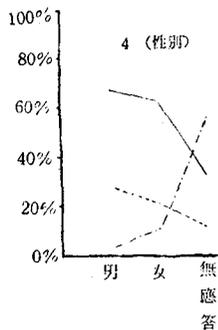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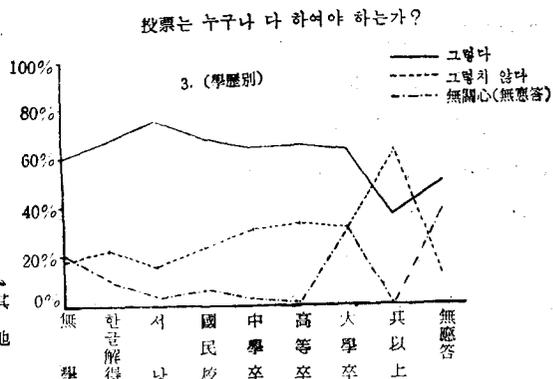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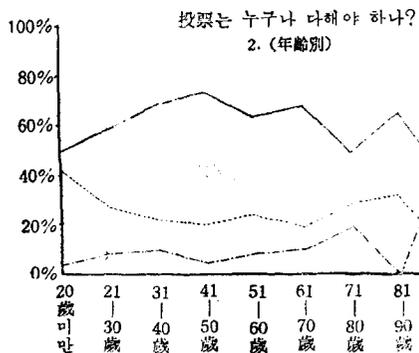
또한 投票度數에 對하여 年齡別로 考察하여 보면 年齡에 따라 投票度數가 增加하여 가는 것은 事實이나 特히 注目을 끄는 것은 40歲부터 60歲까지는 93%가 選舉때마다 投票를 한다는 것이며 21歲부터 30歲까지의 青年層이 81歲 以上인 老人層에 比해 低率에 있다는 것이다. 勿論 이와 같은 低率에 놓여 있는 것은 他原因의 介入에 依하는 點도 있으나 青年層이 選舉때 投票하는 것에 對하여 無關心하다는 것을 傍證하는 것에 지나지 못한다. 이것은 大學 以上の 學歷을 갖인者가 選舉때 投票를 한번도 안하였다는 事實로도 알 수 있다.

圖表 4에서 投票에 對한 有權者로서의 認識을 살펴보기로 하자. 優先「投票는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가?」라는 質疑表에서 「投票는 누구나 다하여야 한다」고 하는 者의 數가 全體 1,098名中 727名으로서 66.2%로 投票度數에서 언제나 「投票한다」라는 者의 比率 74.7% 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即 이와 같은 事實은 「投票는 누구나 해야한다」라는 一種의 認識 혹은 知識度와 實際로 投票를 한다 라는 問題와는 別個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投票는 누구나 해야 한다」라고 正確히 알고 있으나 그 自體가 곧 投票를 한다는 것과는 다른것이기 때문이다.

(圖表 4) 投票는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가?





投票는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가? (學歷別)

		그렇지 않다	그렇다	기 타	N. R	計
무	학	23 (18.5)	76 (61.3)	21 (16.9)	4 (3.2)	124
한	글	31 (22.0)	96 (68.1)	13 (9.2)	1 (0.7)	141
서	당	5 (16.7)	24 (76.9)	—	1 (3.4)	30
국	민	81 (24.5)	227 (68.6)	21 (6.3)	2 (0.6)	331
중	학	45 (31.7)	93 (65.5)	1 (0.7)	3 (2.1)	142
고	교	53 (33.7)	109 (65.6)	1 (0.6)	—	166
대	학	43 (31.2)	90 (62.2)	3 (21.7)	2 (7.2)	138
그	이	5 (62.5)	3 (37.5)	—	—	8
N.	R	2 (11.1)	9 (5.0)	— (38.9)	7	18
計		291 (26.5)	727 (66.2)	60 (5.5)	20 (0.2)	1,098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投票는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가? (年齡別)

	그렇지 않다	그렇다	기 타	N. R	計
20 歲 미 단	23 (42.5)	28 (51.8)	2 (3.7)	1 (1.8)	54
21 ~ 30	99 (28.9)	190 (60.3)	19 (6.6)	7 (2.2)	315
31 ~ 40	77 (23.9)	226 (70.2)	17 (5.3)	2 (6.2)	322
41 ~ 50	48 (21.0)	169 (74.1)	10 (4.4)	1 (0.4)	228
51 ~ 60	31 (26.7)	75 (64.7)	8 (6.9)	2 (1.7)	116
61 ~ 70	8 (20.5)	27 (69.2)	3 (7.7)	1 (2.6)	39
71 ~ 80	3 (30)	5 (50)	1 (10)	1 (10)	10
81 ~	1 (33.3)	2 (66.7)	—	—	3
不 明	1 (10)	4 (40)	—	5 (50)	10
其 他	—	1 (100)	—	—	1
計	291 (26.5)	727 (66.2)	60 (5.5)	20 (0.2)	1,098

投票는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가? (性別)

	그렇지 않다	그렇다	기 타	N. R	計
남	184 (28.5)	441 (68.4)	11 (1.7)	9 (1.3)	645
녀	106 (23.9)	283 (63.7)	49 (11.0)	6 (1.4)	444
N. R	1 (11.1)	3 (33.3)	—	5 (55.6)	9
計	291 (26.5)	727 (66.2)	60 (5.5)	20 (0.2)	1,098

投票는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가? (地域別)

	그렇지 않다	그렇다	기 타	N. R	計
青 松	21 (21)	64 (64)	14 (14)	1 (1)	100
金 陵	40 (38.1)	54 (51.4)	8 (7.6)	3 (2.9)	105
天 安	15 (13.7)	90 (82.6)	2 (1.8)	2 (1.8)	109
平 昌	19 (16.8)	89 (78.7)	4 (3.5)	1 (0.8)	113
仁 川	42 (36.5)	65 (56.5)	8 (6.9)	—	115

		資 料				
釜 山	13 (11.1)	99 (83.8)	3 (2.6)	2 (1.7)	117	
光 州	42 (39.2)	59 (55.1)	1 (0.9)	5 (4.7)	107	
여 淸	49 (43.3)	56 (49.5)	6 (5.3)	2 (1.7)	113	
茂 朱	16 (14.2)	85 (75.2)	12 (10.6)	—	113	
서 울	34 (32.1)	66 (62.3)	2 (1.9)	4 (3.8)	106	
計	291 (26.5)	727 (66.2)	60 (5.5)	20 (0.2)	1,098	

投票는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가? (出生地別)

		그렇지 않 다	그렇다	기 타	N. R	計
조 사 지	146 (27.9)	347 (66.5)	21 (4.0)	8 (15.3)	522	
도 내	81 (23.7)	224 (65.7)	29 (8.5)	7 (2.1)	341	
이 남	38 (26.2)	97 (66.9)	5 (3.4)	5 (3.4)	145	
이 북	19 (27.9)	45 (66.2)	4 (5.9)	—	68	
其 他	6 (31.6)	12 (63.2)	1 (5.2)	—	19	
N. R	1 (33.3)	2 (66.4)	—	—	3	
計	291 (26.5)	727 (66.2)	60 (5.5)	20 (0.2)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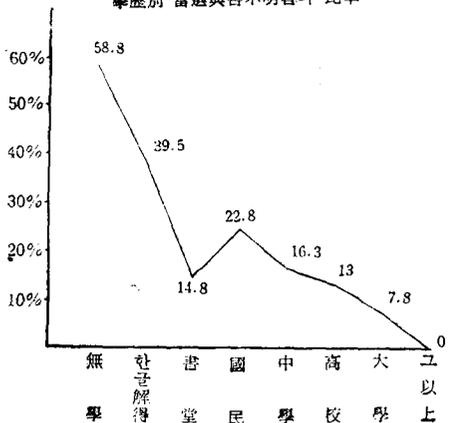
圖表 4와 以上の 資料에서 學歷別로 볼때 「投票는 누구나 다하여야 한다」는 生覺은 學歷에 反比例하고 「그렇지않다」라고 하는 生覺이 따라서 學歷에 比例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卽 學歷이 높을수록 「投票는 다하여야 한다」는 思想이 稀薄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過去의 選舉制度에 있어서 投票가 自發的인 主權者로서의 意思表示보다는 義務行爲로서 強要되었기에 이에 對한 識者層의 反撥인 듯하다. 圖表 4에서 地域別로 보면 都會地일수록 僻地에 比해서 그런 傾向이 더욱 濃厚함은 더 한층 그 反證이 되는듯 하다. 卽 서울의 境遇는 「누구나 다 投票할 必要가 있는것은 아니다」는 答이 32.1%이고 仁川은 36.5%, 光州가 39.2% 等인데 對하여 靑松은 21%이고 平昌은 16.8%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그 傾向을 찾기 힘드나. 投票度數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投票는 누구나 다하여야 하는가」라는 設問에도 40歲부터 50歲까지의 年齡層이 亦是 으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出生地別에 있어서는 顯격한 傾向이 들어나 있지 않아 具體的인 설명을 加할 수 없으나 資料에서 보는 바와 같이 出生地와는 相關關係가 거이 없다고 하여도 좋겠다.

끝으로 性別에 있어서는 男女가 거의 同數이며 다만 「投票는 누구나 다하여야 한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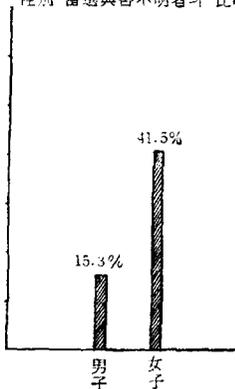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하는 思想이 「그렇지 않다」라는 生覺에 二倍強인 數字를 나타내고 있음이 하나의 뚜렷한 事實로 되어 있다.

學歷別 當選與否不明者의 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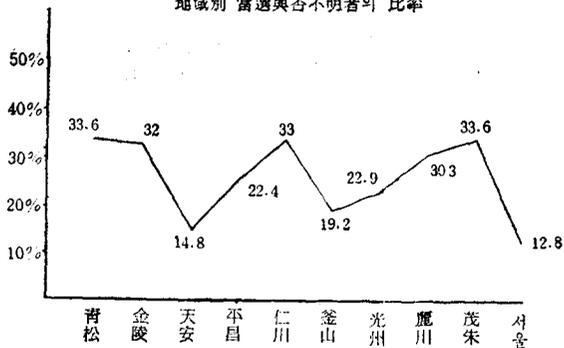
性別 當選與否不明者의 比率



投票한 사람이 自己가 投票한 者의 當選如否를 알고 있는가에 關하여 調査하였던바 그 結果는 옆의 圖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卽 이를 各應答內容別로 살펴보면 優先 學歷別에 있어서 當選如否를 모르고 있는 者는 學歷에 反比例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無學인 경우 58.8%가 自己가 投票한 사람의 當落을 全然모르고 있는 것이며 大學을 거친 그 以上の 學歷을 갖인 者는 겨우 7.8%에 불과하다.

地域別 當選與否不明者의 比率



여기에서 한가지 意味 있는 事實은 投票度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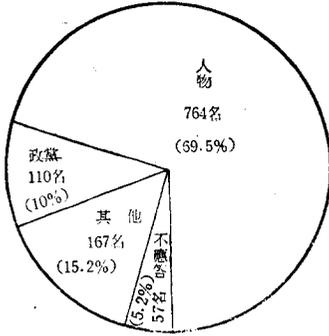
경우와 正反對의 現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投票度數인 경우 學歷에 反比例함으로써 學歷이 낮을수록 投票度數는 높는데 自己가 投票한 者의 當選여부를 모르고 있다는 事實은 選舉를 단지 義務視한 結果에 지나지 않으며 投票度數와 그의 當選여부와는 二律背反의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投票度數가 높다고 하여 곧 그것이 自治意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속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 性別인 경우에 있어서는 女子가 自己가 投票한 者의 當選如否를 41.5%나 모르고 있는데 對하여 男子는 겨우 15.3%로 이 亦是 選舉全般에 걸친 關心度는 男子가 훨씬 높다는 것을 表示하는 것이며 地域別로 보면 仁川을 除外하고는 亦是 都會地보다 僻地 사람들이 더욱 當選如否를 모르고 있으며 靑松과 茂朱 같은 곳은 當選如否不明者의 比率이 各各 36% 強인 水準까지 오르고 있다.

이같은 未熟한 政治意識은 그들이 投票한 立候補者의 當選如否에 對하여 無關心한 態度로 나타나고 있으며 僻地가 普通 25%나 된다는 點에서도 都會地와 僻地사이에 自治意識 및 政治意思表示의 差異가 현저함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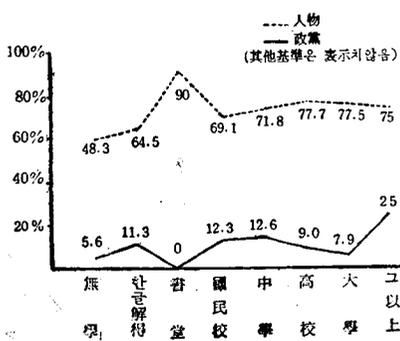
(圖表 5)

무엇을 보고 投票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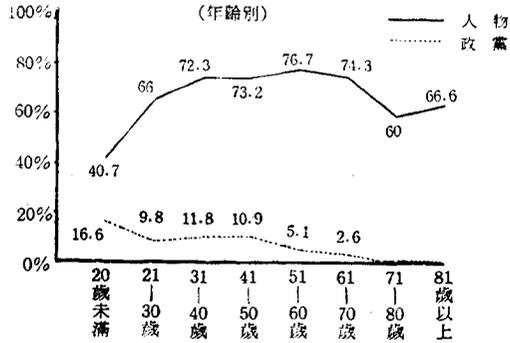


다음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는가」에 對하여서는 不過 10%인 110名이 政黨을 보고 投票를 한다하였고 圖表 5에서 分明히 볼 수 있는바와 같이 人物을 보고 投票한다는 사람은 764名인 69.5%에 該當하고 있는 事實은 特히 우리들의 注目을 끌게하는 事實이며 이는 一面이나마 아직 政黨政治가 未發達狀態에 있음을 表示하여 주고 있는 것이며 亦是 能率을 重要視하는 人物本位에 國民들의 全體 思想이 흐르고 있음을 傍證하고 있다.

무엇을 보고 投票하나? (學歷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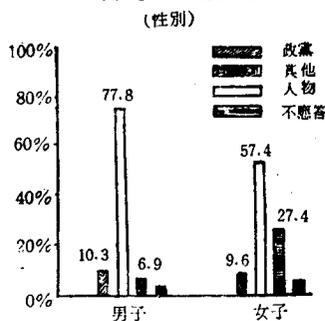


무엇을 보고 投票하나? (年齡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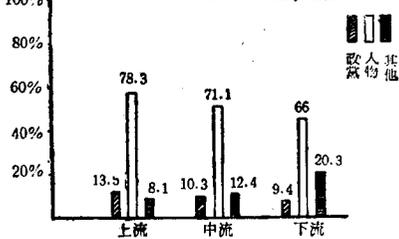


※ 其他, 不應答分의 表示는 除外함

무엇을 보고 投票하나? (性別)



무엇을 보고 投票하나? (生活程度別)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십니까? (學歷別)

學歷	소속정당	입후보자 개인인물	기타	불응답	計
무					
학	7 (5.6)	60 (48.3)	54 (43.5)	3 (2.4)	124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한글해독	16 (11.3)	91 (64.5)	31 (21.9)	3 (2.1)	141
서당	—	27 (90)	2 (6.6)	1 (3.3)	30
국민교	41 (12.3)	229 (69.1)	44 (13.2)	17 (5.1)	331
중학교	18 (12.6)	102 (71.8)	13 (9.1)	9 (6.3)	142
고등학교	15 (9.0)	129 (77.7)	11 (6.6)	11 (6.6)	166
대학교	11 (7.9)	107 (77.5)	10 (7.2)	10 (7.2)	138
그이상	2 (25)	6 (75)	—	—	8
기타	—	13 (72)	2 (11.1)	3 (16.6)	18
計	110 (10)	764 (69.5)	167 (15.2)	57 (5.2)	1098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십니까? (年齡別)

	소속정당 보	입후보자 개인인물	기타	불응답	計
20세 미만	9 (16.6)	22 (40.7)	7 (12.9)	16 (29.7)	54
21 ~ 30	31 (9.8)	208 (66)	47 (14.9)	29 (9.2)	315
31 ~ 40	38 (11.8)	233 (72.3)	46 (14.2)	5 (0.9)	322
41 ~ 50	25 (10.9)	167 (73.2)	34 (11.9)	2 (0.8)	228
51 ~ 60	6 (5.1)	89 (76.7)	19 (16.3)	2 (1.7)	116
61 ~ 70	1 (2.6)	29 (74.3)	9 (23)	—	39
71 ~ 80	—	6 (60)	3 (30)	1 (10)	10
81 ~ 90	—	2 (66.6)	1 (33.3)	—	3
不明	—	8 (80)	—	2 (20)	10
기타	—	—	1 (100)	—	1
計	110 (10)	764 (69.5)	167 (15.2)	57 (5.2)	1,098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십니까? (生活程度別)

	소속정당 보	입후보자 개인인물	기타	불응답	計
상	5 (13.5)	29 (78.3)	3 (8.1)	—	37
중	63 (10.3)	434 (71.1)	76 (12.4)	37 (6.0)	610

資 料

하	41	286	88	18	433
	(9.4)	(66)	(20.3)	(4.2)	
기	1	15	—	2	18
	(5.5)	(83.3)		(11)	
計	110	764	167	57	1098
	(10)	(69.5)	(15.2)	(5.2)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십니까? (性別)

	소속정당 보 고	입후보자 개인인물	기 타	불응답	計
남	67	502	45	31	645
	(10.3)	(77.8)	(6.9)	(4.8)	
녀	43	255	122	24	444
	(9.6)	(57.4)	(27.4)	(5.4)	
무	—	7	—	2	9
		(77.7)		(22.2)	
計	110	764	167	57	1098
	(10)	(69.5)	(15.2)	(5.2)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십니까? (出生地別)

	소속정당 보 고	입후보자 개인인물	기 타	불응답	計
조 사 지	55	371	73	23	522
	(10.5)	(71)	(13.9)	(4.4)	
도 내	32	227	60	22	341
	(9.3)	(66.5)	(17.5)	(6.4)	
이 남	14	103	19	9	145
	(9.6)	71	(13.1)	(6.2)	
이 북	6	51	10	1	68
	(8.8)	(7.5)	(14.7)	(1.6)	
기 타	3	11	4	1	19
	(15.7)	(57)	(21)	(5.2)	
무	—	1	1	1	3
		(33.3)	(33.3)	(33.3)	
計	110	764	167	57	1,098
	(10)	(69.5)	(15.2)	(5.2)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십니까? (地域別)

	소속정당 보 고	입후보자 개인인물	기 타	불응답	計
청 송	11	58	23	8	100
	(11)	(58)	(23)	(8)	
금 능	19	66	13	7	105
	(18.1)	(62.8)	(12.4)	(6.7)	
천 안	13	77	16	3	109
	(11.9)	(70.6)	(14.7)	(2.8)	
평 창	7	86	18	2	113
	(6.2)	(76.0)	(16.0)	(1.8)	
인 천	9	71	32	3	115
	(7.8)	(61.7)	(27.8)	(2.6)	
부 산	16	88	8	5	117
	(13.7)	(75.2)	(6.8)	(4.3)	
광 주	13	72	9	13	107
	(12.1)	(67.2)	(8.4)	(12.1)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여	천	5 (4.4)	76 (67.2)	28 (24.8)	4 (3.5)	113
무	주	10 (8.8)	85 (75.1)	16 (14.1)	2 (1.8)	113
서	울	7 (6.6)	85 (80.2)	4 (3.8)	10 (9.4)	106
計		110 (10.0)	764 (69.5)	167 (15.2)	57 (5.2)	1,098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십니까? (職業別)

		소속정당 보 고	입후보자 개인인물	기 타	불응답	計
농	업	47 (11.5)	285 (70)	59 (14.4)	16 (3.9)	407
주	부	2 (20)	6 (60)	1 (10)	1 (10)	10
상	업	9 (7.0)	100 (78.0)	16 (12.5)	3 (2.3)	128
씨	비 스	10 (14)	51 (72.7)	9 (12.6)	1 (1.4)	71
공	무 원	7 (11.9)	46 (78.0)	3 (5.0)	3 (5.0)	59
학	생	7 (13.7)	30 (58)	3 (5.8)	11 (21.5)	51
노	동	2 (16.6)	4 (33.3)	3 (25.0)	3 (25.0)	12
무		25 (8.5)	185 (62.5)	69 (23.3)	17 (5.7)	296
기	타	1 (1.5)	57 (89)	4 (6.2)	2 (3.0)	64
計		110 (10)	764 (69.5)	167 (15.2)	57 (5.2)	1098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십니까? (宗教別)

		소속정당 보 고	입후보자 개인인물	기 타	불응답	計
무		66 (9.3)	490 (69.2)	119 (16.8)	33 (4.7)	708
불	교	17 (12.3)	99 (71.7)	16 (11.5)	6 (4.3)	138
기	독 교	12 (10.4)	81 (70.4)	14 (12.1)	8 (6.9)	115
천	주 교	5 (11.1)	32 (71.1)	6 (13.3)	2 (4.4)	45
유	교	6 (10)	44 (73)	5 (8.3)	5 (8.3)	60
천	도 교	1 (100)	—	—	—	1
기	타	3 (16.6)	7 (38.8)	7 (38.8)	1 (5.5)	18
무	응 답	—	11 (85)	—	2 (15)	13
計		110 (10)	764 (69.5)	167 (15.2)	57 (5.2)	1098

政黨을 보고 投票하는 態度를 優先學歷別부터 考察하여 보면 無學이 5.6%인데 反하여 大學卒業 以上者가 25%로 學歷에 正比例하여 높아감을 알 수 있으며 生活程度別 亦是 圖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正比例하여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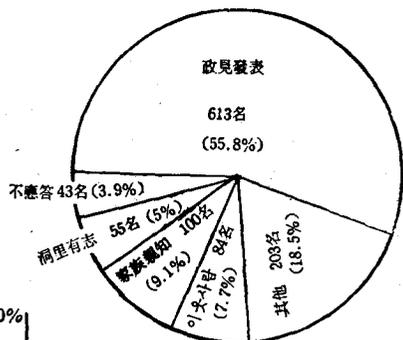
한편 政黨을 보고 投票하는 態度는 年齡에 反比例하고 있으며 60歲以上の 有權者의 態度는 거의 政黨을 無視하고 있는 形便이다. 20歲인 者가 16.6%인데 對하여 60歲以上인 者의 그것은 不過 2.6%인 것으로 能히 알 수 있다.

끝으로 性別에 있어서는 政黨을 보고 投票하는 態度는 女性보다는 男性이 약간 많다. 以上の 諸事實은 唯一한 政治力의 結果 또는 그 表現이어야 할 政黨에 對한 國民들의 信賴度가 形便 없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는 從來부터의 因襲인 政黨에 依한 支配와 政黨以外者의 依한 支配를 同等하게 보고 結果에 있어 能率的으로 좋은 政治만 하여주면 된다는 思考方式의 一表現이라 하겠다. 卽 國民은 能力있는 사람을 選舉當時 投票의 基準으로 하며 또 投票의 目的이 能力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意識이 強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國民의 政治教育의 未熟함과 아울러 政黨自體의 未發達과 더 나아가서는 能力있는 人物의 결여——卽 政黨으로서 責任있는 政府를 組織한 經驗이 짧고 國民의 信賴를 얻어 그 政治的 思惟를 支配함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行政能力이 있는 人物이 흔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政黨이나 人物本位나가 論議되는 것 自體부터가 政治意識의 低位性을 意味하는 것이기는 하나 投票의 基準을 人物本位에 둔다는 것은 政治自體에 對한 若干의 關心을 表示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勿論 政治現象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더 나아가서는 政黨政治의 具體的 事項에 對한 識見을 갖인후에 人物本位の 投票가 實施된다면 政治하는 사람을 分析하여 그 結果 現狀에 가장 適合한 人物을 選出한다는 것은 高度로 發達된 한 政治意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過去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政治的인 후퇴를 면치 못한 큰 原因中에 하나는 大統領責任制나? 內閣責任制나? 하는 卽 制度上的 문제가 아니라 누가 政治를 하였느냐 하는 政治行動者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極端的으로 表現해 본다면 制度 自體도 政治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政治狀況의 認識은 政治하는 人間의 分析이 반드시 隨伴해야 된다고 믿는다. 우리나라의 政治歷史를 보아도 政治하는 사람이 달라짐에 따라 政治行動의 현격한 變化를 가지고 온것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그러나 本調査에 나타난 人物本位の 數가 壓倒的으로 높게 나타난것은 政治意識이 完全이 갖은 先進國과 같은 高次的이며 善意的 解釋을 하기에 는 너무나 어려우며 다만 政黨政治의 未發達과 더불어 政黨에 對한 有權者의 期待가 減少함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또 本調査에서는 政黨 人物以外的 理由로 投票함은 質疑表內容의 形便上 5%에 不過하나 實際問題로 同情投票가 選舉를 左右한 經驗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人物本位란 投票基準이 政治的 關心의 表示임은 人物의 判斷을 政見發表를 통해서 한다는 應答者의 數가 613名으로서 55.8%에 達하고 있다는 點에서 充分히 이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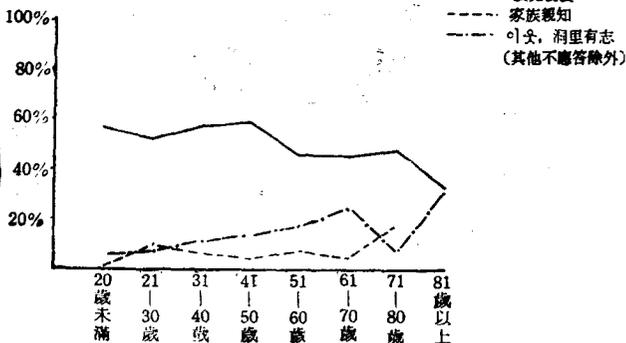
四. 人物의 判斷

(圖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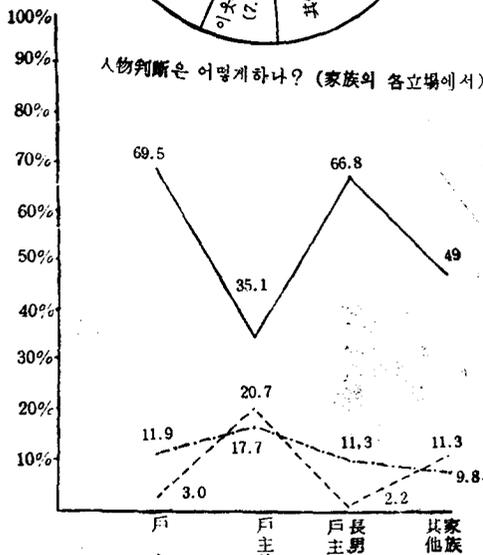
人物의 判斷은 어떻게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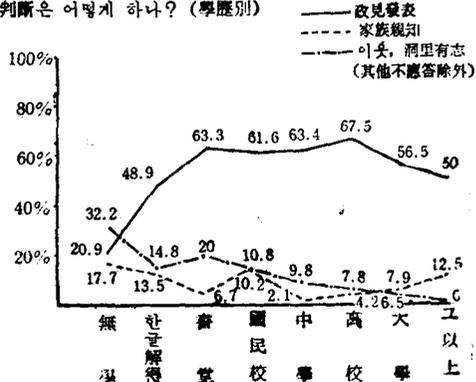
人物의 判斷은 어떻게 하나? (年齡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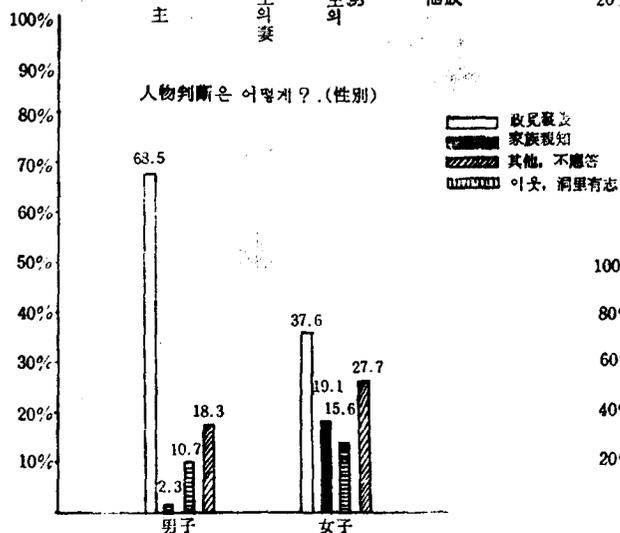
人物判斷은 어떻게 하나? (家族의 各立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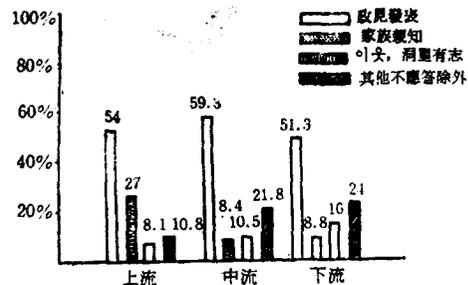
人物의 判斷은 어떻게 하나? (學歷別)



人物判斷은 어떻게 하나? (性別)



人物判斷은 어떻게 하나? (生活程度別)



資 料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나? (年齡別)

	동내유지의견참자	이웃사람말참자	가족친척의견참자	정견발표·포스타신·문·라·티·오	기타	불응답	計
20세미만	4 (7.4)	—	1 (1.9)	31 (57.4)	6 (11.1)	12 (22.2)	54
21 ~ 30	17 (5.4)	11 (3.5)	36 (11.4)	170 (53.9)	60 (19.0)	21 (6.7)	315
31 ~ 40	12 (3.7)	27 (8.4)	30 (9.3)	189 (58.6)	61 (18.9)	3 (0.9)	322
41 ~ 50	13 (5.7)	21 (9.2)	17 (7.4)	138 (60.4)	36 (15.7)	3 (1.3)	228
51 ~ 60	5 (4.3)	17 (14.7)	11 (9.5)	55 (47.4)	28 (24.1)	—	116
61 ~ 70	4 (10.2)	6 (15.4)	3 (7.7)	18 (46.2)	7 (17.9)	1 (2.6)	39
71 ~ 80	—	1 (10)	2 (20)	5 (50)	1 (10)	1 (10)	10
81 ~	—	—	1 (33.3)	1 (33.3)	1 (33.3)	—	3
不明	—	—	—	6 (60)	2 (20)	2 (20)	10
기타	—	—	—	—	1 (100)	—	1
計	55 (5.0)	84 (7.7)	100 (9.1)	613 (55.8)	203 (18.5)	43 (3.9)	1,098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나? (職業別)

	동내유지의견참자	이웃사람말참자	가족친척의견참자	정견발표·포스타신·문	기타	불응답	計
농업	23 (5.6)	40 (9.8)	24 (5.9)	240 (58.8)	70 (17.2)	10 (0.2)	407
주부	1 (10)	—	4 (40)	5 (50)	—	—	10
상업	9 (7.0)	5 (3.9)	5 (3.9)	79 (61.8)	26 (20.3)	4 (3.0)	128
서비스	4 (5.6)	7 (9.8)	2 (2.8)	45 (63.0)	12 (16.8)	1 (1.4)	71
공무원	1 (1.7)	—	3 (5.6)	41 (69.1)	12 (20.2)	—	59
학생	2 (3.9)	1 (2.0)	2 (3.9)	32 (62.7)	6 (11.8)	8 (15.7)	51
노동	—	3 (25)	—	5 (41.6)	2 (16.7)	2 (16.7)	12
無	13 (4.4)	26 (8.8)	55 (18.5)	127 (42.1)	62 (20.9)	13 (4.4)	296
기타	2 (3.1)	2 (3.1)	5 (7.8)	39 (6.8)	13 (20.3)	3 (4.7)	64
計	55 (5.0)	84 (7.7)	100 (9.1)	613 (55.8)	203 (18.5)	43 (3.9)	1,098

地方自治意識에 관한 實態報告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나? (學歷別)

	동내유지 의말참작	이웃사람 말 참작	가족친척 말 참작	정견발표·라 디오·포스타	기타	불응답	計
무 학	8 (6.5)	32 (25.8)	22 (17.7)	26 (20.9)	35 (28.2)	1 (0.8)	124
한글해득	7 (4.9)	14 (9.9)	19 (13.5)	69 (48.9)	30 (21.3)	2 (1.4)	141
서당	1 (3.3)	5 (16.7)	2 (6.7)	19 (63.3)	2 (6.7)	1 (3.3)	30
국민교	15 (4.5)	21 (6.3)	34 (10.2)	204 (61.6)	45 (13.6)	12 (3.6)	331
중학교	8 (5.6)	6 (4.2)	2 (2.1)	90 (63.4)	26 (18.3)	9 (6.3)	142
고등학교	10 (6.0)	3 (1.8)	7 (4.2)	112 (67.5)	26 (15.7)	8 (4.8)	166
대학교	6 (4.3)	3 (2.2)	11 (7.9)	78 (56.5)	32 (23.2)	8 (5.8)	138
그이상	—	—	1 (12.5)	4 (50.0)	3 (37.5)	—	8
기타	—	—	1	11	4	2	18
計	55 (5.0)	84 (7.7)	100 (9.1)	613 (55.8)	203 (18.5)	43 (3.9)	1,098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나? (宗教別)

	동내유지 의견참작	이웃사람 말 참작	가족친척 의견참작	정견발표·라 디오·포스타	기타	불응답	計
무	31	64	60	399	130	24	708
불교	14	8	19	70	22	5	138
기독교	6	4	10	68	20	7	115
천주교	1	4	5	21	12	2	45
유교	3	3	4	40	8	2	60
천도교	—	—	—	1	—	—	1
기타	—	1	2	7	7	1	18
무응답	—	—	—	7	4	2	13
計	55 (5.0)	84 (7.7)	100 (9.1)	613 (55.8)	203 (18.5)	43 (3.9)	1,098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나? (性別)

	동내유지 의견참작	이웃사람 말 참작	가족친척 의견참작	정견발표·라 디오·신 문	기타	불응답	計
남	32 (5.0)	37 (5.7)	15 (2.3)	442 (68.5)	99 (15.3)	20 (3.1)	645
녀	23 (5.2)	46 (10.4)	85 (19.1)	167 (37.6)	102 (23.0)	21 (4.7)	444
무응답	—	1 (11.2)	—	4 (44.4)	2 (22.2)	2 (22.2)	9
計	55 (5.0)	84 (7.7)	100 (9.1)	613 (55.8)	203 (18.5)	43 (3.9)	1,098

資 料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나 (家族의 各立場에서)

	동내유지 의견참자	이웃사람 말 참자	가족친척 의견참자	정견발표·포스타 신 문·라디오	기타	불응답	計
호 주	12 (3.6)	28 (8.3)	10 (3.0)	234 (69.5)	49 (14.6)	3 (0.9)	336
호 주의 처	17 (6.4)	30 (11.3)	55 (20.7)	93 (25.1)	65 (24.5)	5 (1.9)	265
호주의장남	17 (7.4)	9 (3.9)	5 (2.2)	154 (66.8)	32 (13.9)	13 (5.7)	230
기 타	9 (3.4)	17 (6.4)	30 (11.3)	130 (49.0)	57 (21.5)	22 (8.3)	265
무 응 답	—	—	—	2 (100)	—	—	2
計	55 (5.0)	84 (7.6)	100 (9.1)	613 (55.8)	203 (18.5)	43 (3.9)	1,098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나? (生活程度別)

	동내유지 말 참자	이웃사람 말 참자	가족친척 의견참자	정견발표·라디오 포 스타·신 문	기타	불응답	計
上	1 (2.7)	2 (5.4)	10 (27)	20 (54)	4 (10.8)	—	37
中	34 (5.6)	30 (4.9)	51 (8.4)	362 (59.3)	105 (17.2)	28 (4.6)	610
下	19 (4.4)	50 (11.5)	38 (8.8)	222 (51.3)	91 (21)	13 (3)	433
기 타	1 (5.6)	2 (11.0)	1 (5.6)	9 (50.4)	3 (16.5)	2 (11.0)	18
計	55 (5.0)	84 (7.7)	100 (9.1)	613 (55.8)	203 (18.5)	43 (3.9)	1,098

人物의 判斷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設問에 있어서 圖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見發表를 듣고 人物判斷을 하는 傾向은 學力에 比例하고 年齡에 反比例하는 듯 하고 生活程度別로 보면 中流의 生活程度를 누리는 層이 59.3%로 가장 많은것 같다. 그러나 女性은 家族親知로부터 많은 影響을 받고 있는데 이는 戶主나 戶主의 長男中 그 影響을 받는다는 者가 3% 未滿인데 對해서 戶主의 妻가 20% 其他家族이 11.3%나 影響을 받는다는 點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家族制度의 面貌를 말하여주고 있으며 婦女者參政이 어떻게 反映되었는가를 잘 표시하여 주고 있을뿐더러 더 나가서는 婦女者들이 比較的 教育水準이 낮은點으로 보아서 政治參與라든가 自治意識이 教育과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間接的으로 잘 表現하여 주고 있다. 價値基準을 自己스스로 세우지 못하고 親知라든가 이웃사람들의 輿論에 따르는 傾向이 生活程度와 學歷이 낮을수록 높은 率을 보여주고 있으며 都會地보다 僻地가 훨씬 높고 職業別로부터 보면 公務員이 7.3%로 第一 적고 主婦가 50%로 首位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도 곧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看過하여서는 아니될 事實은 비록 人物本位란 基準이 政治的인 無關心을 全的으로 示顯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人物」을 決定하는 動機가 「家族親知」나,

「이웃 또는 洞里有志」들에 依하여 影響을 줄때 이들은 大體로 緣政關係나 利害關係에 左右된다는 點이다. 이렇게 政治現象에 있어서 政治外的條件의 支配는 投票時에 浮動票를 마련하는 것이나 農村의 浮動票는 地域社會內的 地緣의 強制力으로 因하여 不可避하게 政治外的으로 固定함에 浮動票 가아닌 不動票로 됨으로서 選舉戰의 樣相에 커다란 影響을 주고 있다는 點이다.

여기에서 必然的으로 研究에 對象이 되는 것이 行政區域의 調節 및 選舉區의 擴大等인 것이다. 정말로 人物을 本位로 한다면 한 마을에서 有名한 사람보다는 選舉區를 擴大시켜 그 속에서 더 能力 있는 人物을 選出하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 아닐까, 이는 浮動票가 不動票로 되는 것을 어느程度 防止할 수 있으며 또한 利害關係에서 投票하는 有權者의 心理를 多少 움직일 수 있는 效果를 가지고 올것이다. 卽 「이왕 ××가 當選안될바에는 그 能力있는 사람에게나 投票하여 주자」라고 心理上의 變化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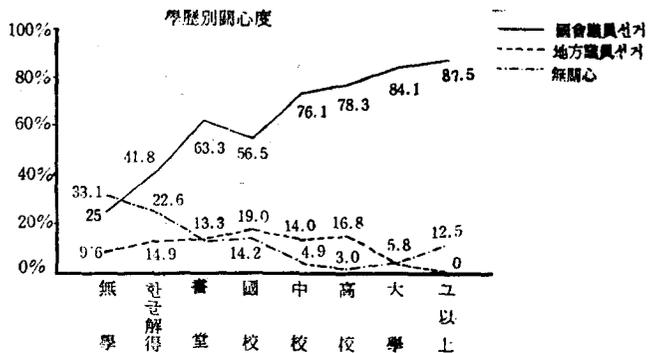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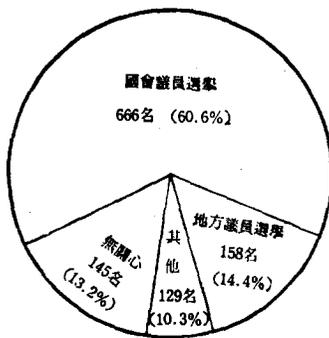
五. 選舉에 對한 關心度

自治意識을 自治政에 對하여 지니는 住民의 政治意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一般政治意識을 土臺로하여 存立함은 確實하나 單純한 一般政治意識만으로서는 이를 判斷할 수 없음도 또한 確實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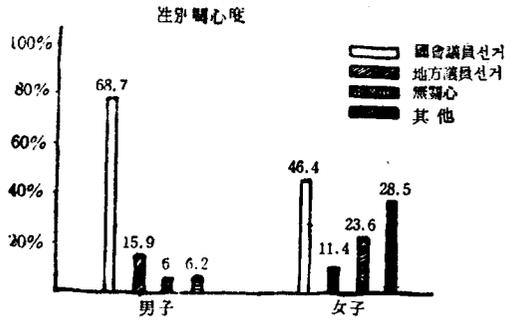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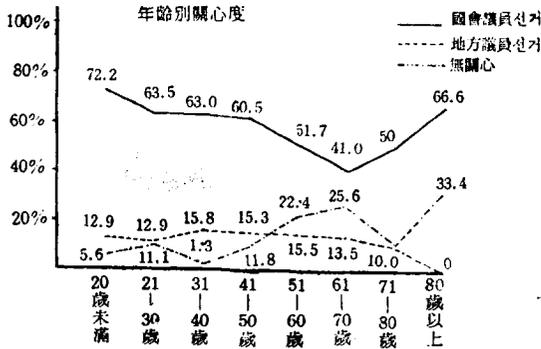
自治政의 特性에서 政治意識의 影響을 받고 때로는 一般政治意識과 다른 形態로 存立할 수도 있고 또한 全國的으로 表現되고 判斷되는 政治意識과는 相反되는 境遇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地方自治의 存立理由가 強調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政治意識의 高度가 政治에 對한 關心度를 土臺로 하고 있는 것처럼 自治意識의 高度도 또한 自治政에 對한 關心度가 그 土臺로 되고 있는 까닭에 于先 一般國政에 對한 一般政治意識의 問題와 比較하면서 住民의 自治意識을 살펴보고 그 特性을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따라서 이곳에서는 自治意識의 測定方法으로서 選舉에 對한 關心度를 分析하여 봄으로 自治意識의 程度를 究明하여 보자.

(圖表 7)

中央選舉와 地方選舉에 對한 關心度



資 料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議員選舉에 對한 關心度比較 (地域別)

지역	지방의원	국회의원	무관심	기 타	N. R	計
청 송	15 (15)	43 (43)	34 (34)	7 (7)	1 (1)	100
금 능	30 (28.5)	46 (43.8)	22 (20.9)	4 (3.8)	3 (2.8)	105
천 안	12 (11.0)	70 (64.2)	11 (10.1)	15 (13.7)	1 (0.9)	109
평 창	5 (4.4)	81 (71.6)	5 (4.4)	21 (18.6)	1 (0.8)	113
인 천	12 (10.4)	79 (68.7)	18 (15.7)	6 (5.2)	—	115
부 산	15 (12.8)	77 (65.8)	19 (16.2)	4 (3.4)	2 (1.7)	117
광 주	19 (18.0)	68 (63.5)	9 (8.4)	7 (6.5)	4 (3.7)	107
여 천	24 (21.2)	38 (33.6)	17 (15.0)	32 (28.3)	2 (1.7)	113
무 주	22 (19.4)	74 (65.4)	5 (4.4)	12 (10.6)	—	113
서 울	4 (3.7)	90 (84.9)	5 (4.7)	3 (2.8)	4 (3.7)	106
計	158 (14.4)	666 (60.6)	145 (13.2)	111 (10.1)	18 (0.2)	1,098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議員選舉에 對한 關心度比較 (年齡別)

年齡	지방의원	국회의원	무관심	기 타	N. R	計
20歲未滿	7 (12.9)	39 (72.2)	3 (5.6)	3 (5.6)	2 (3.7)	54
21 ~ 30	40 (12.7)	200 (63.5)	35 (11.1)	36 (11.4)	4 (1.3)	315
31 ~ 40	51 (15.8)	203 (63.0)	42 (1.3)	25 (0.7)	1 (0.3)	322
41 ~ 50	35 (15.3)	138 (60.5)	27 (11.8)	24 (10.5)	4 (1.7)	228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51	~	60	18 (15.5)	60 (51.7)	26 (22.4)	12 (10.3)	—	116
61	~	70	5 (13.5)	16 (41.0)	10 (25.6)	7 (17.9)	1 (2.6)	39
71	~	80	1 (10)	5 (50)	1 (10)	2 (20)	1 (10)	10
81	~		—	2 (66.6)	1 (33.4)	—	—	3
不	明		1 (10)	3 (30)	—	1 (10)	5 (50)	10
其	他		—	—	—	1	—	1
	計		158 (14.4)	666 (60.6)	145 (13.2)	111 (10.1)	18 (0.2)	1,098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議員選舉에 對한 關心度比較 (性別)

	지방의원	국회의원	무관심	기 타	N. R	計	
남	106 (15.9)	458 (68.7)	40 (6)	33 (5)	8 (1.2)	645	
녀	51 (11.4)	206 (46.4)	105 (23.6)	77 (17.3)	5 (11.2)	444	
N. R	1 (11.1)	2 (22.2)	—	1 (11.1)	5 (5.5)	9	
	計	158 (14.4)	666 (60.6)	145 (13.2)	111 (10.1)	18 (0.2)	1,098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議員選舉에 對한 關心度比較 (學歷別)

	지방의원	국회의원	무관심	기 타	N. R	計	
무	12 (9.6)	31 (25.0)	41 (33.1)	39 (31.4)	1 (0.8)	124	
한	21 (14.9)	59 (41.8)	32 (22.6)	29 (20.6)	—	141	
서	4 (13.3)	19 (63.3)	4 (13.3)	2 (6.6)	1 (3.3)	30	
국	63 (19.0)	187 (56.5)	47 (14.2)	27 (8.1)	7 (0.2)	331	
중	20 (14.0)	108 (76.1)	7 (4.9)	5 (3.5)	2 (1.4)	142	
고	28 (16.8)	130 (78.3)	5 (3.0)	3 (1.8)	—	166	
대	8 (5.8)	116 (84.1)	8 (5.8)	5 (3.6)	1 (0.7)	138	
그	—	7 (87.5)	1 (12.5)	—	—	8	
N. R	2 (11.1)	9 (49.5)	—	1 (5.6)	6 (33.3)	18	
	計	158 (14.4)	666 (60.6)	145 (13.2)	111 (10.1)	18 (0.2)	1,098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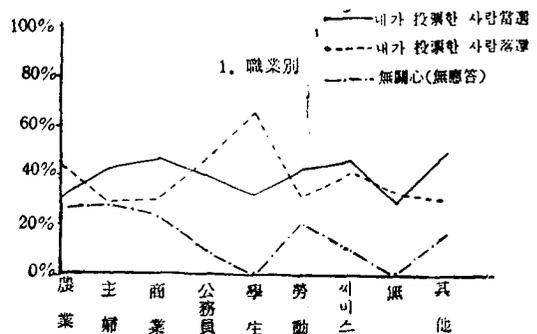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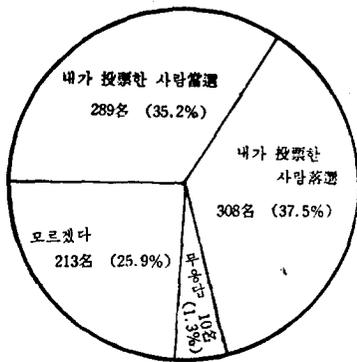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議員選舉에 對한 關度心比較 (出生地別)

	지방의원	국회의원	무관심	기 타	N. R	計
조 사 지	96 (18.4)	303 (58.0)	62 (11.8)	52 (9.9)	9 (1.7)	522
도 내	33 (9.7)	209 (61.3)	50 (14.7)	45 (13.2)	4 (1.2)	341
이 남	18 (12.4)	91 (62.8)	22 (15.2)	10 (6.9)	4 (2.8)	145
이 북	7 (10.3)	49 (72.0)	3 (11.7)	8 (4.4)	1 (1.5)	68
其 他	4 (21.1)	11 (57.9)	3 (15.8)	1 (5.3)	—	19
N. R	—	3 (100)	—	—	—	3
計	158 (14.4)	666 (60.6)	145 (13.2)	111 (10.1)	18 (0.2)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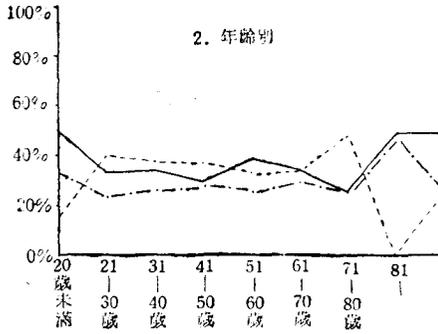
먼저 選舉에 對한 關心度를 中央과 地方의 境遇로 나누워 比較하여 보면 먼저 無關心度에 있어서 圖表 7에서 보는 바와같이 男子에 比하여 女子가 教育水準이 높은 者보다는 낮은 者일수록 젊은이 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程度가 높아감을 알 수 있는데 中央選舉는 地方選舉보다 4倍程度의 強한 比率로 더 많은 關心事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勿論 이와같은 結果에 대하여는 「신문」, 「포스타」, 그리고 「방송」등의 매스콤의 效果를 包含시켜 比較하여 보는 것이 必要하다. 圖表 7에 나타난 數値를 보면 卽 全體의 61%가 되는 666名이 國會議員 選舉에 보다 많은 關心을 두었다고 하였고 地方選舉에 더 많은 關心을 가졌다는 者는 14% 程度인 158名에 不過하다. 이러한 國政第一主義傾向은 議會의 必要性 乃至는 有益性에 對한 調査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中央選舉와 地方選舉에 對한 關心度에 있어서 한가지 附記할 것은 그 關心度가 學歷에 比例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하였지만 大學校以上の 學歷을 가진者가 85%나 되는 數가 보다 더 中央選舉에 關心度를 표시함으로써 中央議會卽 國會의 政治 行動에 對한 關心의 集中度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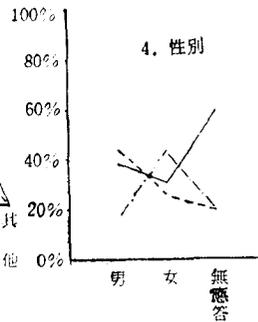
(圖表 15) 國會議員選舉에 投票한 사람의 當選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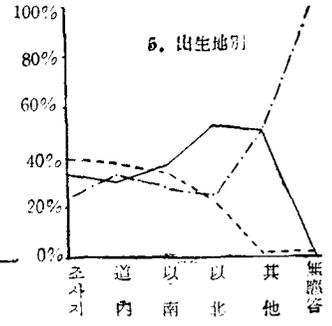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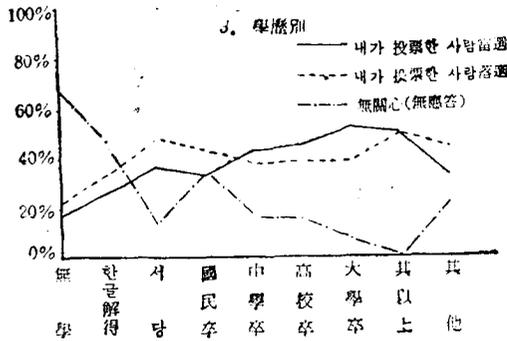
國會議員選舉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與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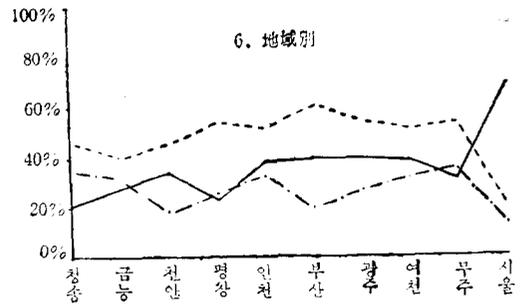
4. 性別



5. 出生地別



3. 學歷別



6. 地域別

國會議員選舉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與否 (職業別)

		내가투표한 사람	안되었다	모르겠다	무응답	計
농	업	101 (30.3)	142 (42.6)	88 (26.4)	2 (0.6)	333
주	부	3 (42.8)	2 (28.5)	1 (14.2)	1 (14.2)	7
상	업	48 (46.1)	30 (28.8)	26 (25)	—	104
씨	비 스	23 (46)	21 (42)	6 (12)	—	50
공	무 원	17 (40.4)	20 (47.6)	3 (7.1)	2 (4.7)	42
학	생	3 (33.3)	6 (66.6)	—	—	9
노	동	4 (44.4)	3 (33.3)	2 (22.2)	—	9
無		68 (30.7)	70 (31.5)	80 (36)	4 (1.8)	222
기	타	22 (50)	14 (31.8)	7 (15.9)	1 (2.2)	44
計		289 (35.2)	308 (37.5)	213 (25.9)	10 (1.3)	820

資 料

國會議員選舉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與否 (年齡別)

	내가투표 한 사람	안되었다	모르겠다	무응답	計
20 세 미 만	3 (50)	1 (16.6)	1 (16.6)	1 (16.6)	6
21 ~ 30	63 (35.3)	72 (40.4)	40 (22.4)	3 (1.6)	178
31 ~ 40	97 (35.9)	102 (37.7)	68 (25.1)	3 (1.1)	270
41 ~ 50	66 (31.5)	79 (37.7)	61 (29.1)	3 (1.4)	209
51 ~ 60	43 (39.4)	37 (33.9)	29 (26.6)	—	109
61 ~ 70	12 (35.2)	12 (35.2)	10 (29.4)	—	34
71 ~ 80	2 (25)	4 (50)	2 (25)	—	8
81 ~	1 (50)	—	1 (50)	—	2
不 明	2 (50)	1 (25)	1 (25)	—	4
기 타	—	—	—	—	—
計	289 (35.2)	308 (37.5)	213 (25.9)	10 (1.3)	820

國會議員選舉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與否 (生活地別)

	내가투표 한 사람	안되었다	모르겠다	무응답	計
조 사 지	139 (34.9)	162 (40.7)	91 (22.8)	6 (1.5)	398
도 내	79 (31.2)	96 (37.9)	76 (30)	2 (0.7)	253
이 남	43 (37.7)	39 (34.2)	31 (27.1)	1 (0.8)	114
이 북	25 (52)	11 (22.9)	11 (22.9)	1 (0.8)	48
기 타	3 (50)	—	3 (50)	—	6
무 응 답	—	—	1 (100)	—	1
計	289 (35.2)	308 (37.5)	213 (25.9)	10 (1.3)	820

國會議員選舉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與否 (性別)

	내가투표 한 사람	안되었다	모르겠다	무응답	計
남	186 (38.5)	217 (44.9)	74 (15.3)	6 (1.2)	483
녀	100 (30.1)	90 (27.1)	138 (41.5)	4 (1.2)	332
무 응 답	3 (60)	1 (20)	1 (20)	—	5
計	289 (35.2)	308 (37.5)	213 (25.9)	10 (1.3)	820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國會議員選舉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與否 (學歷別)

	내가투표 한 사람	안되었다	모르겠다	불응답	計
무 학	19 (17.7)	24 (22.4)	63 (58.8)	1 (9.3)	107
한 글 배 득	33 (26.6)	41 (33.0)	49 (39.5)	1 (8.1)	124
서 당	10 (37.0)	13 (48.2)	4 (14.8)	—	27
국 민 학 교	82 (32.8)	108 (43.2)	57 (22.8)	3 (12.0)	250
중 학 교	45 (43.3)	40 (38.5)	17 (16.3)	2 (1.9)	109
고 등 학 교	47 (44.7)	41 (39.0)	14 (13.0)	3 (2.9)	105
대 학 교	48 (53.2)	35 (38.9)	7 (7.8)	—	90
그 이 상	2 (50)	2 (50)	—	—	4
기 타	3 (33.3)	4 (44.4)	2 (22.2)	—	9
計	289 (35.2)	308 (37.5)	213 (25.9)	10 (1.3)	820

國會議員選舉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與否 (地域別)

	내가투표 한 사람	안되었다	모르겠다	무응답	計
청 송	15 (19.5)	35 (45.2)	26 (33.6)	1 (1.4)	77
금 능	22 (27.1)	33 (40.6)	28 (32.0)	—	61
천 안	28 (34.5)	38 (46.8)	12 (14.8)	3 (3.7)	81
평 창	19 (22.4)	46 (54.2)	19 (22.4)	1 (1.0)	85
인 천	34 (37.3)	27 (29.7)	30 (33.0)	—	91
부 산	33 (39.7)	34 (40.9)	16 (19.2)	—	83
광 주	24 (39.3)	21 (34.4)	14 (22.9)	2 (3.2)	61
여 천	38 (38.3)	30 (30.3)	30 (30.3)	1 (1.0)	99
무 주	29 (31.5)	31 (33.6)	31 (33.6)	1 (1.2)	92
서 울	47 (67.1)	13 (18.5)	9 (12.8)	1 (1.4)	70
計	289 (35.2)	308 (37.5)	213 (25.9)	10 (1.3)	820

中央選舉와 地方選舉의 關心度를 調査하여 본 결과 圖表 7에서 이미 지적하였지만 大部分의 有權者가 中央選舉에 보다 關心을 表示함으로서 卽 中央議會인 國會의 政治行動을 다른 어느것 보다도 重要視하는 모습을 發見할수가 있다.

이렇게 關心이 集中된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自己가 投票한 立候補者가 當選되었는가 혹은 落選되었는가 하는 當落의 여부는 勿論 投票한 그 自體가 當落에 어느程度 正確하게 맞았는가에 對한 正確度를 測定하여 同時에 特定人物에 對한 投票의 傾向도 아울러 짐작할수있다.

圖表 15에서 보면 「自己가 投票한 사람의 當選」이 289名으로 全體의 35.2%나 되고 있으며 「自己가 投票한 사람이 落選」되었다는 數는 398名으로 37.5%로 오히려 當選되었다는 數보다 많은것 같이 보이나 立候補者가 단지 二人뿐인 경우는 投票의 當選正確度가 低率이라고 볼 수 있으나 韓國의 選舉史上 一選舉區에 立候補者의 平均數가 5.5이나 된다는 事實에 비추어 볼때 自己가 投票한 立候補가 35.2%나 當選되었다는 事實은 어느程度 當選될 人物이 一人 혹은 二人에 局限됨으로서 當選될 可能度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여서는 안될것은 選舉에 있어 投票數가 이같이 一人에게 集中된다는 事實은 勿論 그 人物의 特殊性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나 制度上으로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되었었다는 事實과 또 다른 諸要素等이 介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거나 「내가 投票한 사람이 落選」되었거나 어떻게든 自己가 投票한 事實에 對하여 그結果에까지 關心을 갖인者가 597名으로 72.7%나 된다는 事實은 다른 어떤 選舉보다도 國會議員選舉에보다 關心을 기우리고 있다는 事實을 傍證하여 주는 것이다.

國會議員선거에 있어서 自己가 投票한 者의 當落여부를 判斷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그 선거 自體가 公正하게 이루어 졌는가 하는 本質의인 問題에까지 接近하여야 됨으로 이곳에서는 資料에 나타난 數值만을 그대로 紹介함에 끝이려한다.

먼저 職業別로 살펴보면 主婦 商業 및 서비스業을 갖인者의 投票率이 가장 當選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學生이 第一 낮음을 알수있는데 이곳에서 學生은 制度上에서 오는 不利點과 그외다른 諸要素의 介入을 不許하고 어느程度 自己判斷에 置中하였음을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다. 이것은 學生의 경우 自己가 投票한 사람이 落選되었다는 事實이 66.6% 나되는 것으로 能히 짐작이간다.

다음 年齡에 있어서는 當選與否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으나 自己가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다는 正確度는 51歲~60歲가 第一높고 反面에 71歲~80歲까지는 落選되었다는 率이 第一높다.

學歷別에 있어서는 「내가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다는 應答은 書堂出身을 包含하여 學歷에 比例하고 그 正確度가 높으며 同時에 落選되었다는 應答者도 學歷에 比例하여 높은 傾向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無應答을 包含한 無關心한 態度를 갖인 者는 亦是 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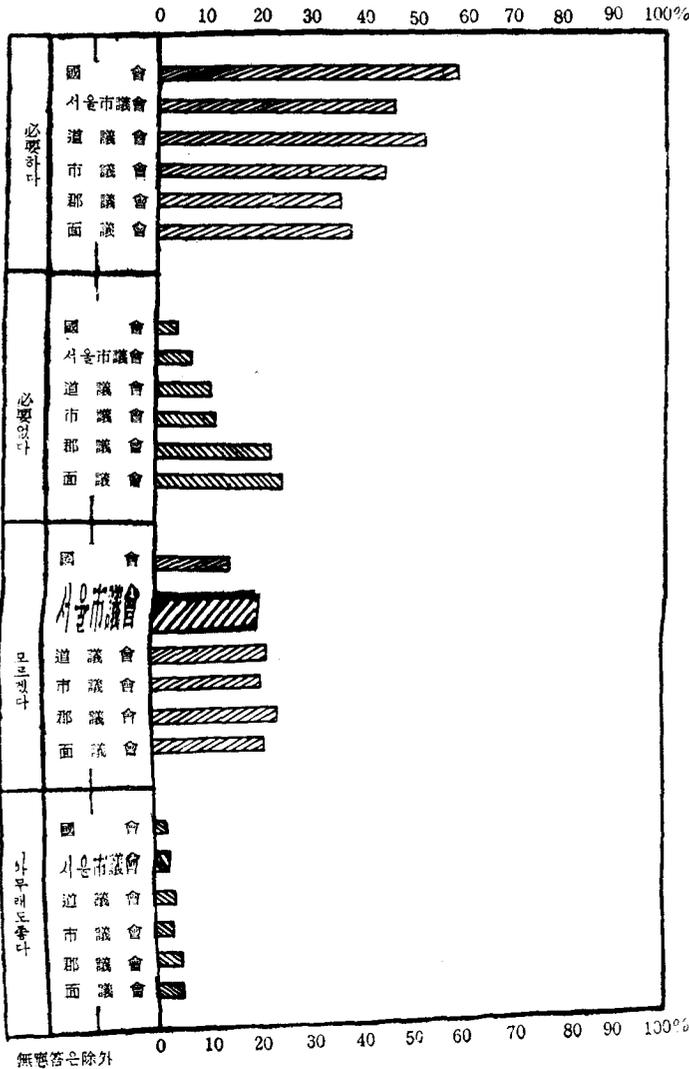
歷에 反比例함을 圖表에서 알 수 있다.

出生地別로 보면 以北出身이 自己가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다는 應答이 52%나 됨으로 가장 높고 無關心한 態度도 亦是 以南사람보다 낮음으로 選舉全般에 對한 關心은 以北出身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地域別로는 別로 뚜렷한 差異와 傾向은 窺보이지 않으나 自己가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다는 것보다 落選되었다는 事實이 어느 地域에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選舉立候補者가 多數人임으로 當然이 歸結되는 事實이다.

以上の 여러 應答內容別로 考察하여 보았으나 내가 投票한 사람의 當選 혹은 落選되었다는

(圖表8) 議會의 必要性에 對한 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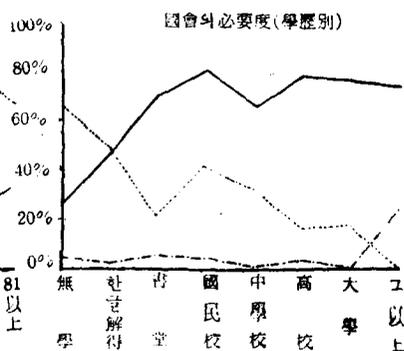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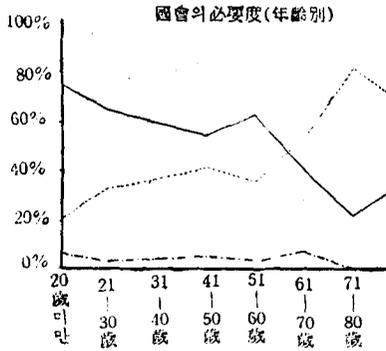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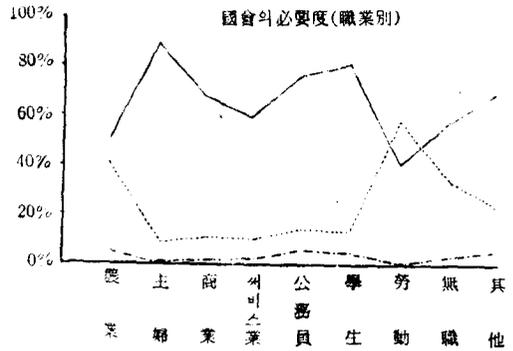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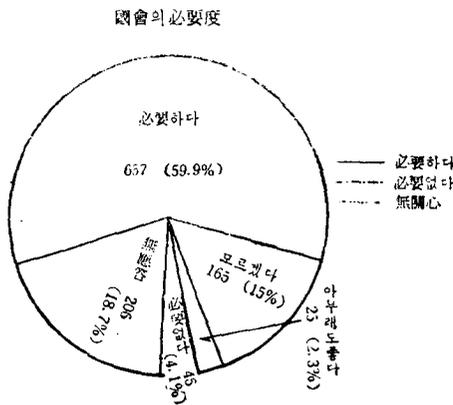
事實보다는 選舉結果에 對하여 알려는 生覺과 無關心한 態度의 相關關係에서 우리가 알려는 보다 根本的인 自治意識을 把握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國會議員선거 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與否조차 알려하지 않은 無關心한 態度는 無應答者를 包含하여 224名으로 27.2%나 된다. 職業別에 있어서 無關心한 態度는 亦是 教育水準이 낮은 農業 主婦 및 勞動者가 높으며 學生이 第一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學歷別에 있어서 無學者가 第一하다는 事實과 一致하고 있다.

五. 議會의 必要度

다음에 議會에 必要성에 對한 態度調査에서 有益한 것으로 支持를 받고 있는 順序는, (1) 國會가 59.8%로 首位를 占하고, (2) 道

資 料

議會가 52.6%, (3) 서울特別市議會가 47.4%, (4) 市議會 45.3%, (5) 邑面議會가 38.4%, (6) 郡議會가 36%로 되어있고 不必要하다고 排斥되고 있는 強度의 順序는, (1) 面議會 25.8%로 首位이고, (2) 郡議會가 23%, (2) 市議會가 12.7%, (4) 道議會가 10.5%, (5) 서울特別市議會가 6.8%, (6) 國會가 4.1%의 順序로 되어있어 住民의 몸가끼에서 行하여지는 政治보다는 먼곳에서 行하여지는 것일수록 또한 議會의 構造가 커갈수록 그 必要性에 對한 關心도가 높음을 表示하고 있다.



國會는 國民에게 有益한가? (年齡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計
20歲미만	40 (74.0)	3 (5.5)	—	4 (7.4)	—	7 (12.9)	54
21 ~ 30	202 (64.0)	12 (3.8)	6 (1.9)	38 (12.0)	4 (1.2)	53 (16.8)	315
31 ~ 40	192 (59.5)	13 (4.0)	8 (2.5)	48 (14.9)	2 (0.6)	59 (18.3)	322
41 ~ 50	127 (55.6)	10 (4.4)	8 (3.5)	33 (14.5)	1 (0.4)	49 (21.5)	228
51 ~ 60	71 (61.2)	4 (3.5)	1 (0.8)	24 (20.7)	1 (0.8)	15 (12.9)	116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61 ~ 70	15 (38.4)	3 (7.7)	2 (5.1)	9 (23.1)	—	10 (25.6)	39
71 ~ 80	2 (20)	—	—	6 (60)	—	2 (20)	10
81 ~	1 (33.3)	—	—	2 (66.7)	—	—	3
不 明	7 (70)	—	—	—	—	3 (30)	10
其 他	—	—	—	1 (100)	—	1	
計	657 (59.8)	45 (4.1)	25 (2.3)	165 (15.0)	8 (0.7)	198 (18.0)	1,098

國會는 國民에게 有益한가? (職業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농 업	212 (51.9)	21 (5.1)	10 (2.5)	69 (16.9)	6 (0.5)	89 (21.8)	407
주 부	9 (90)	—	—	1 (10)	—	—	10
상 업	88 (68.7)	2 (1.6)	—	10 (7.8)	—	28 (21.9)	128
써 비 스	43 (60.2)	2 (2.8)	1 (1.4)	4 (5.6)	1 (1.4)	20 (2.8)	71
공 무 원	46 (77.7)	4 (6.8)	—	—	—	9 (15.2)	59
학 생	41 (80.3)	3 (5.9)	2 (3.9)	1 (1.9)	—	4 (7.9)	51
노 동	5 (41.7)	—	—	3 (25.0)	—	4 (33.3)	12
無	169 (57.0)	9 (3.0)	12 (4.0)	74 (24.9)	1 (0.3)	31 (10.4)	296
기 타	44 (68.6)	4 (6.2)	—	3 (4.7)	—	13 (20.2)	64
計	657 (59.8)	45 (4.1)	25 (2.3)	165 (15.0)	8 (0.7)	198 (18.0)	1,098

國會는 國民에게 有益한가? (學歷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무 학	34 (27.4)	5 (4.0)	5 (4.0)	50 (40.3)	2 (1.6)	28 (21.6)	124
한글해독	65 (46.1)	5 (3.5)	2 (1.4)	45 (31.9)	1 (0.7)	23 (16.3)	141
서 당	21 (70.0)	2 (6.7)	—	5 (16.7)	—	2 (6.6)	30
국민학교	192 (80)	17 (5.1)	10 (3.0)	47 (14.2)	2 (6.0)	63 (19.0)	331
중 학교	94 (66.2)	2 (1.4)	4 (2.8)	9 (6.3)	2 (1.4)	31 (21.8)	142
고등학교	130 (78.3)	7 (4.2)	1 (0.6)	4 (2.4)	1 (0.6)	23 (13.8)	166
대학교	106 (76.7)	5 (3.6)	3 (2.2)	3 (2.2)	—	21 (15.2)	138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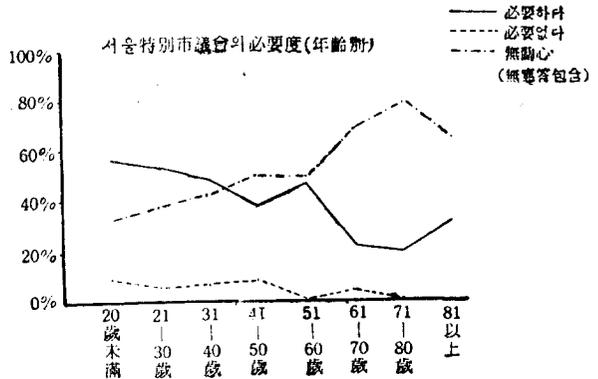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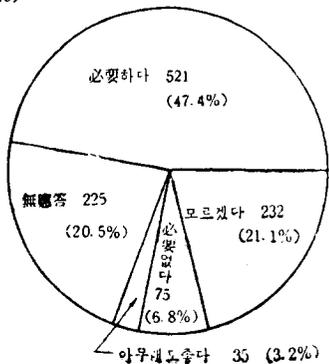
그 이 상	6 (75.0)	2 (25)	—	—	—	—	8
기 타	9 (50.1)	—	—	2	—	7 (38.9)	18
計	657 (59.8)	45 (4.1)	25 (2.3)	165 (15.0)	8 (0.7)	198 (18.0)	1,098

圖表 9에서 國會의 必要度에 對하여 살펴보면 必要하다고 하는 應答에 있어서 無학자가 27.4%, 中學校卒業程度의 學歷을 갖인者가 66.2%이며 大學校以上の 學歷을 갖인者는 75%以上이나 必要하다고 應答한 것으로 보아 學歷에는 比例하고 있는것이 分明하며 「모르겠다」라고 한 應答者가 學歷에 反比例하고 있음은 이를 또한 間接的으로나마 證明하여 주고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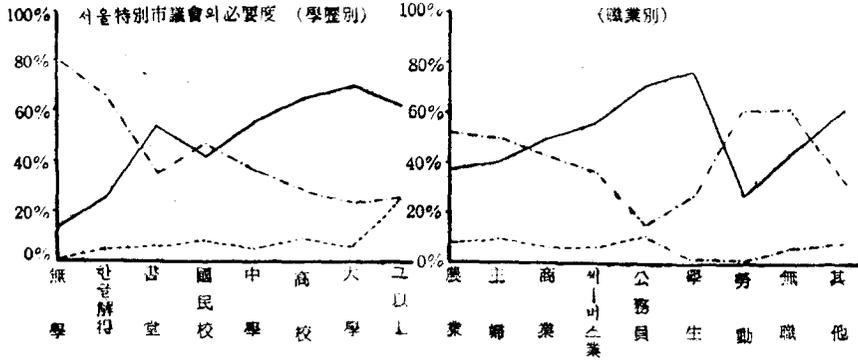
한편 필요하다고 하는 應答에 있어서 年齡에는 反比例하는 傾向이 있으며 따라서 不必要하다고 應答한 者가 年齡에 比例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職業別로 보면 主婦와 學生이 各各 90%와 80.3%로 높은 率로 國會가 必要하다고 하는 높은 思想을 차지하고 있음이 特히 注目되며 勞働者는 國會가 必要한가 必要치 않은가 하는 設問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支持한 便이 41.7%에 比해서 無關心한 態度가 58.3%로 16.6%나 높다는 것은 大部分의 勞働者들은 먹고 살아야한다는 經濟的 問題가 더욱 時急한 解決問題임으로 政治에 對하여 關心을 갖일 마음의 準備가 되어있지 못하며 自然 政治에 對한 關心은 弱한 狀態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過去에 別로 惠擇을 받지 못하였음의 一斷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注目을 끌게 한다. 近代 民主主義政治에 있어 議會의 必要性은 더욱 强調되고 있으며 民主主義와 議會와는 不可分의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 또한 事實이다.

近代國家는 大部分 議會를 通하여 國政이 다스려지고 있으며 따라서 議會 特히 國會는 民主主義를 기르는 學校이며 또 그 議會의 發達이 곧 民主主義 自體의 育成人 것이다. 議會가 必要하다고 하는 認識은 自治意識과 一脈 相通하므로 議會의 必要性에 對한 認識의 增加야 말로 自治政에 對한 높은 水準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보겠으며 圖表 9에서 全體的으로 볼 때 657名인 59.9%나 國會의 必要度를 認識하고 있다는 事實은 自治意識이 깃들 餘地가 充分히 마련되어있는 것이라고보아 多幸한 歸結이라 生覺한다.

(圖表10) 서울特別市議會의 必要度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서울市議會는 市民에게 有益한가? (年齡別)

	그 렇 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기 타	무 응 답	計
20 세 미 단	31 (57.3)	5 (9.3)	— (13.0)	7 (1.8)	1 (18.5)	10	54
21 ~ 30	171 (54.2)	20 (6.3)	13 (4.1)	57 (18.1)	7 (2.2)	47 (15)	315
31 ~ 40	157 (48.7)	25 (8.1)	10 (22.0)	71 (0.3)	1 (18.0)	58	322
41 ~ 50	90 (39.4)	21 (9.2)	10 (4.4)	46 (20.2)	6 (2.6)	55 (24.1)	228
51 ~ 60	55 (47.4)	2 (0.2)	—	30 (25.8)	4 (3.4)	25 (21.6)	116
61 ~ 70	9 (23.0)	2 (5.1)	2 (5.1)	14 (35.8)	1 (2.6)	11 (28.2)	39
71 ~ 80	2 (20)	—	—	5 (50)	—	3 (30)	10
81 ~	1 (33.3)	—	—	—	1 (33.3)	1 (33.4)	3
不 明	5 (50)	—	—	1 (10)	—	4 (40)	10
기 타	—	—	—	1 (10.0)	—	—	1
計	521 (47.4)	75 (6.8)	35 (3.2)	232 (21.1)	21 (1.9)	214 (19.5)	1,098

서울市議會는 市民에게 有益한가? (職業別)

	그 렇 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기 타	무 응 답	計
농 업	158 (38.7)	34 (8.3)	6 (1.5)	107 (26.2)	8 (1.9)	94 (23.0)	407
주 부	4 (40)	1 (10)	3 (30)	1 (10)	—	1 (10)	10
상 업	64 (50)	8 (6.2)	5 (3.9)	13 (10.2)	1 (0.7)	37 (29.0)	128

		資 料					
세 비 스	40 (56.2)	5 (7.0)	2 (2.8)	7 (9.8)	1 (1.4)	16 (22.4)	71
공 무 원	43 (72.6)	7 (11.2)	—	1 (1.7)	1 (1.7)	7 (11.8)	59
학 생	39 (76.4)	1 (2.0)	3 (5.9)	3 (5.9)	1 (1.9)	4 (7.8)	51
노 동	3 (25.0)	—	1 (8.3)	2 (16.7)	—	6 (50)	12
無	130 (43.8)	15 (5.1)	13 (4.4)	94 (31.7)	7 (2.5)	37 (12.2)	296
기 타	40 (62.2)	4 (6.2)	2 (3.1)	4 (6.2)	2 (3.1)	12 (18.7)	64
計	521 (47.4)	75 (6.8)	35 (3.2)	232 (21.1)	21 (1.9)	214 (19.5)	1,098

서울市議는 市民에게 有益한가? (學歷別)

		그 령 다 필요없다	아 무 래 도 좋 다	모 르 겠 다	기 타	무 응 답	計
무 학	21 (16.9)	1 (0.8)	1 (0.8)	59 (47.6)	5 (4.0)	37 (29.8)	124
한 글 해 득	39 (27.6)	8 (5.6)	4 (2.8)	57 (40.4)	4 (2.8)	29 (20.6)	141
서 당	17 (56.6)	2 (6.6)	1 (3.3)	6 (20.0)	—	4 (13.3)	30
국민학교중퇴및졸업	144 (43.5)	27 (8.2)	11 (3.3)	71 (21.4)	7 (2.1)	71 (21.4)	331
중학교중퇴및졸업	81 (57.0)	8 (5.6)	5 (3.5)	14 (9.8)	3 (2.1)	31 (21.8)	142
고등학교중퇴및졸업	108 (65.0)	18 (10.8)	9 (5.4)	11 (6.6)	2 (1.2)	18 (10.8)	166
대학교중퇴및졸업	97 (70.2)	8 (5.8)	3 (2.1)	11 (7.9)	—	19 (13.7)	138
그 이 상	5 (62.5)	2 (25.0)	1 (12.5)	—	—	—	8
기 타	9 (50.0)	1 (5.5)	—	3 (16.7)	—	5 (27.8)	18
計	521 (47.4)	75 (6.8)	35 (3.2)	232 (21.1)	21 (1.9)	214 (19.5)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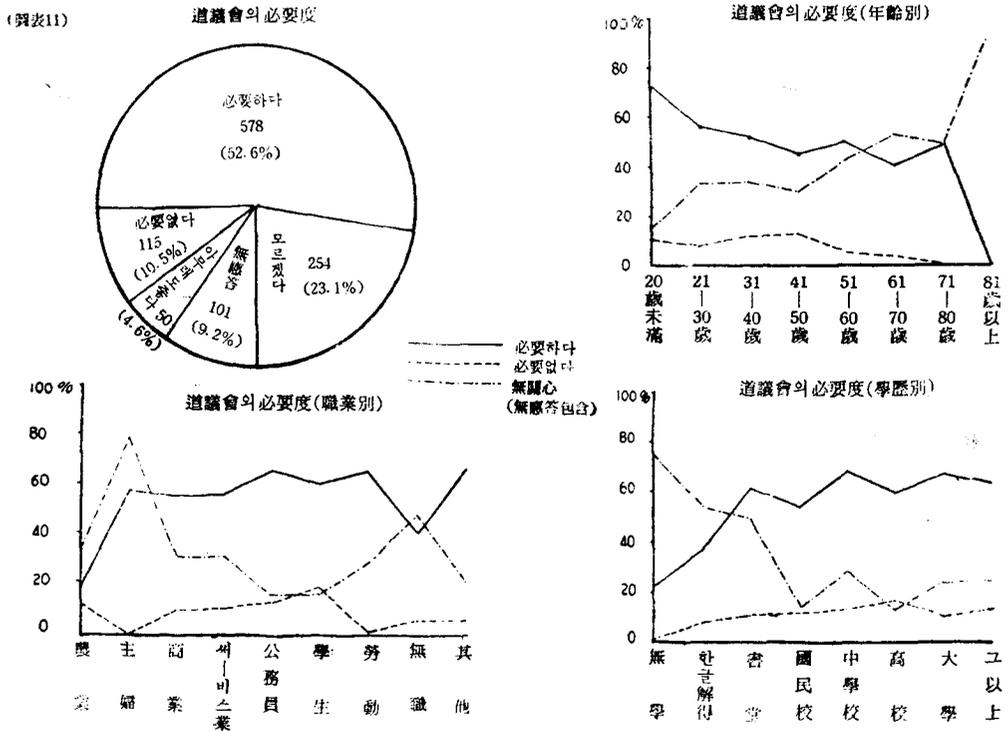
圖表 10에서 서울特別市議會에 關하여 그 必要度を 살펴보면 (1) 必要하다는 見解는 521名(47.4%), (2) 必要없다고 하는 見解는 75名(6.8%), (3) 無關心한 態度는 「모르겠다」가 232名으로 21.1%이고 無應答者가 225名으로 20.5%나 占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좋다는 積極的인 無關心의 35名인 3.2%를 합치면 全體의 44.8%나 됨으로 國會의 必要度보다는 若干 떨어지는 듯 보이나 47% 以上이 서울特別市議會가 必要하다고 느꼈다는 事實만도 큰 失望을 주지는 않는다. 이를 年齡別로 보면 必要하다는 見解는 年齡에 反比例하는 傾向이 있으며 學歷에 있어서는 比例하고 職業에 있어서는 學生이 가장 높게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勞動者는 必要性을 느끼는 度가 相當히 低位에 있음을 圖表에서 보아 알 수 있다.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한편 不必要하다는 見解는 以上에서 指摘한 必要하다는 見解와는 反對로 年齡에는 比例하고 學歷에는 反比例하며 職業에 있어서는 公務員이 不必要성에 對하여 느끼는 度가 가장 작다는 것이 特色이다. 한편 農民이나 勞動者가 議會의 不必要성을 強하게 느끼고 있는것도 注目を 끌게하고 있다.

圖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르겠다」, 「아무래도 좋다」 등을 包含하여 無應答者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事實은 本調査의 地域의 配分上 不可避하게 調査對象者가 地方에 置重할 수 밖에 없었음으로 地方民으로서 서울特別市政에 對한 具體的 事實을 알지못하여 無關心한 態度로 나타난 點도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亦是 必要하다고 하는 見解가 壓倒的으로 多數인을 짐작할 수 있다.

(圖表11)



道議會는 道民에게 有益한가? (學歷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무 학	28 (22.6)	2 (1.6)	3 (2.4)	72 (58.1)	3 (2.4)	16 (13.0)	124
한글해득	52 (36.9)	11 (7.8)	6 (4.3)	57 (40.4)	—	15 (10.6)	141
서 당	18 (60.0)	3 (10)	1 (3.3)	5 (16.7)	—	3 (1.0)	30

資 料

국민학교	182 (55.0)	38 (11.5)	11 (3.3)	74 (22.4)	1 (0.3)	25 (7.6)	331
중학교	91 (64.1)	18 (12.7)	5 (0.4)	17 (12.0)	—	11 (0.8)	142
고등학교	101 (60.8)	25 (15.1)	11 (6.6)	13 (7.8)	1 (0.6)	15 (9.0)	166
대학교	91 (65.9)	15 (10.9)	11 (8.0)	14 (10.1)	—	7 (5.1)	138
그 이상	5 (62.5)	1 (12.5)	2 (25.0)	—	—	—	8
기타	10 (55.5)	2 (11.1)	—	2 (11.1)	—	4 (22.2)	18
計	578 (52.6)	115 (10.5)	50 (4.6)	254 (23.1)	5 (0.4)	96 (8.8)	1,098

道議會는 道民에게 有益한가? (年齡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計
20세 미만	39 (72.2)	6 (11.1)	—	7 (13.0)	—	2 (3.7)	54
21 ~ 30	179 (56.8)	31 (9.8)	14 (4.4)	62 (19.7)	2 (0.6)	27 (8.6)	315
31 ~ 40	169 (52.5)	40 (12.4)	16 (5.0)	74 (23.0)	—	23 (7.1)	322
41 ~ 50	106 (46.5)	29 (12.7)	14 (0.6)	56 (24.6)	1 (0.4)	22	228
51 ~ 60	58 (50.0)	7 (6.0)	3 (2.6)	36 (31.0)	1 (0.9)	11 (9.4)	116
61 ~ 70	16 (41.0)	2 (5.1)	3 (7.7)	11 (28.2)	1 (2.6)	6 (15.4)	39
71 ~ 80	5 (50)	—	—	3 (30)	—	2 (20)	10
81 ~	—	—	—	3 (100)	—	—	3
불명	6 (60)	—	—	1 (10)	—	3 (30)	10
기타	—	—	—	1 (100)	—	—	1
計	578 (52.6)	115 (10.5)	50 (4.6)	254 (23.1)	5 (0.4)	96 (8.8)	1,098

道議會는 道民에게 有益한가? (職業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計
농업	214 (52.4)	50 (12.3)	11 (2.7)	80 (19.6)	2 (0.5)	50 (12.3)	407
주부	2 (20)	—	—	8 (80)	—	—	10
상업	74 (57.8)	13 (10.2)	6 (4.7)	26 (20.3)	—	9 (7.0)	128
서비스	40 (56.3)	8 (11.3)	5 (7.0)	11 (15.5)	1 (1.4)	6 (8.4)	71
공무원	39 (66.1)	9 (15.2)	6 (10.2)	2 (3.4)	—	3 (5.1)	59
학생	32 (62.7)	10 (19.6)	4 (7.8)	4 (7.8)	—	1 (2.0)	51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노 동	8 (66.6)	—	1 (8.4)	3 (22.0)	—	—	12
無	125 (42.2)	20 (6.7)	15 (5.1)	114 (38.4)	2 (0.7)	20 (6.7)	296
기 타	44 (68.6)	5 (7.8)	2 (3.1)	6 (9.4)	—	7 (10.9)	64
計	578 (52.6)	115 (10.5)	50 (4.6)	254 (23.1)	5 (0.4)	96 (8.8)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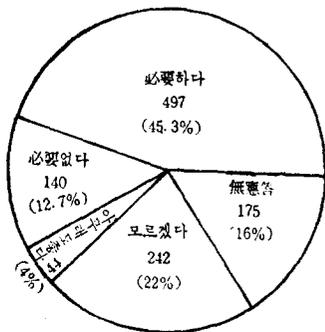
道議會는 道民에게 有益한가? 라는 設問을 갖고 道議會의 必要度를 各 應答內容別로 調査하였던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必要하다는 見解는 다른 議會의 必要度 못지않게 578名으로 52.6%로 壓倒的인 率을 보이고 있으며, (2) 必要없다가 112名으로 10.5%, (3) 消極的인 無關心을 合쳐 無關心한 態度로 나타난 것이 405名인 36.9%로 各各 比率을 占하고 있으며 이는 圖表 10의 서울特別市議會의 必要度보다 若干 높은 水準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다는 事實은 亦是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調査對象에 있어 地域의 配分上 道에 居住하고 있는 對象者를 많이 選定하였다는 데에서 서울特別市議會인 境遇와 若干의 差異가 生긴 原因을 찾고 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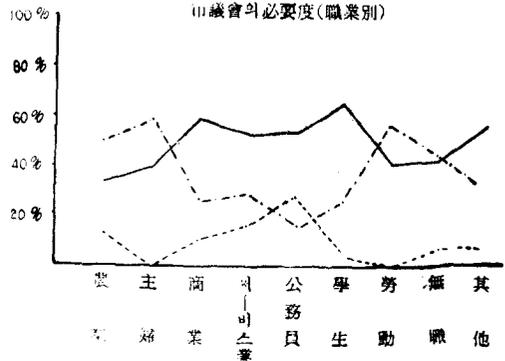
이를 各應答內容別로 살펴보면 必要하다는 見解는 年齡에 反比例하고 學歷에 比例하며 職業에 있어서는 大部分 强하게 議會의 必要度를 支持하고 있으며 特히 公務員이 더욱 强하게 支持하고 있는 事實은 다른 議會의 境遇와 同一하다. 年齡別에 있어서는 必要하다는 見解가 反比例하고 不必要하다는 見解가 比例하며 增加함은 道議會를 가져보았던 過去의 經驗으로 보아 別로 惠澤을 받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큰 期待를 할 수 없다는 判斷에서 나온 結果가 아닌가 想된다.

特히 職業에 있어서는 主婦가 强하게 無關心한 態度를 見보인 것은 主婦가 道議會에 對하여 잘 알지못하고 있다는 事實을 表現한 것이며 職業이 없는 失業者인 境遇 必要하다는 見解가 42.2%인데 對하여 「아무래도 좋다」라는 積極的인 態度의 無關心을 除外하고도 無關心한 態度로 나타난 것이 45.8%로 3.6%나 上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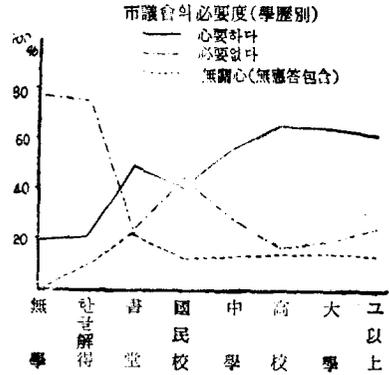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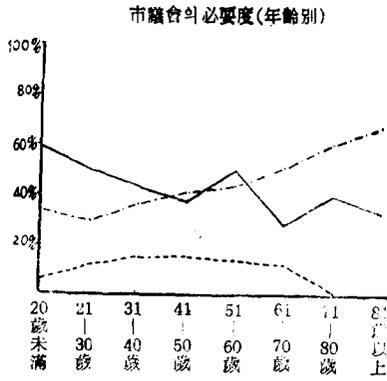
(圖表12) 市議會의 必要度



市議會의 必要度(職業別)



資 料



市議會는 市民에게 有益한가? (年齡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타	N, R	計
20세 미만	32 (59.2)	3 (5.6)	—	8 (14.8)	2 (3.7)	9 (16.7)	54
21 ~ 30	161 (51.0)	39 (12.4)	14 (4.4)	58 (18.4)	6 (0.2)	37 (11.7)	315
31 ~ 40	141 (43.8)	51 (15.9)	12 (3.7)	67 (20.8)	3 (0.9)	48 (14.9)	322
41 ~ 50	86 (37.7)	35 (15.3)	15 (6.6)	55 (24.1)	5 (2.2)	32 (14.1)	228
51 ~ 60	58 (50.0)	7 (6.0)	—	36 (31.0)	3 (2.6)	12 (10.3)	116
61 ~ 70	11 (28.2)	5 (12.8)	3 (7.7)	11 (28.2)	1 (2.6)	8 (20.5)	39
71 ~ 80	4 (40)	—	—	4 (40)	—	2 (20)	10
81 ~	1 (33.3)	—	—	—	1 (33.3)	1 (33.4)	3
不明	3 (30)	—	—	2 (20)	—	5 (50)	10
其他	—	—	—	1	—	—	1
計	497 (45.3)	140 (12.7)	44 (4.0)	242 (22.0)	21 (1.9)	154 (14.1)	1,098

市議會는 市民에게 有益한가? (職業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타	N, R	計
농업	141 (34.6)	57 (14)	11 (2.7)	110 (26.9)	7 (1.8)	81 (20.3)	407
주부	4 (40)	—	—	2 (20.0)	2 (20.0)	2 (20.0)	15 (20.0)
상업	76 (59.2)	17 (13.3)	6 (4.6)	16 (12.5)	2 (1.6)	11 (9.6)	128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씨 비 스	38 (53.5)	12 (16.9)	5 (7.0)	8 (11.2)	1 (1.4)	7 (9.8)	71
공 무 원	22 (54.2)	17 (28.8)	3 (5.1)	2 (3.4)	—	5 (8.5)	59
학 생	34 (66.7)	3 (5.9)	4 (7.6)	—	1 (1.9)	9 (17.1)	51
노 동	5 (41.7)	—	1 (8.3)	4 (33.2)	—	2 (16.6)	12
무	130 (43.9)	28 (9.5)	13 (4.4)	93 (31.6)	6 (2.0)	26 (8.8)	296
其 他	37 (57.3)	6 (9.4)	1 (1.5)	7 (10.9)	2 (3.1)	11 (17.2)	64
計	497 (45.3)	140 (12.7)	44 (4.0)	242 (22.0)	21 (1.9)	154 (14.1)	1,098

市議會는 市民에게 有益한가? (學歷別)

	그 령 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무 학	25 (20.2)	2 (1.2)	2 (1.2)	69 (41.4)	4 (2.4)	22 (13.2)	124
한 글 해 득	32 (22.9)	16 (11.3)	7 (4.9)	57 (39.9)	4 (2.8)	25 (17.5)	141
서 당	15 (50)	7 (23.3)	1 (3.3)	3 (10.0)	—	4 (13.3)	30
국민학교중퇴및졸업	139 (41.9)	46 (13.9)	11 (3.3)	75 (22.5)	7 (2.1)	53 (15.9)	331
중학교중퇴 및 졸업	80 (57)	21 (14.6)	4 (2.8)	17 (11.9)	4 (2.8)	16 (11.2)	142
고등학교중퇴및졸업	101 (66.9)	26 (15.7)	10 (6.0)	10 (6.0)	2 (1.2)	17 (10.2)	166
대학교중퇴 및 졸업	91 (65.9)	20 (14.5)	7 (4.9)	8 (5.6)	—	12 (8.4)	138
그 이 상	5 (62.5)	1 (12.5)	2 (25)	—	—	—	8
其 他	9 (50)	1 (5.5)	—	3 (16.5)	—	5 (27.5)	18
計	497 (45.3)	140 (12.7)	44 (4.0)	242 (22.0)	21 (1.9)	154 (14.1)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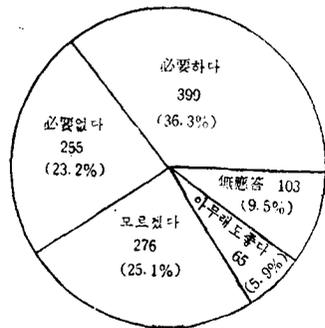
圖表 12에서는 市議會가 市民에게 有益한가? 라는 設問으로 市議會의 必要度を 調査하여 본결과 다음과 같은 答을 얻었다. 卽 (1) 市議會가 必要하다는 見解는 497名으로 總應答者數의 45.3%를 占하고 있으며, (2) 必要치 않다는 見解는 140名인 12.7%이고, 「아무래도 좋다」가 44名인 4%, 「모르겠다」가 242名으로 22%이며 無應答者가 175名인 16%를 各各 占하고 있다. 이와같은 應答의 結果는 다른 議會의 그것과 別로 差異點을 發見하기 힘들며 同一한 傾向을 表示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各應答內容別로 分析하여 보면 몇가지 興味있는 事實을 發見할 수가 있다. 必要하다고 하는 認識은 相對的으로 나타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인데 市議會의 경우에도 다른 議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年齡에 反比例하고 學歷에 比例하여

특히 50歲~60歲의 年齡層이 必要度에 對한 認識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事實은 다른 議會에서 發見할 수 없는 特色임으로 注目을 끌게 하고 있으며 學歷에 있어서도 國民學校를 卒業한 者보다 書堂出身의 教育水準을 가진 者가 더욱 높은 支持率을 보인것도 하나의 特異性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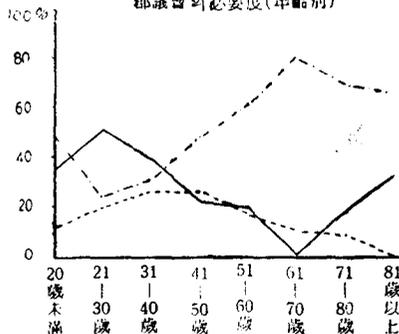
여기에서 書堂出身者와 50歲~60歲의 사람들과 相關關係가 있는것 같이되어 있으며 職業에 있어서는 다른 議會와 比較的 같은 傾向이나 商業人이 다른 職業에 比하여 學生을 除外하고 높다고 하는 事實은 亦是 市議會에서만이 볼 수 있는 特色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 必要없다는 140名을 各各 年齡, 學歷 및 職業別로 分抗하여 本결과 年齡에 있어서는 別로 差異없이 同一한 水準을 維持하고 있으며 學歷에 있어서도 같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便이나 書堂出身이 弱하게 不必要하다고 認識하고 있는 것은 또한 興味있는 일이다. 끝으로 無關心한 態度에 있어서는 다른 議會와 마찬가지로 年齡에 比例하며 學歷에 있어서는 書堂出身이 無關心한 度가 높으며 職業에 있어서 公務員이 壓倒的으로 無關心한 態度를 보이고있다.

(圖表13) 郡議會의 必要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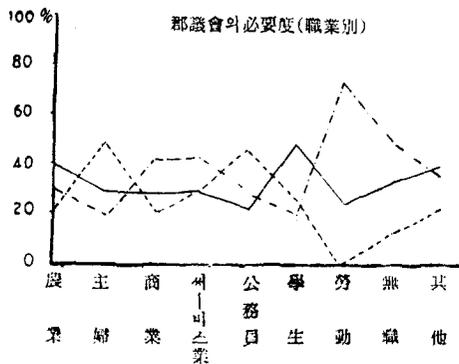


郡議會의 必要度 (年齡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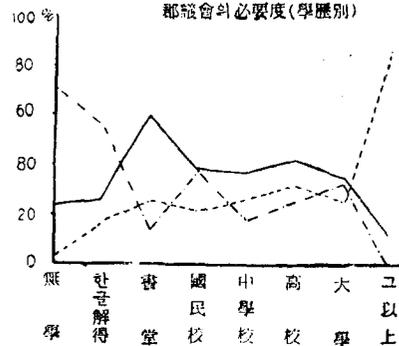


— 必要하다
 - - - 必要없다
 ····· 無關心(無應答包含)

郡議會의 必要度 (職業別)



郡議會의 必要度 (學歷別)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郡議會는 地方民에게 有益한가? (年齡別)

	그 령 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20 세 미 만	20 (37.0)	7 (12.9)	3 (5.6)	21 (38.9)	—	3 (5.6)	54
21 ~ 30	164 (52.1)	69 (21.9)	25 (7.9)	35 (11.1)	2 (0.6)	20 (6.3)	315
31 ~ 40	130 (40.4)	88 (27.3)	13 (4.0)	66 (20.5)	1 (0.3)	24 (7.5)	322
41 ~ 50	54 (23.7)	62 (27.1)	18 (7.9)	65 (23.5)	1 (0.4)	28 (12.3)	223
51 ~ 60	25 (21.6)	21 (18.1)	2 (1.7)	52 (44.8)	3 (2.6)	13 (11.2)	116
61 ~ 70	1 (2.6)	6 (15.4)	4 (10.2)	23 (58.9)	1 (2.6)	4 (10.2)	39
71 ~ 80	2 (20)	1 (10)	—	7 (70)	—	—	10
81 ~	1 (33.3)	—	—	2 (66.7)	—	—	3
不 明	2 (20)	1 (10)	—	4 (40)	—	3 (30)	10
其 他	—	—	—	1 (100)	—	—	1
計	399 (36.3)	255 (23.2)	65 (5.9)	276 (25.1)	8 (0.7)	95 (8.7)	1,098

郡議會는 地方民에게 有益한가? (職業別)

	그 령 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농	168 (41.2)	99 (23.3)	19 (4.7)	108 (26.5)	2 (0.5)	11 (2.7)	407
주	3 (30)	5 (50)	—	1 (10)	1 (10)	—	10
상	39 (28.0)	31 (22.3)	7 (5.0)	20 (14.4)	1 (1.3)	30 (21.5)	128
씨 비	20 (28.0)	21 (29.4)	6 (8.4)	8 (11.2)	2 (2.8)	14 (19.6)	71
공 무	14 (23.7)	28 (47.3)	3 (5.1)	9 (15.2)	—	5 (8.5)	59
학	25 (49.0)	15 (29.4)	10 (19.6)	—	—	1 (2.0)	51
노	3 (25.0)	—	—	3 (25.0)	—	6 (50.0)	12
무	101 (34.0)	41 (13.8)	17 (5.7)	118 (39.8)	2 (0.7)	17 (5.7)	296
其 他	26 (40.5)	15 (23.4)	3 (4.7)	9 (14.1)	11 (17.2)	64	64
計	399 (36.3)	255 (23.2)	95 (5.1)	276 (25.1)	8 (0.7)	95 (8.7)	1,098

資 料

郡議會는 地方民에게 有益한가? (學歷別)

	그 령 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무 학	30 (24.2)	6 (4.8)	4 (3.2)	75 (60.5)	3 (2.4)	6 (4.8)	124
한 글 해 득	39 (27.7)	23 (16.3)	9 (6.4)	62 (44.0)	1 (0.7)	7 (4.9)	141
서 당	18 (60.0)	8 (26.7)	1 (3.3)	8 (10)	—	—	30
민학교중퇴 및 졸업	131 (39.6)	77 (23.3)	10 (3.0)	76 (22.9)	2 (0.6)	35 (10.6)	331
중학교중퇴 및 졸업	55 (38.7)	38 (26.8)	10 (0.7)	26 (18.3)	—	13 (0.9)	142
고등학교중퇴 및 졸업	71 (42.7)	54 (32.5)	11 (6.6)	18 (10.8)	2 (0.1)	10 (6.0)	166
대학교중퇴 및 졸업	51 (36.9)	38 (27.5)	18 (13.1)	12 (8.6)	—	19 (13.8)	138
그 이 상	1 (12.5)	7 (87.5)	—	—	—	—	8
其 他	3 (16.7)	4 (22.2)	2 (11.1)	4 (22.2)	—	5 (27.8)	18
計	399 (36.3)	255 (23.2)	65 (5.9)	276 (25.1)	8 (0.7)	95 (8.7)	1,098

郡議會의 有益性에 對하여 이를 보면 (1) 必要하다는 見解는 399名으로 全體의 36.3%이 고, (2) 必要없다는 見解가 255名으로 23.2%이며, (3) 無關心은 「아무래도 좋다」는 積極的인 無關心態도와 「모르겠다」라고 한 消極的인 無關心態도를 合쳐 444名으로 40.5%로서 이 곳 郡議會에 나타난 應答中 特異한 것은 必要없다고 하는 思想이 다른 議會의 경우보다 强하게 나타나고 있는 事實이다. 따라서 必要하다는 見解를 表示한 數가 다른 議會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減少되어 있음은 다른 議會 卽 道議會인 경우 52.6%, 國會인 경우 59.9%, 또한 郡과 同位의 單位인 市議會의 경우 45.3%에 比해서 곧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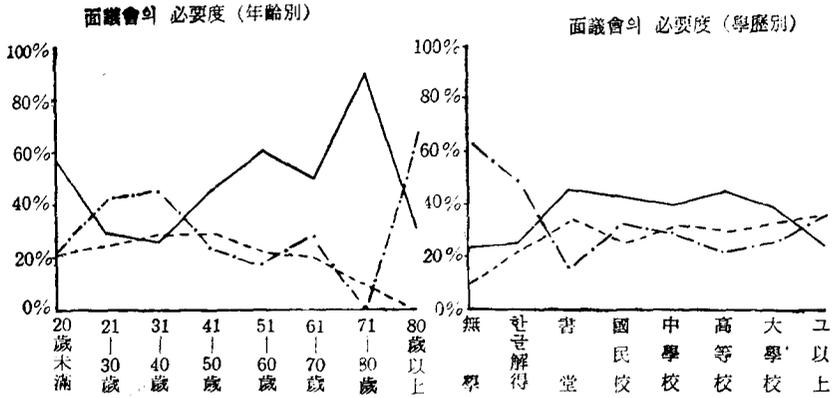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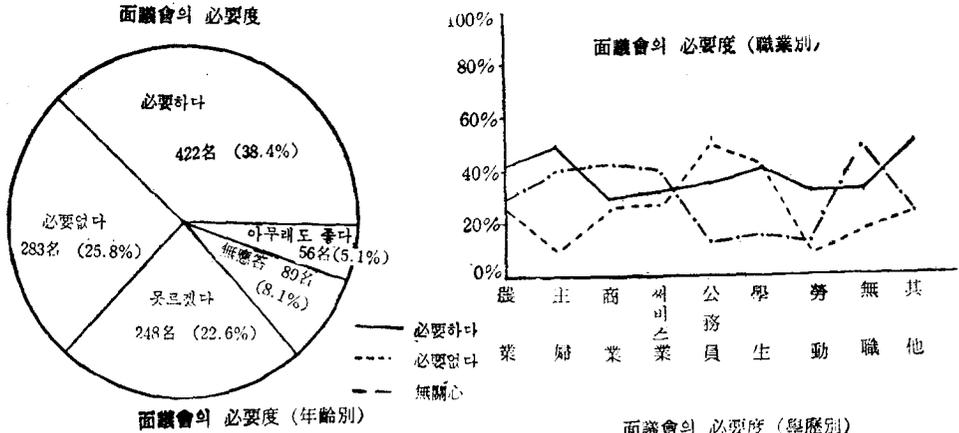
이제 이를 各 應答內容別로 檢討하여 보면 必要하다는 見解는 年齡에 反比例하고 學歷에서는 一定한 現象을 찾기 힘드나 書堂出身이 압도적으로 支持하는 率이 높으며 職業別에 있어서는 다른 議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學生이 가장 必要하다고 느끼고 있다.

無關心한 態度는 年齡에 比例하여 增加하고 있으며 61歲~70歲의 無關心度가 가장 높고 學歷에 있어서는 亦是 無學者가 가장 높으며 職業에 있어 勞動者가 가장 높다는 事實은 郡議會의 必要度뿐 아니라 이를 包含하는 全自治政에 있어서 關心度는 學歷에 比例하고 生活程度에 比例함을 엿볼 수 있다. 郡議會가 必要치 않다는 認識은 主婦와 公務員인 경우 가장 높으며 一人을 基準으로 하여 그가 가질 수 있는 全體意見을 100%로 한다면 主婦와 公務員은 50% 程度를 各各 必要없다고 하는 應答에 表示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面議會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地方自治意識에 관한 實態報告

(圖表14)



面(邑)議會는 地方民에게 有益한가? (年齡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타	N. R	計
20歲 미 만	32 (59.2)	11 (20.2)	4 (7.4)	4 (7.4)	—	3 (5.6)	54
21 ~ 30	99 (31.4)	80 (25.4)	18 (5.7)	97 (30.7)	1 (0.3)	20 (6.3)	315
31 ~ 40	87 (26.9)	89 (27.6)	14 (4.4)	112 (34.7)	1 (0.3)	19 (5.9)	322
41 ~ 50	104 (45.6)	67 (29.3)	13 (5.7)	20 (8.8)	2 (0.8)	22 (9.6)	228
51 ~ 60	70 (60.3)	26 (22.4)	4 (3.4)	1 (0.8)	2 (1.7)	13 (11.2)	116
61 ~ 70	20 (51.3)	8 (20.5)	3 (7.7)	4 (10.2)	—	4 (10.2)	39
71 ~ 80	9 (90)	1 (10)	—	—	—	—	10
81 ~	1 (33.3)	—	—	2 (66.7)	—	—	3
不明	—	1 (10)	—	7 (70)	—	2 (20)	10
其他	—	—	—	1 (100)	—	—	1
計	422 (38.4)	283 (25.8)	56 (5.1)	248 (22.6)	6 (0.6)	83 (7.5)	1,098

資 料

面(邑)議會는 地方民에게 有益한가? (職業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농 업	175 (42.9)	113 (27.8)	14 (3.4)	97 (23.8)	2 (0.5)	6 (1.5)	407
주 부	5 (50)	1 (10)	4 (40)	—	—	—	10
상 업	40 (31.2)	33 (25.8)	6 (4.7)	20 (15.6)	1 (0.7)	28 (21.8)	128
세 비 스	23 (32.4)	19 (26.8)	7 (9.8)	7 (9.8)	2 (2.8)	13 (18.3)	71
공 무 원	21 (35.6)	30 (50.8)	3 (5.1)	1 (1.7)	—	4 (6.8)	59
학 생	21 (41.2)	22 (43.1)	5 (9.8)	2 (3.9)	—	1 (2.0)	51
노 동	4 (33.3)	1 (8.3)	—	1 (8.3)	—	6 (50)	12
무:	100 (33.8)	49 (16.5)	18 (6.1)	112 (37.7)	1 (0.3)	16 (5.4)	296
其 他	33 (51.5)	15 (23.4)	3 (4.7)	4 (6.2)	—	9 (14.0)	64
計	422 (38.4)	283 (25.8)	56 (5.1)	248 (22.6)	6 (0.6)	83 (7.5)	1,098

面(邑)議會는 地方民에게 有益한가? (學歷別)

	그렇다	필요없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무 학	30 (24.2)	14 (11.3)	3 (2.4)	68 (54.8)	3 (2.4)	6 (4.8)	124
한글해득	38 (26.9)	32 (22.7)	8 (5.7)	56 (33.7)	1 (0.7)	6 (4.3)	141
서 당	14 (46.7)	11 (36.6)	1 (3.3)	3 (10)	—	1 (33)	30
국 민 교	144 (43.5)	77 (23.3)	9 (2.7)	72 (21.7)	1 (0.3)	28 (8.5)	331
중 학	57 (40.1)	41 (28.9)	11 (7.7)	19 (13.4)	—	14 (9.8)	142
고 등	75 (45.2)	53 (31.9)	8 (4.8)	20 (12.0)	1 (0.6)	9 (5.4)	166
대 학	54 (39.1)	47 (34.0)	15 (10.9)	8 (5.8)	—	14 (10.1)	138
그 이 상	2 (25.0)	3 (37.5)	1 (12.5)	2 (25.0)	—	—	8
其 他	8 (44.4)	5 (27.7)	—	—	—	5 (27.7)	18
計	422 (38.4)	283 (25.8)	56 (5.1)	248 (22.6)	6 (0.6)	83 (7.5)	1,098

圖表 14와 以上の 資料를 分析하여 面議會의 有益性에 對하여 이를 보면 (1) 必要하다는 見解는 422名(38.4%), (2) 必要치 않다는 見解는 238名(25.8%), (3) 無關心은 304名(27.7%)으로 되어 있는바 郡議會의 경우와 거의 같은 應答을 나타내고 있으며 「必要하다」와 「必要없다」의 雙方이 모두 郡議會보다 若干 높으며 無關心한 態度가 反對로 若干 낮음을 알수 있는데 各 應答內容을 綜合하여 그 特異點만을 指摘한다면 不必要하다는 見解는 20代부터 50代까지와 公務員, 學生層에 強하고 學歷에 比例하여 強하여 지고 있다. 이는 過去의 面議會에 對한 回顧의 反動現象이라고 본다면 地方自治의 教育의 效果에 若干의 蹉跌이 있었음을 是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構成하여보지 못한 郡議會의 境遇를 參酌하여 본다면 반드시 그러한 結論이 옳지 못함을 알 수 있다. 卽 郡議會의 境遇에도 有益性을 支持한 者는 反對한 者보다 많으나 그 支持度는 다른 議會에 比해서 몹시 弱할뿐 아니라 無反應의 比率이 相當히 높은 것이 特色이라 하겠는데 여기에도 20代부터 50代까지와 學歷에 比例해서 反對論이 強하나 다만 職業別로 볼때 學生層에서는 反對論이 弱하다는 點이다. 이는 學主層의 特殊性 卽 事實에 關한 批判은 이를 現實로서 받아드리되 이를 根據로 하여 未知에 事態에 까지 類推適用코져 하지않고 있어야 할 理念으로 期待해 보려는 思惟方式의 所産이 아닌가 한다.

또한 이곳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各議會를 全體로 通하여 볼때 「議會가 必要하다」或은 「必要없다」하는 積極的 應答의 數에 못지않게 「모르겠다」, 「아무래도 좋다」하는 消極的 및 積極的인 無關心의 態度가 뚜렷하게 高率을 占하는 것으로 보아 自治意識에 對한 稀弱性을 表示하고 있을뿐더러 各 議會로부터의 뚜렷한 惠澤이 없음을 一面 보여주는 것이라고 思料된다.

自治意識의 결여 및 그의 弱함은 本來 無關心한 態度에서 招來되는 것이 普通이며 支持한 다든가 批判하는 態度는 多分히 自治政에 對한 充分한 餘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며 批判의 態度는 어느 面에서 볼때는 그대로 順應하고 支持하는것 보다 強한 自治意識 卽 主觀的인 價値判斷을 介시킨 狀態임으로 民主政治에 있어서 各 構成員이 完全히 政治에 參與하는 參政權을 갖었다는 意味에서 보다 效果的인 自治意識을 두텁게 한다고 보겠다.

國會가 必要하다는 사람의 數를 參考로 國會議員選舉 때 投票한 사람의 當選여부를 조사한 결과 自己가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는지 落選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者가 全體의 26%나 되는 形便이니 이와같은 事實은 住民들의 無關心한 態度가 根本原因이겠으나, 政治를 하려는 立候補者들의 行爲가 選舉前과 選舉後에 있어서 현격한 差異를 갖이고 음을 알수있고 過去에 우리는 國會議員立候補者가 선거전에는 집집마다 訪問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나 當選이 되든가 或은 落選이 된후에는 人事狀 하나 제대로 내는 사람을 못본것으로 보아 이같은 事實의 結果는 能히 짐작이 간다. 職業別로 보면 學生層은 當選여부를 完全히 알고 있는데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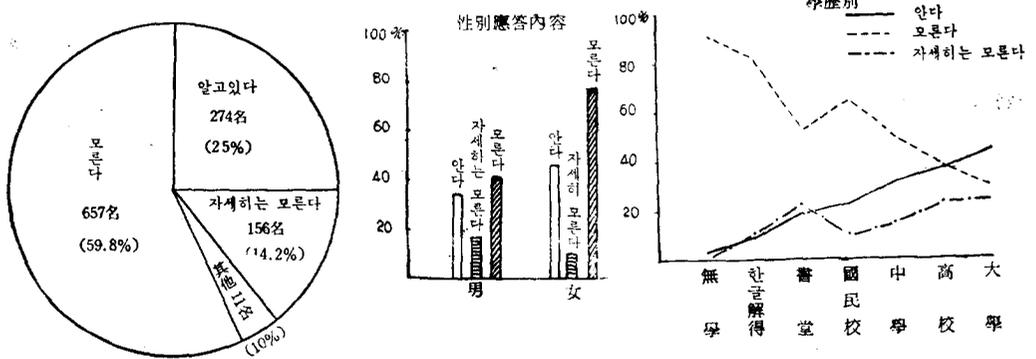
反해서 農業과 勞動에 從事하고 있는 사람은 그 當選여부를 아는 數가 頗히 작으며 無關心한 態度는 學歷에 反比例하고 都會地보다 僻地일수록 그 強度가 높다. 또 性別로 보면 男子보다 女子가 無關心한 態度에 있어서 男子 16.5%에 比해 女子는 42.2%로 2배를 上廻하고 있음을 곧 알수 있다.

六. 制度 變遷에 對한 關心度 (自治團體)

다음 制度의 變遷自體에 對하여 얼마만큼 關心을 가지고 理解하고 있는가를 最近에 바꾸어진 두가지 事實 卽 (1) 郡이 基礎的自治團體로 되었다는 것과 (2) 稅制改革으로 農地稅와 財產稅가 地方稅로 新設되었다는 것을 들어 設問하였던바 그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圖表 16)

郡이 基礎的自治團體로된 事實을 아는가?



地方自治團體의 單位가 面에서 郡으로 變換 事實을 알고 있는가? (年齡別)

	안 다	자세히 모른다	모른다	기 타	計
20 세 미 만	15 (27.8)	19 (35.2)	20 (37.2)	—	54
21 ~ 30	80 (25.4)	43 (13.5)	190 (60)	2 (6.3)	315
31 ~ 40	88 (27.3)	41 (12.7)	192 (59.6)	1 (0.3)	322
41 ~ 50	62 (27.2)	30 (13.2)	133 (58.3)	3 (0.3)	228
51 ~ 60	23 (19.8)	12 (10.3)	79 (68.1)	2 (1.7)	116
61 ~ 70	3 (7.7)	8 (20.5)	28 (71.7)	—	39
71 ~ 80	1 (10)	—	8 (80)	1 (10)	10
81 ~	—	1 (33.3)	2 (66.7)	—	3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기	타	2 (20)	2 (20)	4 (40)	2 (20)	10
不	明	—	—	1 (100)	—	1
計		274 (24.9)	156 (14.2)	657 (59.8)	11 (10.1)	1,098

地方自治團體의 單位가 面에서 郡으로 變換 事實을 알고 있는가? (性別)

		안 다	자세히 모른다	모른다	기 타	計
남		228 (35.3)	106 (16.5)	307 (47.6)	4 (0.6)	645
녀		45 (10.1)	48 (10.9)	346 (77.9)	5 (1.1)	444
불	명	1 (11.1)	2 (22.2)	4 (44.4)	2 (22.2)	9
計		274 (24.9)	156 (14.2)	657 (59.8)	11 (10.1)	1,098

地方自治團體의 單位가 面에서 郡으로 變換 事實을 알고 있는가? (學歷別)

		안 다	자세히 모른다	모른다	기 타	計
부		4 (3.2)	3 (2.4)	115 (92.7)	2 (1.6)	124
한	글 해 득	10 (7.1)	13 (9.2)	118 (83.7)	—	141
서	당	6 (19.9)	7 (23.3)	16 (53.4)	1 (3.4)	30
국	민 교	75 (22.7)	34 (10.3)	221 (66.7)	1 (0.3)	331
중	학 교	47 (33.1)	22 (15.5)	72 (50.7)	1 (0.7)	142
고	등 학 교	63 (37.9)	39 (23.5)	63 (38)	1 (0.6)	166
대	학 교	61 (44.2)	33 (23.9)	42 (30.4)	2 (14.5)	138
그	이 상	6 (7.5)	1 (12.5)	1 (12.5)	—	8
기	타	2 (11.1)	4 (22.2)	9 (49.9)	3 (16.7)	18
計		274 (24.9)	156 (14.2)	657 (59.8)	11 (10.1)	1,098

地方自治團體의 單位가 面에서 郡으로된 事實을 알고 있는가? (地域別)

		안 다	자세히 모른다	모른다	기 타	計
청	송	26 (26.0)	1 (1.0)	73 (73.0)	—	100
금	능	25 (23.8)	11 (10.5)	67 (63.8)	2 (1.9)	105

資 料

천	안	20 (18.3)	16 (14.7)	70 (64.2)	3 (2.7)	109
명	창	43 (38.1)	9 (7.9)	61 (54)	—	113
인	천	25 (21.7)	25 (21.7)	63 (54.8)	2 (1.7)	115
부	산	19 (16.3)	18 (15.4)	80 (68.6)	—	117
광	주	26 (24.3)	20 (18.7)	61 (57)	—	107
여	천	20 (17.6)	15 (13.3)	77 (68)	1 (8.8)	113
무	주	39 (34.5)	4 (3.5)	20 (61.9)	—	113
서	울	31 (29.2)	37 (34.9)	35 (33)	3 (2.8)	106
計		274 (24.9)	156 (14.2)	657 (59.8)	11 (10.1)	1,098

地方自治團體의 單位가 면에서 郡으로 變換 事實을 알고 있는가? (出生地別)

	안 다	자세히 모른다	모른다	기 타	計
조 사 지	137 (26.2)	70 (13.4)	306 (58.6)	9 (17.2)	522
도 내	78 (22.7)	44 (12.9)	218 (63)	1 (2.9)	341
도 외(이남)	34 (23.4)	26 (17.9)	85 (58.6)	—	145
이 북	17 (25)	15 (22.1)	35 (51.4)	1 (1.5)	68
기 타	8 (41.9)	1 (5.3)	10 (53)	—	19
무 응 답	—	—	3 (100)	—	3
計	274 (24.9)	156 (14.2)	657 (59.8)	11 (10.1)	1,098

郡이 基礎的自治團體로 된 事實을 아는가? 라는 設問에 依하여 制度의 變遷自體에 對한 關心度를 測定하였던바 自治團體의 單位가 邑面에서 郡으로된 事實을 알고 있다는 應答者는 全體의 24.9%인 274名뿐이며 變遷自體에 對하여 全然 모른다는 사람이 59.8%에 657名이나 된다. 特히 約 15%에 該當하는 156名이나 되는 사람들은 비슷한 말은 들었으나 仔細히는 모른다]는 模糊한 答辯을 하고 있다. 따라서 全體적으로 볼 때 關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全體數의 70%強인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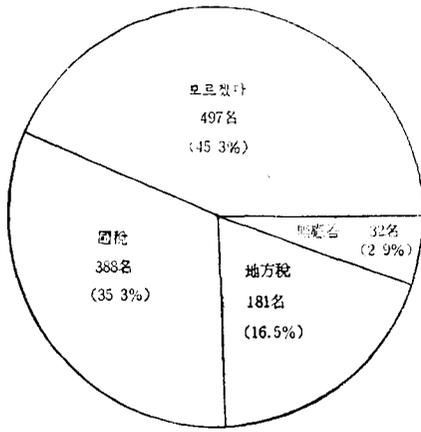
特히 이를 性別로 살펴보면 女性中에 이 事實을 알고 있는 者는 겨우 10% 程度인데 對하여 男性中에는 35%나 알고 있다. 學歷別로 보면 한글을 解得할 程度의 教育水準이 낮은 者가 7.1% 알고있는데 對하여 大學教育을 받고있는 者는 約 45%나 알고 있다는 事實로 미루

위 보아 學歷에 比例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며 「모른다」는 率은 이에 反比例함을 알수있다.
 年齡別로 보면 20歲부터 50歲까지가 「안다」는 率이 높으며 同時에 「모른다」고 하는 率은 60歲以上에서 높은 率을 차지하고 있다. 地域別로 살펴보면 比較的 都會地와 僻地가 비슷한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을 除外하고는 오히려 都會地보다 僻地가 「안다」고 하는 率이 높은 傾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亦是 關心의 度도 直接 接觸하는 程度에 比例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單位區域內에서도 女性보다 男性이 더 잘 알고 있는 事實도 多方面에 있어서 女性보다 男性이 自治團體와 接觸의 度가 높은 것이라고 生覺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七. 制度變遷에 對한 關心度 (稅制改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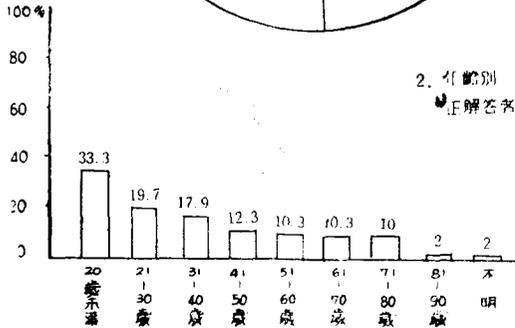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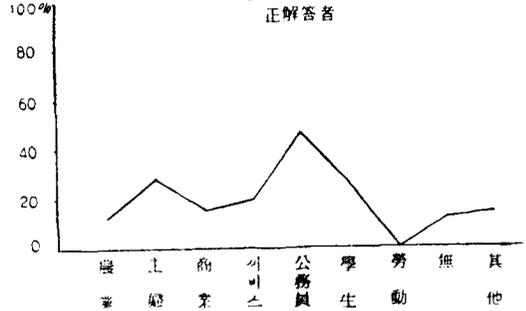
圖表 17)

農地稅는 國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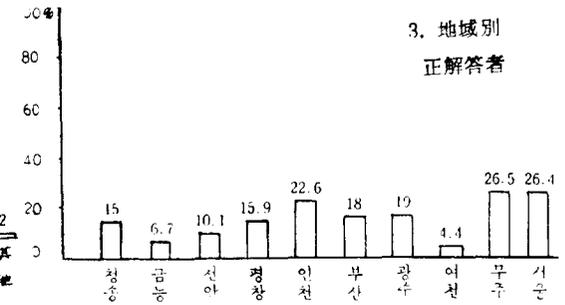


農地稅는 國稅인가?

1. 職業別 正解答者



2. 年齡別 正解答者



3. 地域別 正解答者

農地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職業別)

職業 (Profession)	國稅 (National tax)	地方稅 (Local tax)	모르겠다 (Don't know)	正 R (Correct R)	計 (Total)
농업 (Agriculture)	177 (43.5)	54 (13.3)	172 (42.3)	4 (9.8)	407
주부 (Housewife)	4 (40)	3 (30)	2 (20)	1 (10)	10
상업 (Business)	44 (34.4)	20 (15.6)	60 (46.9)	4 (3.1)	128

資 料

씨 비 스	22 (30.9)	14 (19.7)	32 (45.1)	3 (4.2)	71
공 무 원	21 (35.6)	28 (47.4)	9 (15.2)	1 (1.6)	59
학 생	23 (45.1)	14 (27.4)	11 (21.5)	3 (5.9)	51
노 동	1 (8.4)	—	11 (91.6)	—	12
무	16 (22.3)	39 (13.2)	183 (61.8)	8 (2.7)	296
其 他	30 (46.9)	9 (14.1)	17 (26.5)	8 (12.4)	64
計	388 (35.3)	181 (16.5)	497 (45.3)	32 (2.9)	1,098

農地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年齡別)

	국 세	지방세	모르겠다	N. R	計
20 歲 미 만	18 (33.3)	18 (33.3)	16 (29.6)	2 (3.7)	54
21 ~ 30	117 (37.1)	62 (19.7)	135 (42.8)	1 (3.2)	315
31 ~ 40	115 (36.8)	56 (17.9)	142 (45.5)	9 (2.9)	322
41 ~ 50	87 (38.1)	28 (12.3)	107 (46.9)	6 (2.6)	228
51 ~ 60	39 (33.6)	12 (10.3)	63 (54.3)	2 (17)	116
61 ~ 70	11 (28.2)	4 (10.3)	21 (53.8)	3 (7.7)	39
71 ~ 80	—	1 (10)	8 (80)	1 (10)	10
81 ~	6 (33.4)	—	2 (66.6)	—	3
不 明	—	—	2 (20)	8 (80)	10
其 他	—	—	1	—	1
計	338 (30.8)	181 (16.5)	497 (45.3)	32 (2.9)	1,098

農地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地域別)

	국 세	지방세	모르겠다	N. R	計
청 송	36 (36)	15 (15)	49 (49)	—	100
금 능	38 (36.2)	7 (6.7)	58 (55.2)	2 (1.9)	105
천 안	40 (36.7)	11 (10.1)	54 (49.5)	4 (3.6)	109
평 창	50 (44.2)	18 (15.9)	44 (38.9)	1 (0.8)	113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인	천	23 (10.0)	26 (22.6)	64 (55.6)	2 (1.7)	115
부	산	32 (27.3)	21 (17.9)	64 (54.7)	—	117
광	주	39 (36.4)	20 (18.7)	42 (39.2)	6 (5.6)	107
여	천	36 (31.8)	5 (4.4)	68 (60.1)	4 (3.5)	113
무	주	54 (47.8)	30 (26.5)	29 (25.7)	—	113
서	울	40 (37.7)	28 (26.4)	25 (23.6)	13 (12.3)	106
計		388 (35.3)	181 (16.5)	497 (45.3)	32 (2.9)	1,098

農地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學歷別)

		국 세	지방세	모르겠다	N. R	計
부	학	16 (12.9)	5 (4)	102 (82.3)	1 (0.8)	124
한	글 해 독	42 (29.8)	6 (4.3)	92 (65.2)	1 (0.7)	141
서	당	8 (26.6)	9 (29.9)	12 (39.9)	1 (3.3)	30
국	민 교	127 (38.4)	40 (1.2)	159 (48.0)	5 (1.5)	331
중	학	66 (53.2)	21 (16.9)	49 (39.5)	6 (4.8)	142
고	등	68 (41.0)	41 (24.7)	51 (30.7)	6 (3.6)	166
대	학	53 (38.4)	54 (39.1)	28 (20.3)	3 (0.2)	138
고	이 상	5 (62.5)	3 (37.5)	—	—	8
N.	R	3 (16.7)	2 (11.1)	4 (22.2)	9 (50.0)	18
計		388 (35.3)	181 (16.5)	497 (45.3)	32 (2.9)	1,098

農地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性別)

		국 세	지방세	모르겠다	N. R	計
남		304 (47.1)	121 (18.8)	203 (31.5)	17 (2.6)	645
녀		84 (18.5)	59 (13.3)	294 (66.2)	7 (1.6)	444
N.	R	—	1 (1.1)	—	8 (88.9)	9
計		388 (35.3)	181 (16.5)	497 (45.3)	32 (2.9)	1,098

制度의 變遷自體의 對한 關心度를 測定하기 위한 第二方法으로 最近에 바꾸어진 稅制改革을 擇하여 農地稅와 財産稅가 地方稅로 新設되었다는 事實을 調査하였는 데이의 應答內容을 分析하면서 短評을 붙여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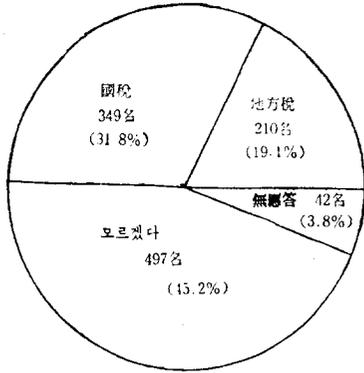
먼저 圖表 17에 나타난 바와같이 「農地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에 對하여서는 「모르겠다」로 答한것이 45% 強인 497名이고 國稅라고 틀리게 答한 者가 35% 強인 388名이며 地方稅라고 正答을 한者는 不過 16%인 181名뿐이다. 地方稅라고 正答을 한者를 地域別로 살펴 보기로 하자.

于先 그 順序를 羅列하여 본다면 서울·仁川·釜山·光州·靑松·金陵·麗川의 順序로 되어있고 그를 數値로 表示하여 보면 圖表 17에서 보는바와같이 麗川이 不過 4%인 5名뿐인데 比해서 서울과 仁川은 各各 26.5%와 22.6%로 사람의 數도 서울이 30名, 仁川이 26名이나 되고 있다. 實上 農地稅의 納稅義務者는 都市보다 農村에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이는 納稅者로서 自覺보다는 一種의 知識으로 되어있음을 말하여 주는듯 하다. 卽 農村의 納稅義務者는 稅金이 부과되었을 때 納稅告知書上에 나타난 金額에 對하여만 關心을 갖으며 稅의 主體에 對한 認識은 全然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稅가 徵收되어 財政資金化 됨으로서 어떻게 支出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거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農地稅가 地方稅라는 事實을 學歷에 比例해서 알고 있음은 亦是 納稅者로서의 自覺보다 一種의 知識으로 되고 있음을 證明하여 주고 있는 것이며 이에 國民이 갖는 하나의 義務로서 納稅에 對하여 보다 具體的 事實에 對한 認識이 必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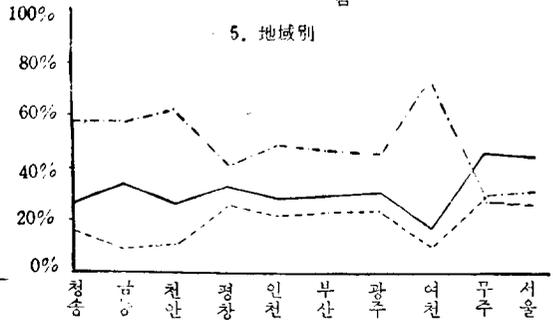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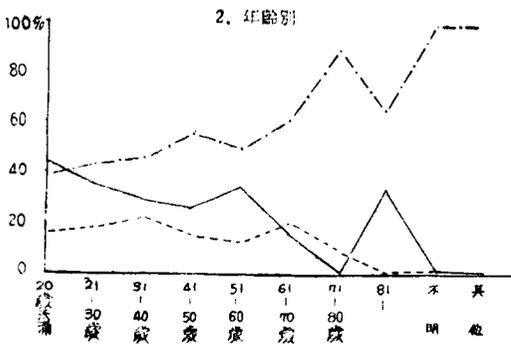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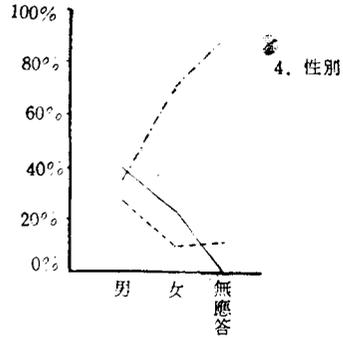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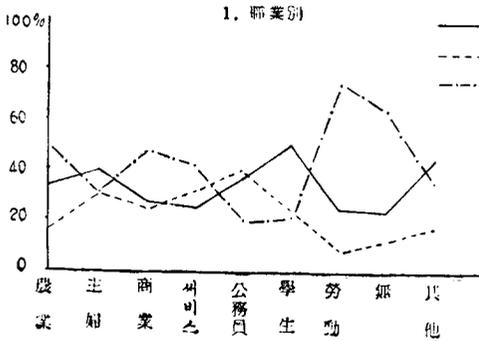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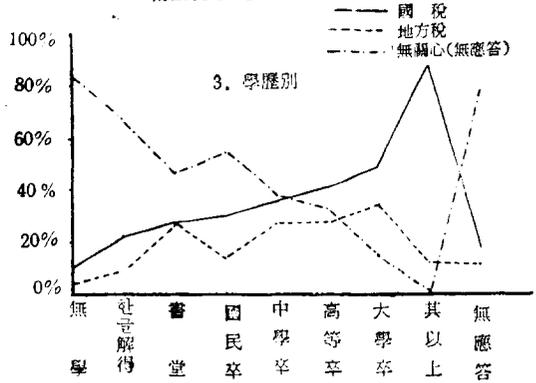
끝으로 各 應答內容別로 살펴봄으로써 一般的 傾向을 본다면 地方稅라고 正解答을 한者는 年齡에 反比例하고 反面에 無關心의 度는 年齡에 比例하여 增加하고 있는 傾向이 있다. 學歷에 있어서도 一般的으로 正解答을 한者는 比例하고 있는 便이나 書堂出身이 29.9%로 高等學校 學歷을 갖인者의 24.7% 보다 5% 以上이나 높다는 것이 한가지 特異한 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職業別에 있어서는 公務員이 가장 높은 率의 正答을 하였으며 制度自體의 改革이 政府가 한 일임으로 當然한 歸結이라 볼 수 있으나 한가지 注目을 끄는 것은 農地稅의 課稅主體가 國家인지 地方自治團體인지 모르는 農業經營者가 許多한데 主婦가 30% 程度의 높은 率로 알고 있는 事實은 學生이 겨우 27.4%에 該當하는데 比해 興味있는 일이다.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圖表 18) 財産稅는 地方稅인가 國稅인가?



財産稅는 地方稅인가 國稅인가?



財産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職業別)

職業	國稅	地方稅	모르겠다	N.R	計
농업	139 (34.1)	66 (16.2)	190 (46.6)	12 (2.9)	407
주부	4 (40)	2 (30)	3 (30)	1 (10)	10
상업	36 (28.1)	32 (25.0)	55 (43.0)	5 (3.9)	128

資 料

써 비 스	18 (25.2)	23 (32.4)	27 (38.0)	3 (4.2)	71
공 무 원	23 (38.9)	24 (40.6)	12 (20.3)	—	59
학 생	27 (52.9)	13 (25.5)	7 (13.7)	4 (7.8)	51
노 동	2 (16.7)	1 (8.3)	9 (75.0)	—	12
무	71 (24.0)	36 (12.1)	179 (60.3)	10 (3.4)	296
其 他	29 (45.2)	12 (18.7)	15 (23.4)	8 (12.4)	64
計	349 (31.8)	210 (19.1)	497 (45.2)	42 (3.8)	1,098

財産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年齡別)

	국 세	지방세	모르겠다	N. R	計
20 세 미 만	24 (44.4)	9 (16.7)	17 (31.5)	4 (7.4)	54
21 ~ 30	116 (36.8)	62 (19.7)	135 (42.8)	2 (0.7)	315
31 ~ 40	97 (30.1)	76 (23.6)	138 (42.8)	11 (3.4)	322
41 ~ 50	62 (27.2)	38 (16.6)	115 (50.4)	13 (5.7)	228
51 ~ 60	42 (36.2)	16 (13.8)	58 (50.0)	—	116
61 ~ 70	7 (18.0)	8 (2.03)	21 (5.40)	3 (7.7)	33
71 ~ 80	—	1 (10)	8 (80)	1 (10)	10
81 ~	1 (33.3)	—	2 (66.6)	—	3
不 明	—	—	2 (20)	8 (80)	10
其 他	—	—	1 (100)	—	1
計	349 (31.8)	210 (19.1)	497 (45.2)	42 (3.8)	1,089

財産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學歷別)

	국 세	지방세	모르겠다	N. R	計
무 학	14 (11.3)	6 (4.8)	104 (83.8)	—	124
한 글 해 득	32 (22.7)	13 (9.2)	92 (65.2)	4 (2.8)	141
서 당	8 (26.6)	8 (26.6)	12 (40.0)	2 (6.7)	30
국 민 학 교	99 (29.9)	47 (14.2)	174 (52.6)	11 (3.3)	331
중 학 교	51 (35.9)	39 (27.5)	44 (31.0)	8 (5.6)	142
고 등 학 교	67 (40.3)	46 (27.7)	47 (28.3)	6 (3.6)	166
대 학 교	68 (49.2)	48 (34.8)	20 (14.5)	2 (1.4)	138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그	이	상	7	1	—	—	8
			(87.5)	(12.5)			
N.		R	3	2	4	9	18
			(16.7)	(11.1)	(22.2)	(50.0)	
		計	349	210	497	42	1,098
			(31.8)	(19.1)	(45.2)	(3.8)	

財産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性別)

		국 세	지방세	모르겠다	N. R	計
남		252	169	202	22	645
		(39.0)	(26.2)	(31.3)	(3.4)	
녀		97	40	295	12	444
		(21.8)	(9.0)	(66.4)	(2.5)	
N.		—	1	—	8	9
			(11.2)		(88.8)	
		計	349	210	497	42
			(31.8)	(19.1)	(45.2)	(3.8)

財産稅는 國稅인가 地方稅인가? (地域別)

		국 세	지방세	모르겠다	N. R	計
형	송	27	16	57	—	100
		(27)	(16)	(57)		
금	능	36	9	57	3	105
		(34.2)	(8.6)	(54.2)	(2.9)	
천	안	30	11	55	13	109
		(27.5)	(10.1)	(50.4)	(12.0)	
경	창	38	29	45	1	113
		(33.6)	(25.6)	(39.8)	(0.9)	
인	천	33	25	55	2	115
		(28.7)	(21.7)	(47.8)	(1.7)	
부	산	34	28	53	2	117
		(29.0)	(23.9)	(45.3)	(1.7)	
광	주	34	25	41	7	107
		(31.8)	(23.4)	(38.3)	(6.5)	
여	천	19	10	80	4	113
		(16.8)	(8.8)	(70.7)	(3.5)	
무	주	51	30	32	—	113
		(45.1)	(26.5)	(28.3)		
서	울	47	27	22	10	106
		(44.3)	(25.9)	(20.7)	(9.4)	
		計	349	210	497	42
			(31.8)	(19.1)	(45.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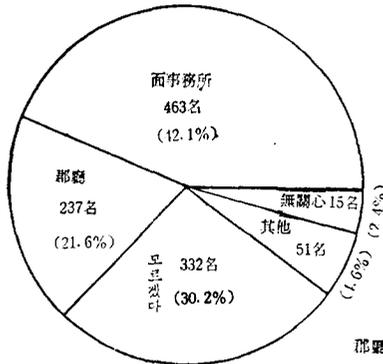
다음 財産稅의 境遇에 있어서도 그 傾向이 農地稅와 비슷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 圖表 18에서 보면 「財産稅는 地方稅인가 國稅인가?」의 設問에서 「모르겠다」로 應答한者가 가장 높은 比率로 45%인 497名이고 「國稅」라고 한者가 31%인 349名인데 比하여 「地方稅」라고 正答을 한者는 19%인 210名뿐으로 되어있다. 以上の 圖表를 檢討分析하여 보면 먼저 職業別

資 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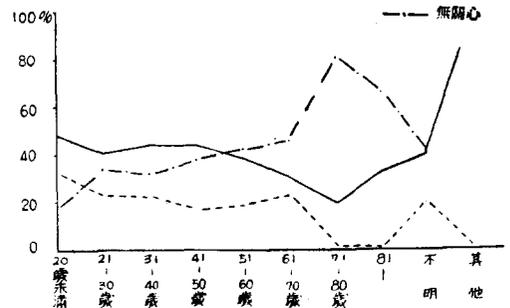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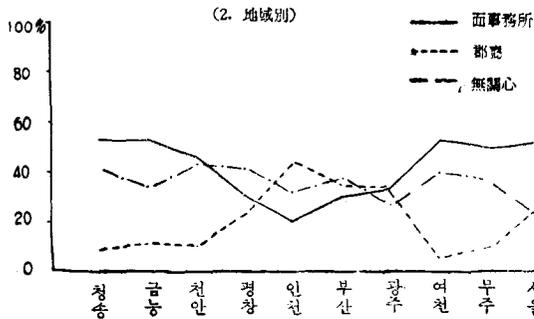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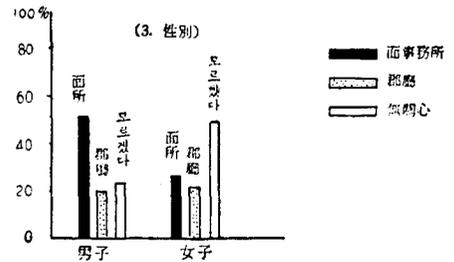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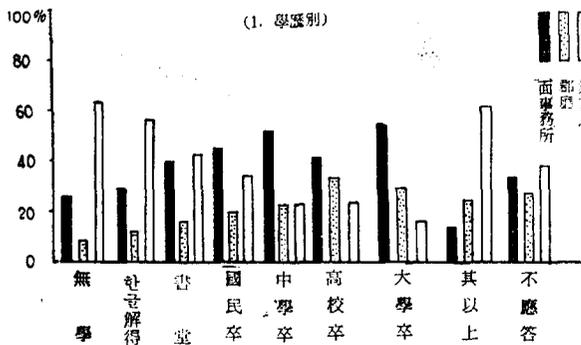
로 보면 比較的 學生層이 地方稅로 알고 있는 率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事實로 보아도 一 種의 知識으로 解釋함이 타당하다. 年齡別로는 地方稅로 알고 있는 率이 年齡에 反比例하 며 無關心한 態度는 年齡에 比例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學歷別로는 勿論 學歷에 比例하여 地方稅로 알고 있으며 女性보다 男性이 더 잘 알고 있고 地域別에 있어서는 農地稅와 비슷 하게 都會地와 僻地가 別로 差異가 없는데 이것은 農村이나 都心地나 비슷한 財産稅를 納付 하고 있는 理由로 이에 對한 理解가 비슷하다고 生覺하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八. 地域社會에 對한 共同意識

(圖表19) 郡廳과面事務所中없어지면더不便한쪽은?



郡廳과面事務所中없어지면더不便한쪽은?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面(洞)事務所나 郡廳中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느쪽이 더 不便한가? (年齡別)

	면사무소	군 청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20 歲 미 만	26 (48.1)	18 (33.3)	10 (18.5)	—	—	54
21 ~ 30	128 (40.6)	73 (23.1)	95 (30.1)	15 (4.8)	4 (1.3)	315
31 ~ 40	144 (44.7)	74 (23.0)	93 (28.9)	8 (2.5)	3 (0.9)	322
41 ~ 50	100 (43.9)	39 (17.0)	69 (30.3)	18 (7.9)	2 (0.9)	228
51 ~ 60	45 (38.8)	22 (19.0)	39 (33.6)	7 (6.0)	3 (2.6)	116
61 ~ 70	12 (30.8)	9 (23.0)	15 (38.5)	2 (5.1)	1 (2.6)	39
71 ~ 80	2 (20)	—	7 (70)	1 (10)	—	10
81 ~	1 (33.3)	—	2 (66.7)	—	—	3
不 明	4 (40)	2 (20)	2 (20)	—	2 (20)	10
其 他	1 (100)	—	—	—	—	1
計	463 (42.1)	237 (21.6)	332 (30.2)	51 (4.6)	15 (1.4)	1,098

面(洞)事務所나 郡廳中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느쪽이 더 不便한가? (學歷別)

	면사무소	군 청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무	32 (25.8)	11 (8.9)	71 (57.2)	8 (7.3)	1 (0.8)	124
한 글 해 득	42 (29.8)	18 (12.7)	71 (50.4)	7 (5.0)	3 (2.1)	141
서 당	12 (40.0)	5 (16.7)	9 (30.0)	4 (13.3)	—	30
국 민 교	150 (45.3)	66 (19.9)	97 (29.3)	15 (4.5)	3 (0.9)	331
중 학	74 (52.1)	34 (23.9)	28 (19.7)	4 (2.8)	2 (1.4)	142
고 등	70 (42.1)	56 (33.7)	31 (18.7)	8 (4.8)	1 (0.6)	166
대 학	76 (55.1)	40 (29.0)	16 (11.6)	4 (2.9)	2 (1.4)	138
그 이 상	1 (12.5)	2 (25.0)	5 (62.5)	—	—	8
N. R	6 (33.3)	5 (27.8)	4 (22.2)	—	3 (16.7)	18
計	463 (42.1)	237 (21.6)	332 (30.2)	51 (4.6)	15 (1.4)	1,098

資 料

面(洞)事務所나 郡廳中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느쪽이 더 不便한가? (性別)

		면사무소	군 청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남		339	135	141	24	6	645
		(52.5)	(20.9)	(21.9)	(3.7)	(0.9)	
녀		121	100	189	27	7	444
		(27.2)	(22.5)	(42.5)	(6.1)	(1.6)	
N.	R	3	2	2	—	2	9
		(33.3)	(22.2)	(22.2)		(22.3)	
計		463	237	332	51	15	1,098
		(42.1)	(21.6)	(30.2)	(4.6)	(1.4)	

面(洞)事務所나 郡廳中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느쪽이 더 不便한가? (地域別)

		면사무소	군 청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청	송	53	9	35	2	1	100
		(53)	(9)	(35)	(2)	(2)	
금	능	56	12	29	5	3	105
		(53.3)	(11.4)	(27.6)	(4.8)	(2.9)	
천	안	49	12	41	6	1	109
		(45.0)	(11.0)	(37.6)	(5.5)	(0.9)	
평	창	36	28	45	4	—	113
		(31.9)	(24.8)	(39.8)	(3.5)		
인	천	25	51	33	6	—	115
		(21.7)	(44.3)	(28.7)	(5.2)		
부	산	35	39	32	7	4	117
		(29.9)	(33.3)	(27.3)	(6.0)	(3.4)	
광	주	38	38	26	5	—	107
		(35.5)	(35.5)	(24.3)	(4.7)		
여	천	59	8	39	7	—	113
		(52.2)	(7.1)	(34.5)	(6.2)		
무	주	57	13	35	7	1	113
		(50.3)	(11.5)	(30.9)	(6.2)	(0.8)	
서	울	55	27	17	2	5	106
		(51.9)	(25.5)	(16.0)	(1.9)	(4.7)	
計		463	237	332	51	15	1,098
		(42.1)	(21.6)	(30.2)	(4.6)	(1.4)	

面(洞)事務所나 郡廳中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느쪽이 더 不便한가? (出生地別)

			면사무소	군 청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조	사	지	288	76	133	18	7	522
			(55.0)	(14.5)	(25.4)	(3.5)	(1.4)	
도	내		98	86	131	22	4	341
			(28.7)	(25.2)	(38.4)	(6.5)	(1.2)	
이	남		48	43	42	9	3	145
			(33.1)	(29.6)	(29)	(6.2)	(2.1)	
이	북		23	23	21	—	1	68
			(33.8)	(33.8)	(30.9)		(1.5)	
其	他		5	9	4	1	—	19
			(26.3)	(47.4)	(21.1)	(5.2)		
N.	R		1	—	1	1	—	3
			(33.3)		(33.3)	(33.4)		
計			463	237	332	51	15	1,098
			(42.1)	(21.6)	(30.2)	(4.6)	(1.4)	

地域社會에 對한 共同意識을 行政區域別로 이를 살펴보면 最近에 새로히 自治團體가 된 郡의 境遇는 亦是 廣域이라서 그런지 面에 比해서 相當히 弱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음을 圖表 19에서 곧 알 수 있다.

卽 「面事務所나 郡廳中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느 쪽이 더 不便한가?」라는 設問에 對해서 面事務所라고 答한 者가 全體의 42.1%에 該當하는 463名인데 反하여 郡廳이라고 答한 者는 이의 約 절반 程度인 21%로 237名에 不過하고 나머지는 全部 「모르겠다」를 包含하여 無關心으로 되어있다.

勿論 이와 같은 結果는 現在까지의 行政體系로 보아 地方民이 直接 郡廳과는 接觸하지 않음으로 別般 關心이 없이 지내온 까닭이라고 하겠으나 亦是 地域이 넓을수록 共同意識이 稀薄해 짐을 알수있다.

圖表 19에서 이를 優先 性別로 보면 「모르겠다」는 應答은 女性이 男性의 倍나되고 있으며 自己의 主觀的 意思表示를 한者中 男子는 郡廳보다 面事務所の 廢止가 더 不便하다고 하는 應答者가 倍나 넘고 있으나 女性의 境遇에는 極甚한 差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郡廳쪽이 若干 劣勢한 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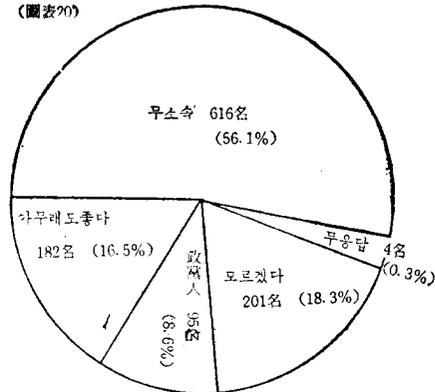
學歷別로 보면 「모르겠다」라는 無關心한 態度가 學歷에 反比例하고 있는 關係로 應答者는 自然 學歷에 比例하여 많아지고 있는데 面事務所쪽이 斷然優勢하다. 卽 圖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面事務所라고 應答한 者의 數는 郡廳이라고 答한 者의 二倍를 훨씬 上廻하고 있다.

한편 地域別로 보면 仁川·釜山·光州 및 서울 等의 主로 都會地에서는 郡廳(便)이 더 不便한 것으로 態度의 表現을하고 있는 點이 興味를 끌게 한다. 勿論 都會地에서는 郡이 基礎的 自治團體로 되었다는 事實을 大部分 農村地域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事實과 面事務所와는 直接 接觸할 機會가 없었음으로 面事務所가 地方民에게 어떠한 惠澤을 주고 있는가 하는 何等의 具體的 事實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確認하여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미 議會篇에서 指摘한 바 있는 서울特別市議會의 必要度에 對한 農村地域의 地方民으로부터의 應答에서 찾을 수 있었던 境遇와 같은 現象이라 볼수있다.

年歷에 있어서는 뚜렷한 傾向을 찾기힘드나 無關心한 態度는 年齡에 比例하며 面事務所와 郡廳의 必要性에 對한 態度는 各各 다른 水準에서 年齡에 反比例하는 듯하며 亦是 郡廳 보다는 面事務所の 경우가 二倍程度의 높은 水準을 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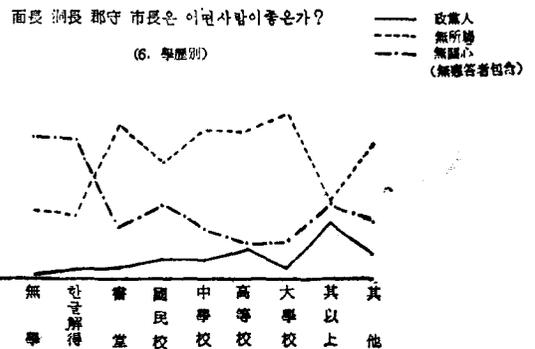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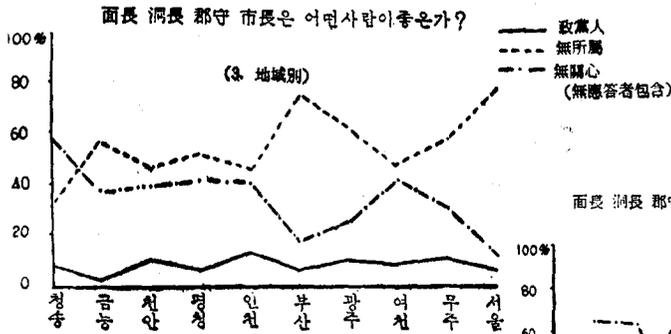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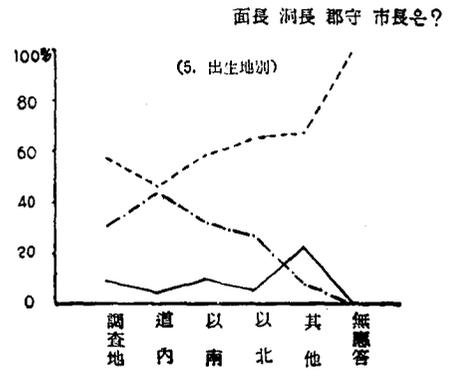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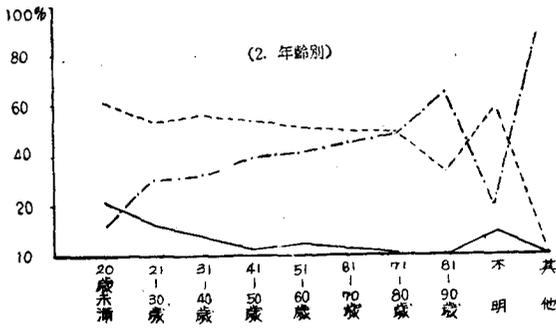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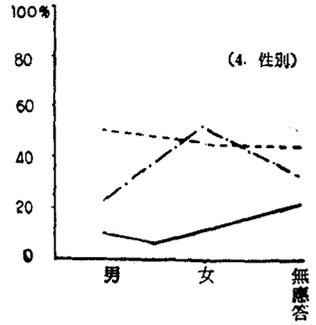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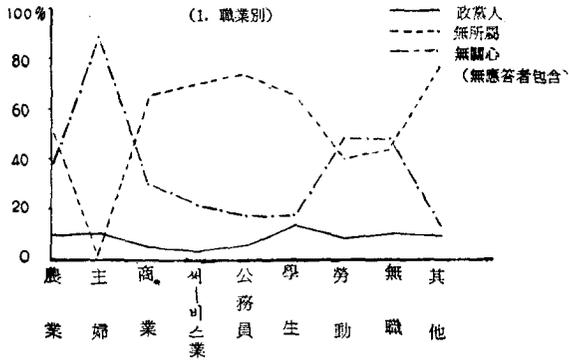
九. 地方民이 좋아하는 人物

(圖表20)



面長 洞長 郡守 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資 料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面長·洞長·郡守·市長은? (職業別)

	정당에 소속	무소속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N. R	計
농업	38 (9.3)	213 (52.3)	69 (16.9)	86 (21.1)	1 (0.2)	407
주부	1 (10)	—	2 (20)	7 (70)	—	10
상업	6 (4.6)	85 (66)	23 (17.9)	14 (10.9)	—	128
서비스	3 (4.2)	51 (71.8)	12 (16.9)	5 (7.0)	—	71
공무원	4 (6.7)	44 (74.5)	9 (15.2)	1 (1.6)	1 (1.6)	59
학생	7 (13.7)	34 (66.6)	10 (19.6)	—	—	51
노동	1 (8.3)	5 (41.6)	3 (25.0)	3 (25.0)	—	12
무	29 (9.7)	134 (45.2)	51 (17.2)	81 (27.3)	1 (0.3)	296
其他	6 (9.3)	50 (78)	3 (4.6)	4 (6.2)	1 (1.5)	64
計	95 (8.6)	616 (56.1)	182 (16.5)	201 (18.3)	4 (0.3)	1,098

面長·洞長·市長·郡守은? (年齡別)

	정당에 소속	무소속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N. R	計
20歲 미만	12 (22.2)	34 (62.9)	5 (9.2)	3 (5.5)	—	54
21 ~ 30	40 (12.6)	173 (54.9)	60 (19)	41 (13)	1 (0.3)	315
31 ~ 40	28 (8.6)	186 (57.7)	53 (16.4)	55 (17)	—	322
41 ~ 50	7 (3.0)	129 (50.5)	42 (18.4)	48 (21)	2 (0.8)	228
51 ~ 60	6 (5.1)	62 (53.4)	15 (12.9)	33 (28.4)	—	116
61 ~ 70	1 (2.5)	20 (51.2)	6 (15.3)	12 (30.7)	—	39
71 ~ 80	—	5 (50)	1 (10)	4 (40)	—	10
81 ~	—	1 (33.3)	—	2 (66.6)	—	3
不明	1 (10)	6 (60)	—	2 (20)	1	10
其他	—	—	—	1 (100)	—	1
計	95 (8.6)	616 (56.1)	182 (16.5)	201 (18.3)	4 (0.3)	1,098

資 料

面長・洞長・郡守・市長은? (地域別)

		정당에 소속	무소속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N.	R	計
청	송	8 (8.0)	34 (34)	30 (30)	28 (28)	—	—	100
금	능	3 (2.9)	60 (57.1)	15 (14.2)	26 (24.8)	1	—	105
천	안	17 (11.5)	52 (47.7)	20 (20)	20 (20)	—	—	109
평	창	7 (6.1)	59 (52.0)	12 (10.6)	35 (30.9)	—	—	113
인	천	14 (12.2)	53 (46)	31 (26.9)	16 (13.9)	1	—	115
부	산	7 (5.9)	88 (75.2)	16 (13.6)	6 (5.1)	—	—	117
광	주	10 (9.3)	67 (62.6)	13 (11.2)	16 (14.9)	1	—	107
여	천	10 (8.8)	55 (48.6)	12 (10)	36 (31.8)	—	—	113
무	주	12 (10.6)	65 (57.5)	17 (15)	18 (15.9)	1	—	113
서	울	7 (6.6)	83 (78.3)	16 (15)	—	—	—	106
計		95 (8.6)	616 (56.1)	182 (16.5)	201 (18.3)	4 (0.3)	—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性別)

		정당에 소속	무소속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N.	R	計
남		60 (9.3)	331 (51.3)	104 (16.1)	49 (7.6)	1 (0.1)	—	645
녀		33 (7.4)	181 (40.7)	78 (17.5)	150 (33.7)	2 (0.4)	—	444
무	응답	2 (22.2)	4 (44.4)	—	2 (22.2)	1 (11.1)	—	9
計		95 (8.6)	616 (56.1)	182 (16.5)	201 (18.3)	4 (0.3)	—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出生地別)

		정당에 소속	무소속	아무래도 좋	모르겠다	N.	R	計
조	사지	57 (10.9)	304 (58.2)	78 (14.9)	80 (15.3)	3 (0.5)	—	522
도	내	19 (5.5)	165 (48.3)	64 (18.7)	93 (27.2)	—	—	341
이	남	12 (8.2)	86 (59.5)	24 (16.5)	22 (15.7)	1	—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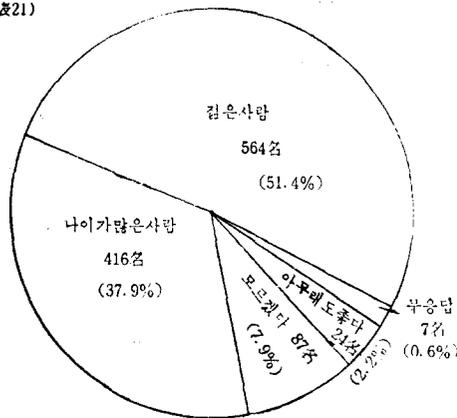
地方自治意識에 관한 實態報告

이	복	3 (4.4)	45 (66)	16 (23.5)	4 (5.8)	—	68
其	他	4 (21)	13 (68.4)	—	2 (10.5)	—	16
N.	R	—	3 (100)	—	—	—	3
計		95 (8.6)	616 (56.1)	182 (16.5)	201 (18.3)	4 (0.3)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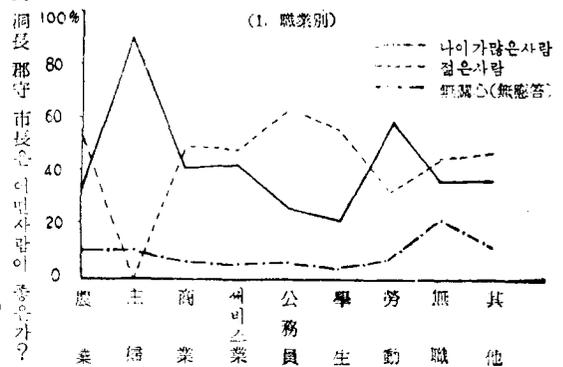
面長·洞長·郡守·市長은? (學歷別)

	정당에 속	무소속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N. R	計
무 학	2 (1.6)	39 (31.4)	14 (11.2)	69 (55)	—	124
한글해독	9 (6.3)	40 (28.3)	32 (22.6)	60 (42.5)	—	141
서당	2 (6.6)	21 (70)	3 (10)	4 (13.3)	—	30
국민학교	34 (10.2)	180 (54.3)	63 (19)	53 (16)	1	331
중학교	13 (9.1)	99 (69.7)	20 (14)	9 (6.3)	1	142
고등학교	24 (14.4)	116 (69.2)	23 (13.8)	3 (2.5)	—	166
대학교	7 (5.0)	107 (77.5)	24 (17.3)	—	—	138
그 이상	2 (25)	3 (37.5)	2 (25)	—	1 (12.5)	8
기타	2 (11.1)	11 (61.1)	1 (5.5)	3 (16.6)	1 (5.5)	18
計	95 (8.6)	616 (56.1)	182 (16.5)	201 (18.3)	4 (0.3)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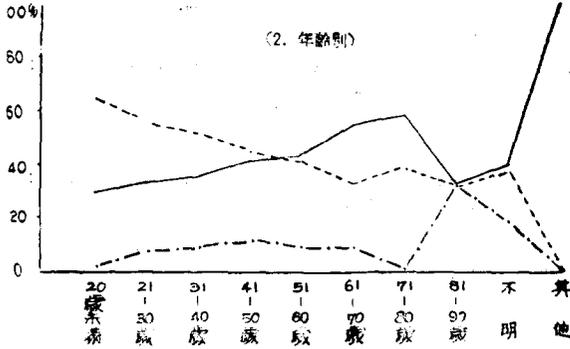
(圖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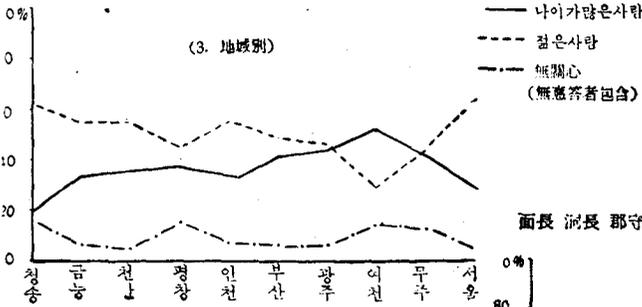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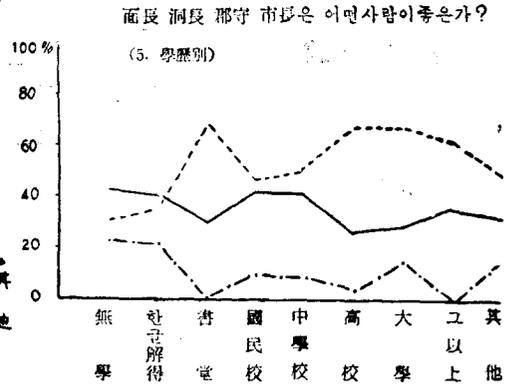
面長·洞長·郡守·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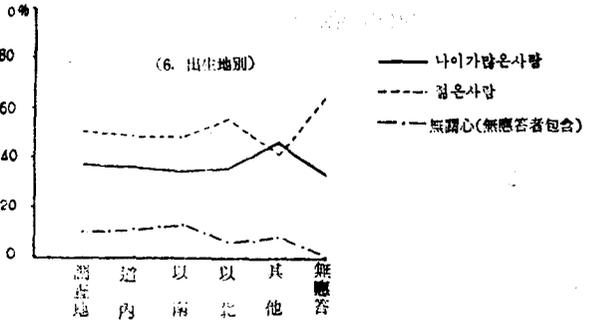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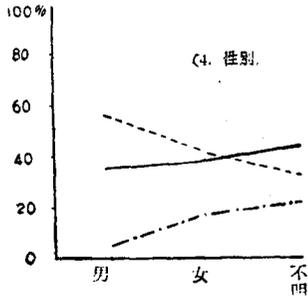
資 料



面長 洞長 郡守 市長은 어떤사람이 좋은가?



面長 洞長 郡守 市長은 어떤사람이 좋은가?



面長・洞長・郡守・市長은? (地域別)

지역	성별	나이		활 력 강 한 사 람	모 르 겠 다	기 타	무 응 답	計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청	송	20 (20.0)	63 (63.0)	15 (15.0)	2 (2.0)	—	100	
금	능	36 (34.3)	59 (56.2)	8 (7.6)	1 (1.0)	1 (1.0)	105	
천	안	40 (36.7)	63 (57.8)	5 (4.6)	1 (0.9)	—	109	
평	창	43 (38.2)	51 (45.3)	12 (10.7)	7 (6.2)	—	113	
인	천	40 (34.8)	65 (56.5)	10 (8.7)	—	—	115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부	산	49 (41.8)	59 (50.4)	5 (4.3)	3 (2.7)	1 (0.8)	117
광	주	48 (44.8)	51 (47.6)	7 (6.5)	1 (0.9)	—	107
여	천	60 (53.0)	35 (30.9)	14 (12.4)	4 (3.5)	—	113
무	주	84 (42.4)	50 (44.2)	7 (6.2)	4 (3.5)	4 (3.5)	113
서	울	32 (30.1)	68 (64.1)	4 (3.8)	1 (0.9)	1 (0.9)	106
計		416 (37.9)	564 (51.4)	87 (7.9)	24 (2.2)	7 (0.6)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出生地別)

			나이가 지긋 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	젊어서 활 동력강한 사람	모르겠다	기	타	무	응	담	計
조	사	지	201 (38.4)	270 (51.6)	37 (7.1)	10 (1.9)	4 (0.9)	—	—	—	522
도		내	129 (37.8)	172 (50.4)	32 (9.4)	8 (2.3)	—	—	—	—	341
이		남	51 (35.1)	73 (50.3)	14 (9.6)	4 (2.8)	3 (2.1)	—	—	—	145
이		북	25 (3.68)	39 (57.3)	3 (4.4)	1 (1.5)	—	—	—	—	—
기		타	9 (47.3)	8 (42.1)	1 (5.3)	1 (5.3)	—	—	—	—	19
무	응	담	1 (33.3)	2 (66.7)	—	—	—	—	—	—	3
計			416 (37.9)	564 (51.4)	87 (7.9)	24 (2.2)	7 (0.6)	—	—	—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年齡別)

			나이가 지긋 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	젊어서 활 동력강한 사람	모르겠다	기	타	무	응	담	計
20	세	미 만	16 (29.6)	36 (66.6)	2 (3.7)	—	—	—	—	—	54
21	~	30	106 (33.6)	181 (57.4)	22 (6.9)	5 (1.6)	1 (0.3)	—	—	—	315
31	~	40	116 (36.0)	171 (53.0)	27 (8.4)	6 (1.9)	2 (0.6)	—	—	—	322
41	~	50	94 (41.2)	103 (45.1)	22 (9.6)	7 (3.1)	2 (0.8)	—	—	—	228
51	~	60	51 (44.0)	51 (4.4)	9 (7.3)	4 (3.4)	1 (0.8)	—	—	—	116
61	~	70	22 (56.3)	13 (33.3)	4 (10.3)	—	—	—	—	—	39
71	~	80	6 (60.0)	4 (40.0)	—	—	—	—	—	—	10

		資 料					
81	~	1 (33.3)	1 (33.3)	1 (33.4)	—	—	3
그	이	4 (40.0)	4 (40.0)	—	1 (10.0)	1 (10.0)	10
불	명	1 (100)	—	—	1	—	1
	計	416 (37.9)	564 (51.4)	87 (7.9)	24 (2.2)	7 (0.6)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職業別)

		나이가 경험이 많은 사람	지국하여 많은 사람	젊어서 활동 력강한 사람	모르겠다	기	타	응	답	무	計
농	업	140 (34.3)		222 (54.4)	32 (7.8)		10 (2.5)		3 (0.7)		407
주	부	9 (90.0)		—	—		1 (10.0)		—		10
상	업	55 (43.0)		64 (50.0)	5 (3.9)		4 (3.9)		—		128
씨	비	32 (44.8)		35 (49.0)	3 (4.2)		1 (1.4)		—		1
공	무	16 (27.0)		39 (65.9)	2 (3.4)		—		2 (3.4)		59
학	생	14 (27.4)		34 (67.3)	1 (1.8)		2 (3.5)		—		51
노	동	7 (58.3)		4 (33.3)	—		—		1 (8.4)		12
	無	118 (39.8)		135 (45.5)	40 (13.5)		3 (10.0)		—		296
기	타	25 (39.0)		31 (48.4)	4 (6.2)		3 (4.7)		1 (1.6)		64
	計	416 (37.9)		564 (51.4)	87 (7.9)		24 (2.2)		7 (0.6)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性別)

		나이가 경험이 많은 사람	지국하여 많은 사람	젊어서 활동 력강한 사람	모르겠다	기	타	무	응	답	計
남		236 (36.6)		373 (57.8)	19 (2.9)		13 (2.0)		4 (0.6)		645
녀		176 (39.6)		188 (42.3)	68 (15.3)		10 (2.2)		2 (0.4)		444
불	명	4 (4.44)		3 (33.3)	—		1 (11.1)		1 (11.1)		9
	計	416 (37.9)		564 (51.4)	87 (7.9)		24 (2.2)		7 (0.6)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學歷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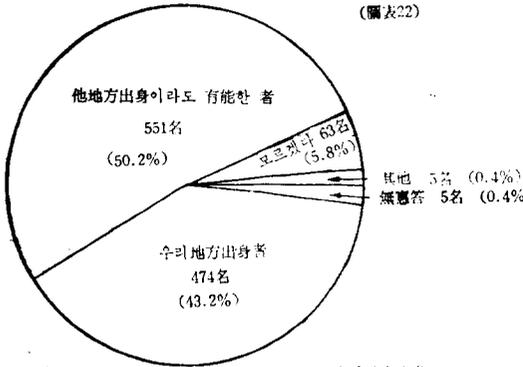
		나이가 경험이 많은 사람	지국하여 많은 사람	젊어서 활동 력강한 사람	모르겠다	기	타	무	응	답	計
무	학	54 (43.5)		39 (31.4)	29 (23.4)		2 (1.6)		—		124
한	글	58 (41.1)		52 (36.9)	21 (15.9)		8 (5.7)		2 (1.4)		141
서	당	9 (30.0)		21 (70.0)	—		—		—		30
국	민	142 (42.9)		159 (48.0)	25 (2.6)		5 (1.5)		—		331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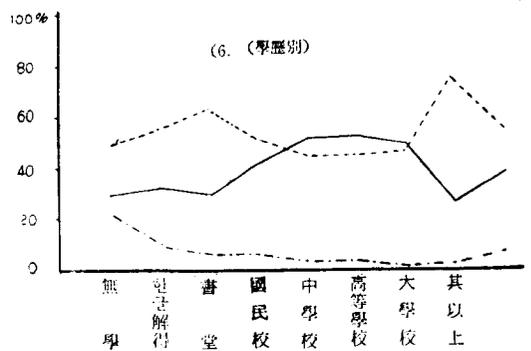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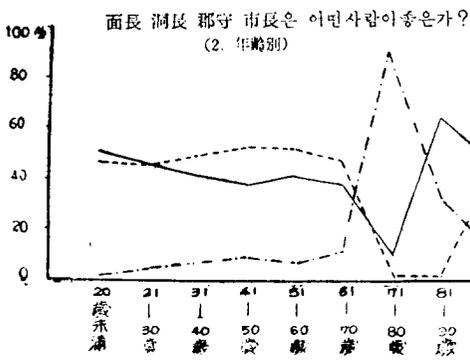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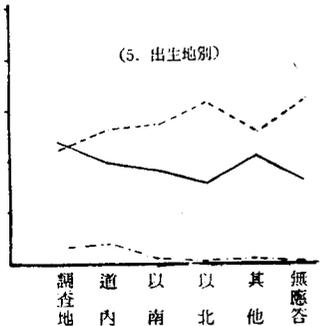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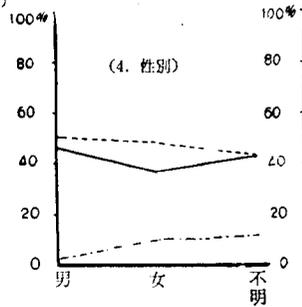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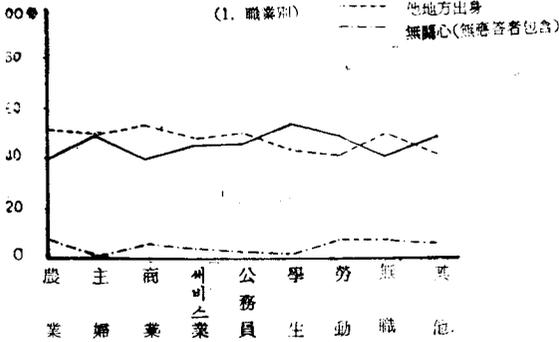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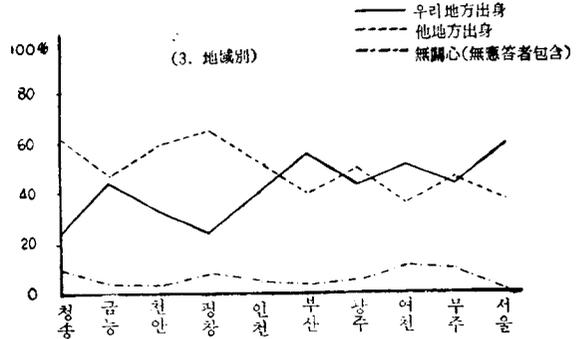
중학교	59 (41.5)	71 (50.0)	7 (4.9)	4 (2.8)	1 (0.7)	142
고등학교	46 (27.7)	113 (68.0)	4 (2.4)	2 (1.2)	1 (0.6)	166
대학교	39 (28.2)	95 (68.8)	1 (0.7)	2 (14.5)	1 (0.7)	138
그 이상	3 (37.5)	5 (62.5)	—	—	—	3
가타	6 (33.3)	9 (50.0)	—	1 (5.5)	2 (11.2)	18
計	416 (37.9)	564 (51.4)	87 (7.9)	24 (2.2)	7 (0.6)	1098

面長 洞長 郡守 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圖表22)



面長 洞長 郡守 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資 料

面長・洞長・郡守・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職業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청	송	27 (27)	63 (63)	9 (9)	—	1 (1)	100
금	능	49 (46.6)	51 (48.7)	3 (2.9)	1 (0.9)	1 (0.9)	105
천	안	38 (24.9)	66 (60.5)	5 (4.6)	—	—	109
평	창	29 (25.7)	75 (66.4)	9 (7.9)	—	—	113
인	천	47 (40.9)	61 (53.)	6 (5.2)	1 (0.9)	—	115
부	산	66 (56.4)	47 (40.1)	3 (2.6)	—	1 (0.9)	117
광	주	46 (43.0)	55 (51.4)	4 (3.7)	2 (1.9)	—	107
역	천	58 (51.3)	41 (36.3)	13 (11.5)	1 (0.9)	—	113
무	주	50 (44.2)	51 (45.2)	10 (8.8)	—	2 (1.8)	113
서	울	64 (60.4)	41 (38.7)	1 (0.9)	—	—	106
	計	474 (43.2)	551 (50.2)	63 (5.3)	5 (0.4)	5 (0.4)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出生地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조	사 지	252 (48.3)	235 (45.2)	30 (5.7)	1 (0.2)	4 (0.8)	522
도	내	135 (39.6)	181 (53.1)	23 (7.4)	2 (0.6)	—	341
이	남	55 (38.0)	79 (54.5)	9 (6.0)	1 (0.6)	1 (0.6)	145
이	북	23 (33.8)	44 (64.7)	—	1 (0.1)	—	68
기	타	8 (42.1)	10 (52.9)	1 (0.5)	—	—	19
무	응 답	1 (33.3)	2 (66.7)	—	—	—	3
	計	474 (43.2)	551 (50.2)	63 (5.8)	5 (0.4)	5 (0.4)	1,098

面長・洞長・市長・郡守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年齡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20	세 미 만	27 (50)	26 (48.0)	1 (2)	—	—	54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21	~	30	151 (47.9)	148 (47)	15 (4.8)	1 (0.3)	—	315
31	~	40	138 (42.9)	162 (50.3)	17 (5.3)	3 (0.9)	2 (0.6)	322
41	~	50	87 (38.2)	123 (53.9)	17 (7.5)	—	1 (0.4)	228
51	~	60	48 (41.3)	61 (52.6)	6 (5.2)	1 (0.9)	—	116
61	~	70	15 (38.5)	19 (48.1)	5 (12.8)	—	—	39
71	~	80	1 (10)	8 (80)	—	—	1 (10)	10
81	~		2 (66.7)	—	1 (33.3)	—	—	3
不	明		5 (50)	4 (40)	—	—	1 (10)	10
기	타		—	—	1	—	—	1
計			474 (43.2)	551 (50.2)	63 (5.8)	5 (0.4)	5 (0.4)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地域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농	업	164 (40.3)	211 (51.9)	28 (6.9)	1 (0.2)	3 (0.7)	407
주	부	5 (50)	5 (50)	—	—	—	10
상	업	52 (40.6)	69 (53.9)	6 (4.7)	1 (0.8)	—	128
씨	비 스	34 (47.9)	34 (47.9)	2 (2.8)	—	1 (1.4)	71
공	무 원	28 (47.4)	29 (49.2)	2 (3.4)	—	—	59
학	생	28 (54.9)	22 (43.1)	—	1 (2)	—	51
노	동	6 (50)	5 (41.7)	1 (8.3)	—	—	12
무		124 (41.9)	149 (50.3)	22 (7.4)	1 (0.4)	—	296
기	타	33 (51.6)	27 (42.2)	2 (3.1)	1 (1.5)	1 (1.5)	64
計		474 (43.2)	551 (50.2)	63 (5.8)	5 (0.4)	5 (0.4)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性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男	298 (46.2)	326 (50.5)	16 (2.5)	2 (0.3)	3 (0.5)	645

資 料

女	172 (38.7)	221 (49.9)	47 (10.6)	3 (0.6)	1 (0.2)	444
무응답	4 (44.4)	4 (44.4)	—	—	1 (11.2)	9
計	474 (43.2)	551 (50.2)	63 (5.8)	5 (0.4)	5 (0.4)	1,098

面長・洞長・郡守・市長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學歷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무 학	36 (29.0)	61 (49.2)	27 (21.8)	—	—	124
한글해독	47 (33.3)	80 (56.8)	12 (8.5)	—	2 (1.4)	141
서 당	9 (30)	19 (63.4)	—	1 (3.3)	1 (3.3)	30
국민학교	140 (42.3)	170 (51.4)	18 (5.4)	2 (0.6)	1 (0.3)	331
중 학교	74 (52.1)	65 (45.8)	2 (1.4)	1 (0.7)	—	142
고 등 학 교	90 (54.2)	73 (44)	2 (1.2)	1 (0.6)	—	166
대 학 교	69 (50)	67 (48.5)	2 (1.5)	—	—	138
그 이 상	2 (25)	6 (75)	—	—	—	8
무응답	7 (39)	10 (55.5)	—	—	1 (5.5)	10
計	474 (43.2)	551 (50.2)	63 (5.8)	5 (0.4)	5 (0.4)	1,098

圖表 20, 21, 22에 나타나 있는 事實을 綜合하여 檢討함으로써 地方民이 願하고 있는 人物을 살펴보기로 하자.

郡守・市長・面長・洞長 등은 어떤 人物이어야 하는가에 對해서 卽 人物本位를 中心으로 具體的인 設問을 들어 (1) 自己고장 사람이어야 하는가? (2) 政治人이어야 하는가? (3) 年齡이 지긋하고 經驗이 豊富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등을 基準으로 地方民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人物을 打診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答을 얻었다. 젊어서 活動力이 強하고 政黨에는 屬해있지 않으며 우리고장 사람이면 더욱 좋으나 他地方 사람이라도 有能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答은 여러가지 面에서 重要的인 意義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로 政黨人이어야 한다는 사람은 全體의 8.6%인 95名에 不過한데 無所屬은 56.1%인 616名이나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無關心한 態度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같이 政黨人이면 困難하다는 答은 地方自治와 政黨問題에 對하여 主要한 몇가지 點을 暗示하고 있다. 地方自治와 政黨과의 關係에 對하여서는 많은 論議가 오랜 歲月을 두고 繼續되어 온것이 事實이나 地方自治란 一비쓰行政인 까닭에 그 地方自治의 方針이나 施策에는 政黨의 主義主張과 對立될 程度로 差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立場은 어느 나라에서나 地方自治에 政黨은 不必要하다는 生覺을

오랫동안 持續하여 왔으나 革新政黨의 出現은 이를 뒤엎고 그 必要性을 強調함에 이르렀는데 그 理論的 根據란 地方自治를 國家의 一線機關에 依한 行政이 아니고 獨立된 自治體에 依한 政治로 보는 點과 長期計劃의 實踐을 爲해서는 議員의 任期가 짧고 無所屬이면 그 交替로서 責任을 擔者가 없게 된다는 點을 들고 있다. 如何間 外國의 傾向은 이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地方議會의 無所屬議員數로 그 地方의 政治意識을 測定하는 「바로메터」로 보는 形便이다. 特히 中央政治에 進出하려면 반드시 地方政治의 길을 밟아야 하겠끔 되어 있을 程度이다. 民主主義의 學校로서 地方自治의 價値가 認識되면 될수록 地方政治의 政黨化는 必然的인 것이라고 할수 있다. 「독크빌」이 地方自治야 말로 自由로운 人民의 힘이라고 說破하고 地方自治가 自由에 對하여 가지고 있는 關係 못지 않게 自治團體로서의 地方政府도 政黨과의 關係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想到시키고 싶다. 卽 民主主義의 展開는 議會主義의 確立이고 모든 國民은 政治에 參與한다는 것으로 歸結된다 하겠는데 그 根據는 亦是 政黨政治의 속에서 찾아야 될것이다.

本調査에 나타난 結果를 보면 無所屬을 支持하는 度는 全體의 半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56.1%로 616名이나 된다는 것이 이미 指摘하였으나 다른 어느것보다도 압도적으로 優勢하다. 이와같은 無所屬의 支持度를 應答內容別로 보면 學歷에 比例하는 傾向이 있고 年齡에는 反比例하고 있음으로 보아 (1) 革新政黨이 없다는 事實과 (2) 過去의 經檢이 中央政黨의 옮겨온 面만 模倣하여 腐敗한 地方政治를 하였다는 事實의 反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젊어서 活動力이 강한 사람이 좋다는 支持率이 높다는 事實은 全體의 51.4%인 564名으로 단연 압도적이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全部의 主婦로 되어 있으나 主婦의 數를 합쳐도 37.9%인 416名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消極的 및 積極的인 無關心의 態度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具體的 事實에 立脚하여 考察하여 보면 젊고 活動力이 있는 사람을 支持하는 率은 職業에 있어서 公務員과 學生이 높으며 年齡에는 反比例하는 傾向이 있고 地域에 있어서는 亦是 農村地域보다 都會地가 훨씬 많으며 學歷에 있어서는 比較的 比例하여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書堂出身이 特別히 支持하는 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注目을 끌고 있다. 性別에 있어서는 男子가 女子보다 훨씬 높고 出生地別에서는 뚜렷한 傾向을 찾기 힘드나 以北 사람이 比較的 젊은 사람을 더 支持하는 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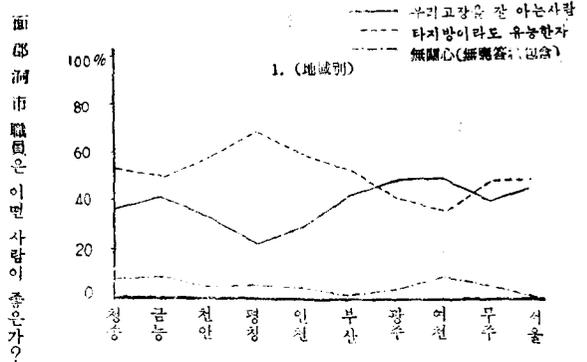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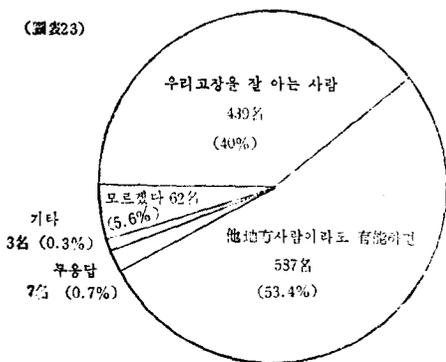
以上의 諸應答內容에 表示된바와 같이 젊어서 活動力이 강한 사람이 좋다고 하는 높은 支持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地方政府의 長을 社會的인 하나의 象徵的 意義보다는 行政家的 意義로서의 面을 더 強調함에 이르렀다는 事實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 亦是 學歷이 높을수록 年齡이 젊을수록 그 傾向이 높은 것으로 보아 能率的인 地方行政의 處理에 깊은 關心이 쏠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特히 最近에 國際의으로도 美國을 비롯한 몇 先進國에서 젊은 層의 政治的 進出이 뚜렷하여 졌고 革命以後 우리나라에도 현격하게 젊은 層의 진출이 增加함

을 보아 그 效果를 過去와 比較하여 봄으로 住民들의 心理的 變化를 갖이고 온것과 現 우리 나라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發展過程에서 當面한 諸問題를 보다 能率있고 과감하게 處理 하여야 한다는 住民들의 認識이 두터워 진것이라고도 볼수있다. 圖表 21에 나타난 數値를 보면 于先 注目을 끄는 것이 職業別에 있어서 主婦가 全體의 90%인 數가 나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며 學生과 公務員이 各各 58%와 66%로 第一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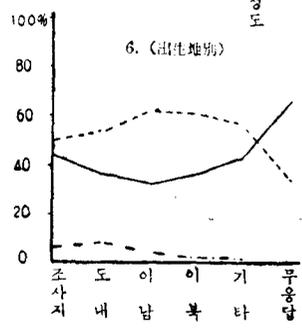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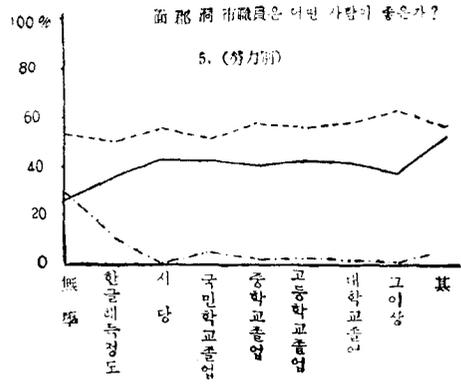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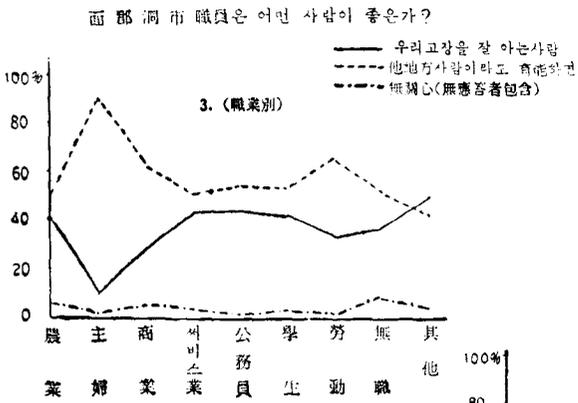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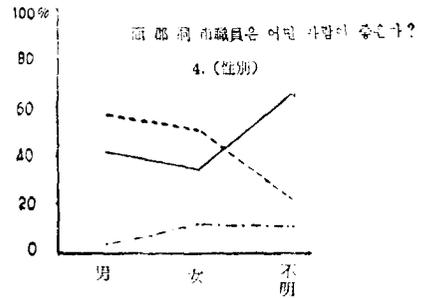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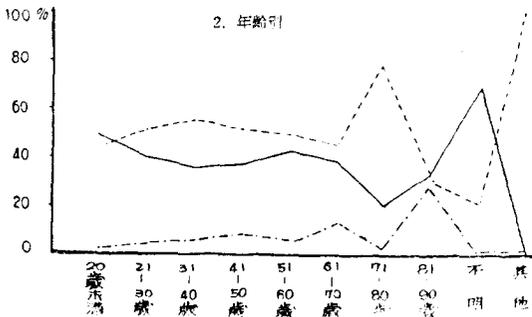
圖表 22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他地方出身이라도 有能하기만 하면 좋다는 者가 折半을 넘고 있으며 自己地方出身者이어야 된다는 者는 43% 程度이다. 特히 이곳에서는 無關心으로 나타난 數가 다른 設問에 比해 훨씬 작음으로 거이가 다 自己의 意思表示를 한것은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이 自己고장 出身이 아니라도 有能하면 無妨하다는 傾向은 「愛郷心」보다는 能率을 살리는 專門的 行政家를 바라는 두번째의 傾向과 一致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住民스스로가 過去에 非能率的인 人物로서 自治團體의 長들로부터 別로 惠澤을 받지 못하였음을 一面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問題點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상 싶다. 卽 先進外國과 같이 住民自治의 經驗이 있는 후에 이러한 傾向이 나타난다면 當然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自治意識이 稀薄하며 地方財政의 不足으로 自身의 힘으로 自身의 問題를 처리한다는 經驗이 없는데 이런 住民들의 生覺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地方行政이 地方自治와는 本質적으로 關係없는 行政分權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住民들의 期待하는 點은 적어도 現在에 있어서는 너무 빠른 構想이며 期待라 보아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自治意識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相通하는 것으로서 住民自治의 經驗이 있는 自治意識을 맞보았다면 그 속에는 民主主義 思想이 깃들어 能히 能率의 問題를 導入하여 民主主義와 能率을 조화시켜 보다 發展하는 位置에 끄러 올릴 수 있으나 民主主義의 確立을 보지 못한 우리나라는 專門的 行政家만의 選擇 卽 能率面만을 主張하는 것은 民主主義思想으로서의 住民自治를 經驗한 社會와의 그것과는 根本적으로 差異가 있음을 理解하여야 한다.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面·郡·洞·市職員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出生地別)

出生地	우리고장을 잘 아는 사람 현아는주람	타지방사람이 습도야능하랴	모르겠다	기	라	무응답	計
조 사 지	231 (44.2)	257 (49.2)	28 (5.4)	—	—	6 (1.2)	522
도	126 (36.9)	186 (54.6)	27 (7.9)	1 (0.3)	—	1 (0.3)	341
이	47 (32.4)	91 (62.8)	7 (4.8)	—	—	—	145
이	25 (36.8)	41 (60.3)	—	2 (2.9)	—	—	68
기	8 (42.1)	11 (57.9)	—	—	—	—	19

		資 料					
무	응	2	1	—	—	—	3
	답	(66.7)	(33.3)				
	計	439	587	62	3	7	1,098
		(40)	(53.4)	(5.6)	(0.3)	(0.7)	

面·郡·洞·市職員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地域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라	무응답	計
청	송	38	54	8	—	—	—	100
		(38)	(54)	(8)				
금	능	43	53	5	—	—	4	105
		(41)	(50.5)	(4.7)			(3.8)	
천	안	38	65	6	—	—	—	109
		(34.8)	(59.7)	(5.5)				
평	창	26	79	8	—	—	—	113
		(23.)	(69.9)	(7.1)				
인	천	36	69	7	—	—	—	115
		(31.3)	(60)	(6.1)	3			
부	산	50	65	2	—	—	—	117
		(42.7)	(55.6)	(1.7)				
광	주	53	48	6	—	—	—	107
		(49.6)	(44.8)	(5.6)				
여	천	57	44	12	—	—	—	113
		(50.5)	(38.9)	(10.6)				
무	주	46	57	8	—	—	2	113
		(40.7)	(50.4)	(7.1)			(1.8)	
서	울	52	53	—	—	1	—	106
		(49.5)	(50)			(0.9)		
	計	439	587	62	3	7	—	1,098
		(40)	(53.4)	(5.6)	(0.3)	(0.7)		

面·郡·洞·市職員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年齡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라	무응답	計
20	세 미 단	28	25	—	—	—	1	54
		(51.8)	(46.3)				(1.9)	
21	~ 30	130	169	14	—	—	2	315
		(41.3)	(53.6)	(4.5)			(0.6)	
31	~ 40	120	181	17	—	—	1	322
		(37.3)	(56.2)	(5.3)	3		(0.3)	
41	~ 50	86	124	17	—	—	1	228
		(37.7)	(54.4)	(7.5)			(0.4)	
51	~ 60	50	58	7	—	—	1	116
		(43.2)	(50)	(6)			(0.8)	
61	~ 70	15	18	6	—	—	—	39
		(38.4)	(46.1)	(15.4)				
71	~ 80	2	8	—	—	—	—	10
		(20)	(80)					
81	~	1	1	1	—	—	—	3
		(33.3)	(33.3)	(33.4)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不	明	7 (70)	2 (20)	—	—	1 (10)	10
기	타	—	1 (100)	—	—	—	1
計		439 (40)	587 (53.4)	62 (5.6)	3 (0.3)	7 (0.7)	1,098

面·郡·洞·市職員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職業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농	업	173 (42.5)	206 (50.6)	24 (5.9)	—	4 (0.9)	407
주	부	1 (10)	9 (90)	—	—	—	10
상	업	37 (28.9)	83 (64.8)	7 (5.4)	1 (0.7)	—	128
씨	비 스	31 (43.6)	37 (52.1)	3 (4.2)	—	—	71
공	무 원	26 (44.0)	33 (55.0)	—	—	—	59
학	생	22 (43.1)	28 (54.9)	—	—	1 (1.9)	51
노	동	4 (33.3)	8 (66.6)	—	—	—	12
無		112 (37.8)	155 (52.3)	26 (8.7)	2 (0.6)	1 (0.3)	296
기	타	33 (51.5)	28 (43.7)	2 (3.1)	—	1 (1.5)	64
計		439 (40)	587 (53.4)	62 (5.6)	3 (0.3)	7 (0.7)	1,098

面·郡·洞·市職員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性別)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男		266 (41.2)	362 (56.1)	13 (2.0)	1 (0.1)	3 (0.3)	645
女		167 (37.6)	223 (50.2)	49 (11)	2 (0.4)	3 (0.6)	444
무	응 답	6 (66.6)	2 (22.2)	—	—	1 (11.1)	9
計		439 (40)	537 (53.4)	62 (5.6)	3 (0.3)	7 (0.7)	1,098

面·郡·洞·市職員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學歷制)

		우리고장을 잘아는사람	타지방사람이 라도유능하면	모르겠다	기 타	무응답	計
무	학	33 (26.6)	64 (51.6)	26 (20.9)	—	1 (0.8)	124

資 料

한글해독	51 (36.1)	71 (50.3)	17 (12)	—	2 (1.4)	141
서당	13 (43.3)	17 (56.6)	—	—	—	30
국민학교	142 (42.9)	171 (51.6)	15 (4.5)	2 (0.6)	1 (0.3)	331
중학교	58 (40.3)	81 (57)	1 (0.7)	1 (0.7)	1 (0.7)	142
고등학교	72 (43.3)	92 (55.4)	2 (1.2)	—	—	166
대학교	57 (41.3)	79 (57.2)	1 (0.7)	—	1 (0.7)	138
고이상	3 (37.5)	5 (62.5)	—	—	—	8
기타	10 (55.5)	7 (38.8)	—	—	1 (5.5)	18
計	439 (40)	587 (53.4)	62 (5.6)	3 (0.3)	7 (0.7)	1,098

圖表 23에 依하여 面·郡·洞 및 市에서 勤務하는 職員은 어떤 人物이어야 하는가에 對해서 卽 地方政府의 長의 境遇와 같은 設問中 (1) 우리 고장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2) 他地方出身이라도 有能하면 되는가? 에 對한 調査를 하였던바 우리 고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支持率이 40%인데 比하여 他地方사람이라도 有能하기만 하면 된다는 支持率이 53%나 됨으로서 13%나 더 높은 支持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圖表 20~22에서 言及한 各行政單位의 長의 境遇와 別로 다름이 없다.

그럼으로 이곳에서는 若干의 特異한 點만을 指摘하고 끝으려한다. 卽 他地方사람이라도 有能하면 된다는 支持率이 높다고 하는 事實은 各 行政單位의 事務量이 民願書類에 依하여 增加하여 감으로 行政官廳과 接觸을 할 機會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經驗에 依하여 느낄 수 있는 事實이며 性別에 있어서 女性보다 男性이 더 有能한 사람을 願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를 間接으로 證明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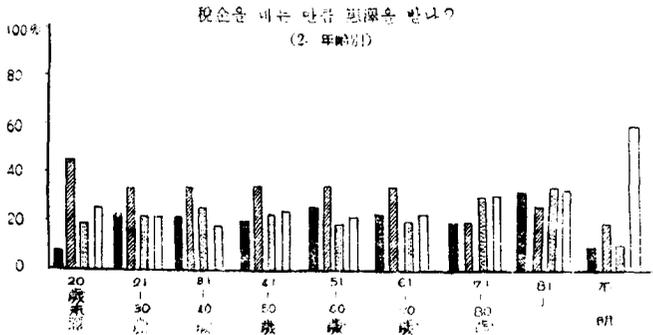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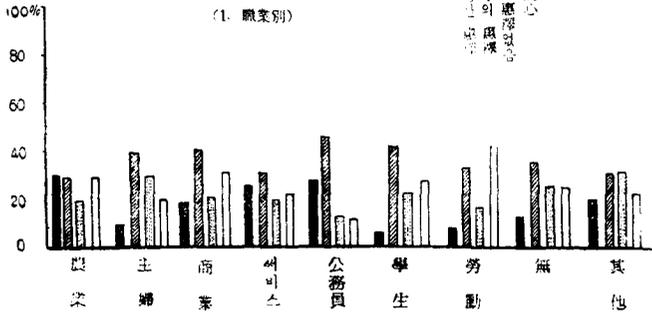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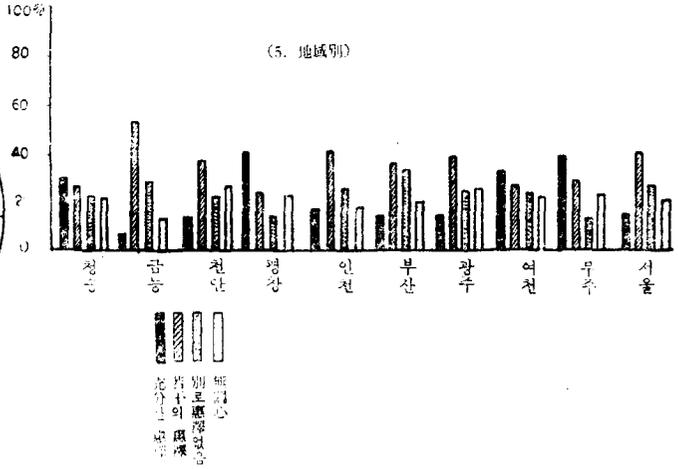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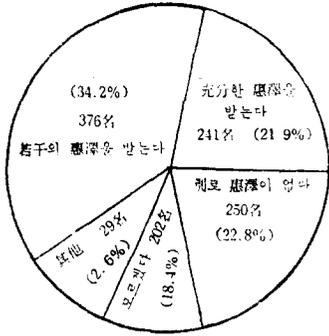
그러나 職業에 있어서 主婦가 우리고장을 잘 아는 사람의 支持率이 10%이며 反對로 他地方 사람이라도 有能하면 된다는 支持率이 90%나 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들의 注目을 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全體적으로 綜合하여 볼때 郡守·市長·面長·洞長의 경우와 비슷한 傾向을 보여 주고 있음으로 再次 說明의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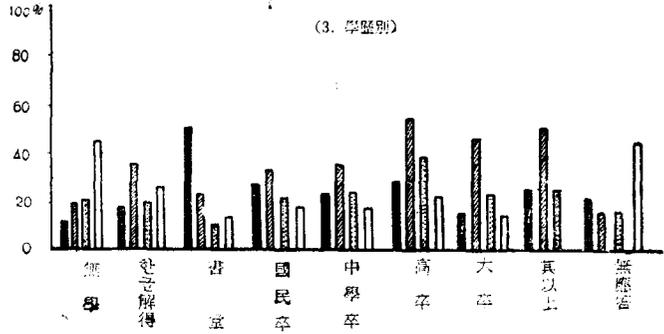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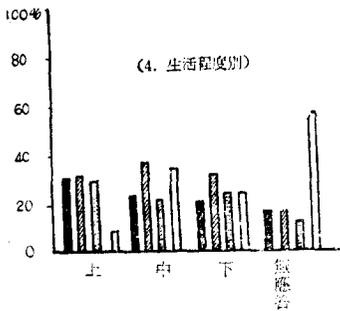
十. 納稅와 國家로부터의 惠澤

地方自治意識에 관한 實態報告

(表24) 稅金을 내는 만큼 惠澤을 받나?



稅金을 내는 만큼 惠澤을 받나?



資 料

稅金을 낸만큼 國家로부터 혜택을 받는가? (職業別)

	충분히 혜택	약간혜택	별혜택이 없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농 업	125 (30.7)	123 (30.2)	84 (20)	70 (17.2)	3 (8.4)	2 (4.9)	407
주 부	1 (10)	4 (40)	3 (30)	2 (20)	—	—	10
상 업	25 (19.5)	53 (41.4)	29 (22.7)	19 (14.3)	1 (7.8)	1 (7.8)	128
서비스	19 (26.7)	22 (31.1)	14 (9.7)	13 (18.3)	2 (2.8)	1 (1.4)	71
공 무 원	17 (28.8)	27 (45.7)	8 (13.6)	4 (6.7)	1 (1.6)	2 (3.4)	59
학 생	3 (5.8)	22 (43.1)	12 (23.5)	12 (23.5)	1 (1.9)	1 (1.9)	51
노동	1 (8.3)	4 (33.3)	2 (16.7)	4 (33.3)	1 (8.3)	—	12
무	37 (12.5)	107 (36.1)	77 (26.1)	69 (23.3)	3 (1.0)	3 (1.0)	296
其他	13 (20.3)	14 (3.9)	21 (32.8)	9 (14.0)	1 (1.6)	6 (9.4)	64
計	241 (21.9)	376 (34.2)	250 (22.8)	202 (18.4)	13 (1.2)	16 (1.4)	1,098

稅金을 낸만큼 國家로부터 혜택을 받는가? (學歷別)

	충분히 혜택	약간혜택	별혜택이 없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무 학	16 (12.9)	25 (20.2)	27 (21.8)	52 (41.9)	3 (2.4)	1 (0.8)	124
한글해득	26 (18.4)	50 (35.5)	28 (19.9)	36 (25.5)	1 (0.7)	—	141
서 당	15 (50)	7 (23.3)	3 (10)	4 (13.3)	—	1 (3)	30
국 민 출	90 (27.2)	110 (32.2)	75 (22.7)	50 (15.1)	4 (1.2)	2 (0.6)	331
중 출	34 (23.9)	50 (35.2)	35 (24.6)	22 (15.5)	—	1 (0.7)	142
교 출	33 (28.4)	63 (54.3)	44 (37.9)	20 (17.2)	2 (1.7)	4 (3.4)	166
대 출	21 (15.2)	64 (46.3)	33 (23.9)	16 (11.6)	3 (2.1)	1 (0.7)	138
그 이 상	2 (25.1)	4 (50.2)	2 (25.1)	—	—	—	8
N. R	4 (22.2)	3 (16.7)	3 (16.7)	2 (11.1)	—	6 (33.3)	18
計	241 (21.9)	376 (34.2)	250 (22.8)	202 (18.4)	13 (1.2)	16 (1.4)	1,098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稅金을 낸만큼 國家로부터 稅額을 받는가? (生活程度別)

	충분히 혜택	약간혜택	별혜택이 없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上	11 (29.7)	12 (32.4)	11 (29.7)	3 (8.1)	—	—	37
中	141 (23.1)	226 (37)	132 (21.6)	100 (16.4)	6 (9.8)	5 (8.2)	610
下	86 (19.9)	135 (31.1)	105 (24.2)	97 (22.4)	7 (1.6)	3 (0.7)	433
N. R	3 (16.6)	3 (16.6)	2 (11.1)	2 (11.1)	—	8 (44.4)	18
計	241 (21.9)	376 (34.2)	250 (22.8)	202 (18.4)	13 (1.2)	16 (1.4)	1,098

稅金을 낸만큼 國家로부터 稅額을 받는가? (年齡別)

	충분히 혜택	약간혜택	별혜택이 없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20 세 미 만	4 (7.4)	25 (46.2)	11 (20.3)	12 (22.2)	1 (2.0)	1 (2.0)	54
21 ~ 30	71 (22.5)	105 (33.3)	68 (21.5)	63 (20)	6 (1.9)	2 (0.6)	315
31 ~ 40	74 (22.9)	109 (33.8)	82 (25.4)	51 (15.8)	3 (0.9)	3 (0.9)	322
41 ~ 50	49 (20.4)	80 (35)	54 (22.6)	42 (13)	2 (8.7)	1 (3.0)	228
51 ~ 60	31 (26.7)	39 (33.6)	22 (18.9)	22 (18.9)	1 (0.8)	1 (0.8)	116
61 ~ 70	9 (23.0)	13 (33.3)	8 (20.5)	8 (20.5)	—	1 (2.5)	39
71 ~ 80	2 (20)	2 (20)	3 (30)	2 (20)	—	1 (10)	10
81 ~	—	1 (33.3)	1 (33.3)	1 (33.3)	—	—	3
不 明	1 (10)	2 (20)	1 (10)	—	—	6 (60)	10
기 타	—	—	—	1	—	—	1
計	241 (21.9)	376 (34.2)	250 (22.8)	202 (18.4)	13 (1.2)	16 (1.4)	1,098

稅金을 낸만큼 國家로부터 稅額을 받는가? (出生地別)

	충분히 혜택	약간혜택	별혜택이 없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조 사 지	131 (25.0)	181 (34.6)	116 (22.2)	83 (15.6)	2 (0.4)	9 (1.7)	522
도 내	72 (21.1)	102 (29.9)	81 (23.7)	75 (21.9)	8 (2.3)	3 (0.8)	341
이 남	25 (17.2)	54 (37.2)	29 (20.0)	32 (22.0)	2 (1.4)	3 (2.1)	145

資 料

이	복	10 (14.7)	27 (39.7)	21 (30.8)	8 (11.8)	1 (1.5)	1 (1.5)	68
기	타	3 (15.8)	9 (47.3)	3 (15.8)	4 (21.0)	—	—	19
무	응	—	3 (100)	—	—	—	—	3
計		241 (21.9)	376 (34.2)	250 (22.8)	202 (18.4)	13 (1.2)	16 (1.4)	1,098

稅金을 낸만큼 國家로부터 혜택을 받는가? (地域別)

		충분히 혜택	약간혜택	별혜택이 없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청	송	30 (30)	25 (25)	23 (23)	22 (22)	—	—	100
금	능	8 (7.6)	54 (51.4)	29 (27.6)	13 (12.4)	—	1 (0.9)	105
천	안	15 (13.8)	40 (36.7)	24 (22.0)	27 (24.8)	1 (0.9)	2 (1.8)	109
평	창	45 (39.8)	28 (24.8)	15 (13.3)	23 (20.3)	1 (0.8)	1 (0.8)	113
인	천	20 (17.3)	46 (40.0)	29 (25.2)	18 (15.6)	—	2 (1.7)	115
부	산	16 (13.7)	40 (34.2)	38 (32.5)	20 (17.1)	2 (1.7)	1 (0.8)	117
광	주	14 (13.1)	40 (37.4)	26 (24.3)	23 (21.5)	1 (0.9)	3 (2.8)	107
여	천	36 (31.9)	29 (25.7)	25 (22.1)	20 (17.6)	1 (0.9)	2 (1.8)	113
무	주	42 (37.2)	32 (28.3)	14 (12.4)	19 (16.8)	5 (4.4)	1 (0.9)	113
시	울	15 (14.1)	42 (39.6)	27 (25.5)	17 (16.0)	2 (1.9)	3 (2.8)	106
計		241 (21.9)	376 (34.2)	250 (22.7)	202 (18.4)	13 (1.2)	16 (1.4)	1,098

稅金을 낸만큼 國家로부터 혜택을 받는가? (性別)

		충분히 혜택	약간혜택	별혜택이 없다	모르겠다	기 타	N. R	計
남		179 (27.7)	233 (36.1)	138 (21.4)	82 (12.7)	6 (0.9)	7 (1.1)	645
녀		60 (13.5)	143 (32.2)	111 (25.0)	120 (27.0)	7 (1.6)	3 (0.7)	444
불	응	2 (22.2)	—	1 (11.1)	—	—	6 (66.7)	9
計		241 (21.9)	376 (34.2)	250 (22.7)	202 (18.4)	13 (1.2)	16 (1.4)	1,098

以上の 圖表를 分析 考察하며 若干의 意見을 加하여 本調査資料의 短評을 마치려한다.
우리나라의 地方自治가 그 存立을 위하여 가장 時急이 要請되는 問題는 무엇보다도 먼저

地方自治團體가 그 自體의 存立에 必要한 基礎的 條件의 充足, 그중에서도 特히 經濟的 自立性의 保障問題라 生覺된다. 經濟的 自足性의 問題는 國家에 있어서나 私인에 있어서나 다를 바 없다. 卽 地方自治團體는 그것이 하나의 生命있는 活動團體로서 그 지닌바 機能을 다하기 爲하여서는 그 成立의 物質的 基礎가 必要하다. 따라서 이 物質的 基礎없이 하나의 生命體가 그 生命을 維持해 나갈 수 없음은 너무나 當然하다. 그러므로서 地方財政의 確保를 두고 마로히 地方自治의 完璧을 云謂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財政力의 自立問題는 住民의 負擔力, 生産力, 地域의 生産經濟의 構造問題와도 有關한 것이기도 하나 또 한편으로는 住民들의 國家財政政策上의 歲入問題 및 歲出問題에 對한 새로운 認識으로 租稅政策과 支出政策에 깊은 關心을 가지므로서 當面한 財政的 問題를 解決하는 것만이 우리의 地方自治를 發展케 하고 그 機能을 發揮케 하는 捷徑인 것으로 믿는다. 이번 調査에 依하여 나타난 것을 보면 國民으로서 納稅를 할 義務가 있다는 것은 都會地와 僻地사이에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租稅의 歷史가 오래되었고 따라서 누구나 經驗하였으며, 租稅論에 發表에 따라 생겨진 財政學上 定說로 되어있는 獨逸의 國法學者이며 國民經濟學者인 Wagner Schaffle 等에 依하여 主唱된 租稅의 義務說과 能力說의 認識인지는 分明하지 않으나 納稅를 하여야 된다는 事實은 比較的 全部 알고 있는 形便이다. 그러나 이들은 大部分 國民으로서 租稅義務가 있다는 그 事實 自體만 알뿐 稅金을 왜 내야 하며 그 制度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稅金으로 貰인 돈이 어떻게 使用되고 있는가 하는 具體的인 事實에 있어서는 全然 모르고 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이같은 無知의 첫째 原因은 教育水準의 低下에서 곧 찾아볼 수 있으나 이를 더욱 깊이 考察해 보면 그 根本原因은 心理的인 面에서 찾아볼 수 있다. 卽 教育水準이 낮기 때문에 稅金이 집집마다 부과될 때 그것이 地方稅인가 그렇지 않으면 國稅인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체험하며 더 나가서는 보다 具體的인 것은 알려고 全然 生覺도 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事實은 그 原因을 教育에만 돌릴것이 아니라 問題는 그 住民들의 自治意識의 程度問題에 그 根本原因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이와같이 이들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活動 特히 稅制自體에 對한 無知는 納稅者로서의 國政 및 地方政에 參與한다는 意識의 薄弱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는데 이는 圖表 24에 表示된바로서 짐작이 간다. 調査의 設問에 依하면 卽「稅金을 낸 만큼 國家로부터 惠澤을 받는다고 生覺하느냐?」하는데 對한 結果로서 充分이 이를 窮知할 수 있다. 卽 惠澤을 받는다고 生覺하는 者는 全體에 不過 21%이고 「어느程度 받는것 같다」는 者가 34%이나 「別로 惠澤을 못 받는다」는 答을 한 者가 22%나 되어 充分한 惠澤을 받는다는 者보다 많다는 事實을 알수 있다. 職業別로 보면 農業· 採-미쓰業· 公務員等은 約 30% 程度가 充分한 惠澤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商業· 主婦· 勞動· 學生 等은 훨씬 떨어지며 「別로 惠澤이 없다」는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다. 學歷別로 보며는 書堂出身者의 例를 除外하고는 「모르겠다」의 應答은 學歷에 反比例하나 「充分한 惠澤

을 받는다」와 「別로 惠澤을 못받는다」는 各各 學歷에 比例하여 많이 「못받는다」의 境遇는 學歷이 높을수록 받는다 보다 高率을 나타내고 있다.

地域別로 考察하여 보면 特히 都會地일수록 「못받는다」가 「惠澤을 받는다」에 比해서 高率임은 注目을 끌게하며 生活程度別로 보면 上流와 下流에 比해 中流는 「若干의 惠澤을 받는다」에 있어서는 全體의 37%로 首位를 占하나 「別로 惠澤이 없다」에 있어서는 21.6%로 가장 작은 率을 보임도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한다. 이 같은 諸事實을 綜合하여 考察하여 볼때 「別로 惠澤을 못받는다」는 率이 높고 좀더 나가서는 「若干 惠澤을 받는다」가 亦是 높으며 「充分한 惠澤을 받는다」는 사람이 작은 率을 보여주는 것은 國家財政活動上 國家, 地方公共團體의 經費의 支出對象에 對한 詳細한 面을 알지 못하는 教育水準에서 오는 問題도 있으나 根本的인 문제는 住民들의 自治意識의 薄弱에 있다고 한것은 이미 前述한바 있지만 한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資金의 放出이 國民經濟의 發展에 別로 效果를 내지 못하였다는 點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財政活動은 間接資本의 增加만을 期하는데 極급하였고 다시 말하면 國民들에게 自己의 손에 들어가게 直接 惠澤을 주지 못하고 間接的 利益만을 주었기 때문에 國民들은 別로 이를 感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例를 들면 公共土木事業中에 道路工事같은 것은 國民이 全部 惠澤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똑같이 惠澤을 받기 때문에 國民各者가 別로 이의 惠澤을 느끼지 못하며 또 한가지는 直接的인 惠澤이 없는 것으로 社會保障制度의 確立이 되지 않은것을 들을 수 있다. 卽 우리나라는 所得分配效果를 위한 社會保障制度가 確立되지 못하여 이의 直接 惠澤을 받는 者는 極少하다. 國際的인 經濟發展에 있어서도 先進國과 後進國의 國民所得은 各國의 財政政策에 依하여 增加하여 가는것은 事實이지만 그 增加의 폭이 兩者 사이에는 漸漸 넓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國內에 있어서도 上流인 高所得層과 下流인 低所得層의 個人所得의 差異는 그 폭이 또한 넓어지고 있는데 이 폭을 좁혀 國民經濟의 均衡的인 成長을 위하여는 또한 「피구」가 展開한 厚生經濟 卽 누구나 經濟生活의 安定을 갖기 위하여는 그 國家에 適合한 租稅制度和 社會保障制度의 確立이 捷徑인 것이라고 보겠다.

本調査에 나타난 바와 같이 「惠澤을 別로 받지 못하였다」는 率이 높다는 것은 都市에 있어서 失業者 救濟事業이 別 效果를 내지 못한것과 農村에 있어서는 아직껏 營農資金의 放出이 미비 하였으며 特히 財政投融資로서 莫大한 水利組合 및 治山治水 事業이 農民에게는 別 效果를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國家의 義務教育實施같은 것도 農村 한 모퉁이에서는 全然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本調査를 通하여 充分히 엿볼 수 있었던 事實이다.

結 論(Summary)

民主主義思想을 發展 育成시키며 또 政治的으로 民主主義로의 方向이 우리나라의 政治志

向으로서 設定된 이후 地方自治의 關心도 날로 높아가고 있는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民主主義와 地方自治와의 關係에 있어서 理論的인 것으로는 勿論 現實的으로 많은 問題가 內在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民主主義思想으로서의 自治意識의 問題인 것이다. 住民自治의 經驗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自治意識의 기틀이 民主主義發展의 關鍵이 되는 것이라고 보겠다. 住民自治의 經驗이 있고 民主主義思想이 깃든 英國을 비롯한 諸先進國에 있어서는 舊秩序가 다시 拂拭하여 감에 따라 最近 中央集權化 傾向이 일어나고 地方制度改革은 必然的으로 다시 提起되어 一部에서는 이와같은 傾向이 民主化의 困難과 失望을 준다고 하며 그 自體가 民主的 意識의 萌芽라고 感知하고 있다. 따라서 現代의 自治意識의 性格은 自治政內의 問題가 아니라 오히려 그 自治政을 통한 一般政治로의 擴張으로 對外的인 문제가 發生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舊秩序의 復活傾向이 政治形態를 取하여 다시 나타나고 이는 廣域行政을 通하여 能率이란 目的에 接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一般政治意識의 問題는 더 나가서는 住民自治意識은 以上에 言及한 諸問題들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며 村의 政治로서 理解가 있어야 할 住民自治가 個人個人的 自治意識의 결어로 地方自治 存在의 價値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憂慮된다. 地方自治는 民主主義政治의 地域的 實驗인 同時에 民主主義訓練의 場으로서 自治能力을 育成시켜 民主主義發展에 基礎的 條件을 마련하여야 될 것이다. 本調査에 나타난 것 중 「우리고장 사람이 아니라도 有能하면 自治團體의 長이 될수 있다」 또 그 사람은 政黨에 加入안된 能力있는 者라야 더욱 좋다」라는 人物本位의 思想이 自治意識이 다 消化되고 그 위에 能率을 찾는 것이 아니라 國民들의 政治教育이 未熟하고 또한 政黨自體의 未成熟은 本調査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이를 特別히 指摘하고 싶다. 그러나 本調査에서 나타난 것은 住民自治意識에 對한 教育的 效果라는 것이다. 卽 政治自體에 對하여 若干의 關心이 있음을 發見하였고 政治意識에 對하여 그 關心度가 어느 程度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本調査에서 選舉의 문제와 財政의 문제에 特別히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의 關心度는 地方自治制度上 消極的인 것에 지나지 못하며 自治에 對한 住民들의 共同意識은 그 길이 멀고 또 험하다는 것을 指摘안할 수 없으며 우리 앞에는 自治意識에 對抗하는 鬪爭이 가로 놓여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되겠다. 民主主義의 胎動은 自治政의 認識이며 여기에 完全한 하나의 生命體로서 地方團體가 탄생하는 것이다.

地方團體로서의 하나의 問題點은 그것이 國家에 對立하여 存在하는 獨存的인 團體가 아니고 國家內部에 있어서의 政治·行政 더 나가서는 經濟·社會·文化的 民主的 合理的인 處理 機構인 것이고 또 一國의 統治機構의 一環을 形成하는 것이기 때문에 國家와의 關聯에 있어서는 恒常 兩者의 協同關係에서 問題가 考慮되어야 한다. 地方自治의 觀念을 法律的 政治的 側面으로만 把握할 것이 아니고 그 社會的 自然的 經濟的 및 文化的 諸側面을 가진 하나의

生命體로서 把握하여 地方自治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야만 國家使命 또는 國家目的과

調和 兩立될 수 있는 가를 住民이 스스로 主人이 되어 是認承服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生覺할 때 國家는 그 立法의 方法에 依하여 地方自治에 關한 皮相의 外見的인 法定立에 앞서 먼저 現實의 地方自治가 存在하고 있는 基礎的인 諸條件에 對한 檢討와 把握이 必要하며 然後에 그러한 基礎的 條件위에 우리가 가져야 할 地方自治制度의 具體的인 法定立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 制度의 存立을 可能하게 하는 基礎的인 地盤의 뒷바침이 없는 制度는 그것이 完備되고 理想的이라 손 치드라도 한갓 生命없는 屍體에 不遇한 것이다. 그러므로서 于先 地方自治存立의 가장 基礎的인 土臺를 意味하는 各個人의 地方社會全體에 對한 共同體의 意識은 如何한가? 從前의 共同體의 意識으로서 結合된 地方選舉는 現實의 으로 어떤 結果를 초래하였는가? 選舉가 준 民主的 生活意識의 覺醒度는 어떤가? 住民들의 納稅에 對한 態度가 自治意識의 昇華를 直接 가지고 오고 있는가? 또한 地方團體가 그 團體의 存立目的을 다 할수 있는 經濟的 財政의 充足性은 어떻게며 앞으로 改善向上될 수 있겠는가? 經濟的 自立없는 地方自治가 果然 地方自治일 수 있느냐?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民選은 果然 公正히 되었으며 어느程度의 行政能力이 있는 자가 되는가?

選舉를 하는 有權者가 스스로 各者 權利行使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選出된 長의 行政實績은 어떠하였는가? 等 諸般條件을 檢討하고 檢討된 條件위에 비로서 妥當하고 適應할수 있는 法의 定立과 그에 따른 制度의 存在만이 眞正한 意味의 地方自治를 可能하게 하며 또한 그를 育成하는 方案일 것이라고 思料된다. 民主主義政治는 밑으로부터의 政治이기 때문에 自治意識의 發達이 곧 民主主義發達의 基를 마련하는 것이며 여기에 民主主義志向에 놓인 우리나라가 自治意識을 強調하며 그 育成策을 講究함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끝으로 本調査에 나타난 結果를 要約한다. 첫째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出方法에 있어서 間選制나 任命制를 支持하는 率보다 民選制를 支持하는 率이 서울과 釜山의 都會地로부터 農村에 이르기 까지 高率을 支配하고 있음은 自己의 살림을 自己가 해 보겠다는 慾望의 表現임으로 自治意識의 發展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 보겠다.

둘째로 選舉에 있어서 投票度數가 學歷에 反比例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나 選舉때 마다 하였다고 하는 率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亦是 地方自治意識面으로 볼때 相當한 進歩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注意할 것은 높은 投票度數가 반드시 높은 自治意識을 表現하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投票는 누구나 다 하여야 하는가?」의 設問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對答한 率이 66.2%나 되는 것은 莫然하나마 政治에 參與하여야 한다는 意識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 率이 都會地와 僻地와 比較할 때 都會地가 低率이란 事實은 都會地人들이 投票에 別 期待를 안갓이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겠으며 그것의 根本原因은 亦是 過去 政治人들의 부패에도 그 責任이 少을까 生覺된다.

셋째로 무엇을 보고 投票하느냐에 있어 人物本位의 思想은 一面 能率을 찾는 住民自治意識을 經驗하고 이제 다시 新中央集權化傾向에 依하여 發生된 思想같이도 生覺되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自治意識의 薄弱으로 보아서 이것은 人物本位냐 政黨이나? 하는 論議 自體가 政治意識의 低位性을 表示하는 것이며 따라서 一般 國民들의 政治教育의 未熟함과 政黨政治에 別期待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한 事實이다. 그러나 現在 韓國이 처하여 있는 狀況에 비추워 보아 政治를 하기 위한 制度보다는 政治行動者로서의 人物을 重要視하는 現狀態에 있어서는 오히려 政治의 關心도가 높다고 評價할 수도 있어 이러한 政治現狀을 옳바로 認識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며 政治에 對한 關心이 全然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라 보겠다. 특히 郡이 地方自治團體가 됨으로서 그 機關의 企劃과 執行에 있어서 그 機能을 效果的으로 發揮하기 위하여는 有能한 人物이 絶對 必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地方自治團體 長으로서 自由裁量權이 多少 擴大된 지금에는 더 한層 그렇다고 보겠다. 問題는 人物本位로 하되 政黨政治를 基盤으로 하고 있는 民主主義社會이기에 政黨의 育成策을 講究함과 同時에 政黨制度에 對하여 새로운 認識이 必要하지 않을까 한다.

다섯째 人物의 判斷은 어떻게 하느냐의 設問에 있어서 政見發表를 듣고 한다는 率이 55.8%나 占하고 있다는 事實은 價値判斷의 主體가 自己가 된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權利를 自由롭게 行事할 수 있다는 點에 비추워 볼때 民主主義思想이 깃들 터전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그와같은 政見發表에 依한 判斷이 學歷에 比例하고 있는데 學歷이 낮은 사람과 女性은 家族親知로부터 많은 影響을 받고 있다는 事實은 教育水準이 政治參與과든가 自治意識과 密接한 相互關係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價値基準을 自己가 세우지 못하고 親知나 外 他人으로부터 듣고 거기에 따르는 傾向이 都會地보다 僻地가 더 심하다는 것은 亦是 僻地가 教育面에 相當한 落後性을 免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自治意識의 새로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도 教育의 公正한 分配가 時急함으로 教育의 均等化에 主力하여 都會地와 僻地가 地方自治意識을 包含한 여러가지 面에 均衡的 成長이 있어야 되겠다고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生覺한다.

價値判斷基準을 自己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自治意識에 對하여 새로운 힘이 될수 있기에 價値判斷을 스스로 할 수 있게 教育水準을 높이는 方法이 要求됨은 時急한 課題이다.

여섯째 中央選舉와 地方選舉에 對한 關心度를 묻는 設問에 있어서 國會議員을 뽑는 中央選舉에 60%을 넘는 數가 關心을 表示하였다는 것은 一般 國政에 對하여 높은 關心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가지의 理由를 들어 說明할 수 있다. 하나는 中央選舉가 地方選舉보다 그 規模가 큼으로 因하여 여러가지 메스컴을 通하여 全國民이 이에 對한 認識을 갖게되고 특히 自治意識이 薄弱한 사람들은 自己가 조금이라도 더 들었는데 對하여 關心을 表示하는 것이 事實이다. 또 한가지는 住民들에 期待가 地方議會 보다는 國會에 더욱 큰 關

心を 갖고 있음으로 必然的으로 中央選舉自體에 關心度가 높아지게 되어 直接的인 原因으로서는 政治的 發展過程에 있어서 地方議會는 中央議會로부터 큰 影響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의 例로서 政府가 地方自治團體에 補助金을 支給하는 것이다. 더 根本的으로는 中央議會에서 地方議會를 發展시키며 向上시키는 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地方選舉는 平和의 社會改革의 基礎가 되며 또 그 手段이 됨으로 今일에 있어서 國政發展을 위하여는 地方選舉가 土司가 되어야 되며 國政에 先行해야 된다. 地方自治의 基礎는 또 地方選舉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겠다. 地方選舉의 投票의 質과 量은 住民의 自治意識의 實態를 파악하는데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오늘날 人口의 增加로 直接民主制의 採擇이 不可能한 只今에 地方選舉를 통한 住民들이 参政權이 發達되어야 하겠다.

다음 일곱째 國會議員 選舉에 投票한 사람의 當選如否에 關해서 設問하였던바 自己가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다는가 落選되었다는가 하는 應答이 各各 全體의 35.2%와 37.5%가 나왔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投票結果에 依하여 判斷되는 것임으로 自治意識과는 別다른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는 볼수 없으나 問題는 自己가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는지 혹은 落選되었는지 조차 모르는 者가 26%나 되는 形便이니 이는 住民들이 投票에 對하여 無關心하였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表現하는 것이라 보아야 겠으며 同時に 우리들에게 좋은 敎訓이 되는 것은 立候補者들의 選舉後에 住民들에게 對하는 態度를 올바르게 갖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住民들의 無關心한 態度가 學歷에 反比例하고 職業에 있어서 農業과 勞動者가 높은 率을 차지하고 있음은 亦是 自己가 投票한 結果에 對한 關心度는 個人의 所得과 教育水準과 併行한다고 보아야겠다. 따라서 農村地域의 個人所得을 올리는 方法과 同時に 婦女者를 包含한 教育을 받지 못하였던 住民을 위한 特別한 教育活動이 있어야겠다. 投票의 質과 量의 問題는 教育水準과 併行하면서 發展하여 가고 있는 것이 事實이기 때문이다. 住民의 代表者를 選出하는 地方選舉는 住民이 地方自治政에 參加하는 第一歩이며 따라서 이것은 住民自治의 土臺이며 住民意思의 基本的 表現이다. 우리가 選舉를 地方自治의 出發點이며 重要不可缺의 基礎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것은 自治의 發達史가 곧 選舉의 發達史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것은 選舉權의 行使가 自己自身の 生活과 重大한 關係가 있다는 事實을 認識하는 것이다. 卽 選舉權은 地方自治를 運營하고 그것은 곧 自己의 生活을 左右시킨다는 慎重한 思想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다. 것이다. 이같은 思想이 깃들 때 住民이 選出한 代表者는 眞實로 住民의 福祉에 貢獻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서 地方自治의 理想的 運營이 實現되는 것이다.

여덟째 制度의 變遷自體에 對한 關心度를 把握키 위하여 「郡이 基礎的 自治團體로 된 事實을 아는가?」라는 設問을 하여 調査한 結果 確實이 알고 있는 數는 全體의 約 25%에 지나지 않으며 約 74%가 자세히 모르던가 혹은 全然 모르고 있음으로 보아 政府의 메스콤의 機能이 相當히 未發達狀態에 있다는 것을 한가지 指摘할 수 있으나 亦是 根本的 原因은 住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民들의 地方政에 對한 無關心한 態도의 傾向을 엿볼 수 있다. 特히 女子가 男子들에 比하여 모른다고 한 率이 높음은 女性들에 對한 特別한 自治意識을 包含한 政治教育이 必要하다고 보아야겠다. 民主主義의 存立의 基礎가 自由와 平等思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思想이 理論에만 끝인 感이 있으며 實質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기 힘들다는 것은 亦是 多面的으로 男女가 完全平等的 位置에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一般政治意識의 實態 調査에서도 男子가 優勢함은 이를 證明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것은 教育의 平等思想 까지 소급할 수 있는데 現在에도 僻村 한구석에는 女子가 높은 教育을 받는 것을 反對하고 있는 사람이 許多하다. 이런 生覺이 殘留하는 以上은 不可避하게 女子와 男子가 政治意識 내지는 自治意識에 差異가 나타남을 알아야 한다. 自治意識은 곧 平等思想과 相通하기 때문이다.

「모른다」가 學歷에 反比例하고 있는 調査結果는 可能的 限 都會地와 僻地에 있어서 男女의 教育에 機會均等を 政策的으로 實現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3. 「農地稅와 財產稅가 地方稅인가 國稅인가?」그 알고 있는 實態를 調査한 결과 約 20% 程度가 正答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르겠다」 혹은 「國稅」라고 對答하였는데 이는 質問自體가 納稅者로서의 自覺보다 一種의 知識으로 되고 있음을 前提하나 이와같이 엄청난 數가 課稅의 主體에 關하여 모르고 있는 事實은 亦是 住民들이 自己地方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等閑視하였다는 點과 租稅에 關한 知識이 너무나 薄弱하다는 것을 立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地方財政의 確立은 國家의 補助보다는 地方住民이 스스로 納付하는 地方稅로 調達되어야 함으로 地方稅에 對한 보다 具體的인 事實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함은 地方住民의 義務가 아닐까?

地方自治團體는 한 機關이 組織됨으로 이를 中心으로 하여 地方民의 相互意思 소통이 되며 따라서 이것이 地方行政運營의 母體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에는 郡이나 市라고 볼수 있다. 지금 우리는 地方住民의 共同意識을 파악하기 위하여 郡廳이나 面事務所 中 하나가 없어진다면 어느편이 不便한가에 있어서 調査結果 郡廳보다는 面事務所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不便하다고 하는 事實이 많은것은 郡이 自治團體로 된것이 最近의 일임으로 그 必要性에 對한 절실한 느낌이 없었던 탓도 있겠으나 亦是 地域이 넓을수록 共同意識이 稀薄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自治團體의 財源만 풍부하다면 住民이 各者의 意思와 感情과 知識을 交流시킴으로서 直接 相通할 수 있는 行政區의 調整이 必要하다고 본다.

끝으로 「面·郡·洞 및 市長과 同時에 그 自治機關에 從事하는 職員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하는 設問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答을 얻었음으로 이를 分析說明함으로서 結論짓겠다.

卽 젊어서 活動力이 强하고 大概 政黨에는 屬해있지 않으며 우리 地方사람이면 더욱 좋으

나 他地方사람이라도 有能하면 된다는 答이 압도적이다. 이와같은 答은 여러가지 面에서 重要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有能하며 活動力이 있는 젊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 現行政國家로서 마땅한 思想의 表現이라고 보아야 하겠으며 政黨人을 避하는 事實은 우리에게 큰 흥미를 주고 있는데 이는 過去 政黨組織을 通하여 代表로 選出된 代表者들이 住民들에게 큰 信任을 얻을만한 業績이 없었다는 뜻도 있겠으나 여기에는 民主主義思想, 地方自治, 政黨問題에 對하여 重要的 몇가지 點을 보여주고 있다.

地方自治란 住民이 스스로 住民을 위하여 써-비쓰를 하는 行政임으로 이는 곧 民主主義思想인데 따라서 地方自治의 施策에는 政黨의 主義主張과 對立될 程度로 差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地方自治에는 政黨이 必要없다고 하는 思想이 支配的이 었으나 이는 후에 革新政黨의 出現으로 理論의 變遷을 갖이와 마침내 地方自治가 國家의 一線機關이 아니고 住民自治인 以上 政黨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支配的 傾向을 갖게 되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地方自治로서 住民自治가 發達·育成된 英國만 보드라도 自治體의 長期的 計劃을 實踐하기 위하여 政黨의 發達이 重要視되었던 것이다. 民主主義國家는 政黨國家라고 할만치 政黨은 議會政治의 바로메-터의 機能을 가지고 있으며 亦是 地方自治에도 그 機能이 重要的 條件이 될 만치 不可缺의 存在인 것이다. 卽 民主主義가 政黨에 對하여 가지고 있는 관계 못지 않게 地方自治團體도 政黨과의 關係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有能한 사람을 願한다면 政黨에서 찾는 것이 議會政治를 完全하게 確立됨을 期待하는 우리에게 더 效果的이고 唯一한 選擇이라고 보아야겠다.

過去の 經驗이 中央政黨의 옳지못한 點만 模倣하여 부패한 地方自治가 行하여졌던 事實에 비추워 人物本位로 選擇하고 있는 事實은 亦是 이런 곳에서 조금이나마 住民들이 地方을 위한 自治意識의 教育的 效果를 얻을수 있으며 이것은 젊어서 活動力이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데서 뚜렷하게 알수 있다. 卽 이러한 사람에 對하여 支持率이 높다는 事實은 地方自治團體長을 社會的인 象徴的 意義보다는 行政家의 專門家를 要求하는 現代國家에 있어서 相當한 發展이 地方行政意識面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過去에 우리들의 地方制度가 自治意識面에 教育的 效果를 얻었다고 봄은 事實이겠으나 한가지 어려운 事實은 住民自治의 經驗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能率만을 위한 有能한 行政家를 要求하는 것은 一面 民主主義思想으로서의 地方自治를 發展하는 位置로 昇華시킬 수는 없게 됨으로 우리의 課題는 이 兩者를 調和시켜 住民의 自治意識이 順調롭게 成長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본다.

<本大學院 副教授>